

성북 문예

제2호

2014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김

축 사

성북문예 제2호 발간을 자축하며



성북문화원 원장 조 태 권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입동을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마음에 찬 서리가 내리곤 합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기는 데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의 온정이 모여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한해가 흘러 《성북문예》도 제2호를 맞았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글이 세상에 소개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성북구는 많은 문인들의 창작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작품을 통해 삶을 배웠고, 희로애락을 느꼈습니다. 성북구 문인들이 그러했듯이 여기에 실린 작품들도 독자들과 가슴에 온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성북문예》 2호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성북문화원 문예
창작 실기반의 손영목 선생님과 수강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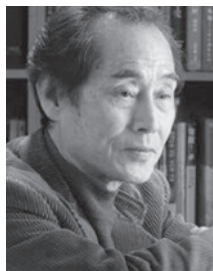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발 간 사

‘글쓰기의 생활화’ 확산을 기대하며



문예창작실기반 강사 손영목

『성북문예』제2집 탄생을 자축합니다.

성취를 목표로 하는 세상사 어느 것이 간단하고 쉬우며 순탄하랴만, 이 문집 역시 계획단계의 망설임과 재검토, 편집과 제작 과정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야 가까스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강사를 오히려 등떠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수강회원님들과 성북문화원의 상당한 지원 덕분에 가능해진 성과이므로, 이 지면을 빌려 여러분께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문예창작실기반은 느리게나마 내실과 성장의 기초를 착실히 다져왔다고 조심스럽게 자부합니다. 아직 연륜이 짧고 규모와 운영면에서 완전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도 없으나, 내로라하는 각종 선발경쟁제도를 통해서 현재까지 소설가 네 분을 비롯해 시인과 수필가 등, 양쪽 손가락을 꼽아야 할 만큼 신진문필가 여럿

분이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미 대기순번을 받고 레이스에 나설 기회를 버르는 역량 있는 회원님도 여럿입니다.

한날 지역단위 문화원의 이런 성과는 한국문단사회에서도 특이한 성공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은 오로지 수강회원 여러분이 모두 문학의 지고한 정신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와 열의로써 저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단데뷔만이 문학공부의 최종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지요. 자기 생각과 삶을 글로써 고상하게 제대로 표현함은 인간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자존과 성취의 행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글쓰기의 생활화’를 문예창작실기반 활동의 가장 높은 가치로 설정하고 출발했으며, 그 확산과 구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봉사한다는 자세를 아무쪼록 앞으로도 꾸준히 견지해나갈 예정입니다.

『성북문예』 제2집 출간을 기뻐하며, 이만 인사말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목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직무대행 역임
한국문인협회 이사 역임
현재 『한국문협60년사』 편찬위원장

차례

조태권 | 성북문예 제2호 발간을 자축하며

손영목 | ‘글쓰기의 생활화’ 확산을 기대하며

이지안 편 |

소설 악마, 도망치다 13

파리인간 31

시 청수장 40

호박꽃 목소리 41

이윤실 편 |

소설 곰의 슬픈 얼굴 45

시 봄 초대장 51

이승환 편 |

소설 역마차 아가씨 55

1973년, 여름 66

수필 구경값 73

의식의 전환 76

이미숙 편 |

수필	동자그림	83
	빛을 잃다	88
	인연의 소중함	92

옥수향 편 |

수필	그림자	101
	가을하다	106
시	아침, 길을 걷다	109
	농담	110
	모과	111

심희진 편 |

소설	달콤한 상상	115
	삼장법사	120
수필	여덟 살 아들	126
	관심의 효능	131

소재수 편 |

소설	부적(符籍) 한 장	139
수필	참 아름다웠던 그 여름의 약속	149
시	가을에 쓰는 편지	155
	자화상 2014	157
	겨울비 소묘(素描)	159

성정숙 편 |

수필	굴비말리기	163
	잡초랑 개나리랑	167

서향근 편 |

수필	수상한 행복느낌	177
	정의의 이름으로	181
	할머니의 가을	184

김시영 편 |

수필	새벽산책	191
	버드나무	196
시	철쭉	203
	조건 없는 사랑	205

김수희 편 |

수필	묘(猫)하고도 향기로운 휴가	209
	삶의 2막은 축복이다	213
시	성묘 가는 날	219
	미망(未忘)	220
	고애(孤愛)	221

강명화 편 |

소설	묘심(猫心)	225
----	--------	-----

마스카라	244
임종노트1	253



이지안

이지안 편

한국소설가협회 신인상 당선

소설 악마, 도망치다

파리인간

시 청수장

호박꽃 목소리

빗속을 걷다보면 어깨 위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곤 했다. 그때마다 한 손을 들어 어깨를 쓸어내렸다. 지우는 그것이 악마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잠식하고 있는 악마, 어느 순간 돌연 나타났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섬뜩한 존재.

하필이면 그날 엄마는 지우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악마가 출현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날 말이다. 물론 악마는 예정에도 없이 우연찮게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따금 지우는 자신의 몸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운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슬픔 같기도 하고 기쁨 같기도 불안 같기도 한, 좀체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갈래였다.

“형, 가까운 데서 사자. 아니면 이번엔 거스름돈을 나한테 주든지.”

지우는 동생이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발걸음에 더욱 속도를 내었다. 동생이 뛰는 듯이 걸어 지우를 뒤따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는 어느새 저만큼 뒤쳐져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지우는 잠깐 동안 뒤 돌아 동생을 바라보았다. 동생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힘껏 뛰어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우는 동생을 아랑곳 않고 공상에 빠져들었다. 아빠와 함께 보았던 레슬링 장면을 생각하며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기도 하고,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멋진 망토를 두르고 팔자걸음을 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몸을 굽혔다. 다리 밑에서 누군가 안간힘을 쓰며 기어오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하천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고, 그 중 힘깨나 쓴다는 녀석 대여섯이 다리 밑의 웅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녀석 하나가 발밑에서, 곧 지우의 발을 잡아끌기라도 할 것처럼 속도를 내고 있었다. 지우는 커다란 딱정벌레가 웅벽에 붙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녀석의 빠른 몸놀림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는,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빠르게 헤엄쳐오는 것이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 지우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악마였다.

‘녀석의 한 손을 웅벽에서 잠깐 떼어낸 뒤에 다시 잡아준다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녀석의 놀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큰 쾌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웅벽 밑으로 손을 뻗어 녀석의 한 손을 잡았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일렁이는 눈동자, 위태롭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지우에게 애원하는 듯했다. 지우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이제 잡은 손을 다시 웅벽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재, 말하는 것 좀 봐라! 재네 엄마랑 말소리가 똑같다! 식인종 가족…….’

지우 가족을 식인종 가족이라고 놀려대였던 그 녀석이었다. 지우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훗날의 복수를 다짐했는데, 하필이면 그 녀석이었다. 이런 식의 치졸한 복수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 지우가 녀석의 손을 다시 옹벽에 붙여주려고 하는 찰나, 녀석은 자신의 손을 빼내더니 곧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비명소리가 들렸고,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모여드는 듯했다. 지우의 다리가 종잇장처럼 나풀거리더니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녀석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뛰면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녀석을 잡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지만 이미 녀석은 거기에 없었다.

이따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쩐지 어눌한 엄마의 말투가 마음에 걸려 어딘가로 숨고 싶은 때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우 가족이 당신들과는 다른 계급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듯했다. 이마에 박힌 주홍글씨처럼, 엄마가 말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부끄러웠다. 창피했다. 그런데 녀석은 그런 엄마의 목소리가 지우의 것과 같다고 했다.

먼발치에 있던 동생이 한달음에 뛰어왔다.

“누가 떨어졌나 봐!”

동생은 옹벽 밑을 향해 기웃댔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갇웃하며 지우를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다.

“형……왜……그래?”

일단 자리를 피해야 했다. 이렇게 있다가 꿈쩍없이 범인으로 몰려 경찰서로 가야할 지 몰랐다. 그때 가서 녀석을 잡아줄 셈이었다고 말한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다. 워낙 어른들은 지우가 하는 말을 바른 소리로 듣지 않았다. 물론 지우가 때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거짓보다 진실을 말한 적이 더 많았고, 어른들이 자꾸 믿지 않으니까 으레 그러려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우는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바람처럼 가벼워지고 싶었다. 치졸한 복수 따위를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지우가 생각했던 복수는 훗날 훌륭한 어른이 되어 보란 듯이 녀석을 눌러주는 것이었다.

‘하필이면 그 녀석이었을 게 뭐람!’

처음부터 위험한 장난이었다. 마음속에 있던 악마를 그렇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었다. 위험한 장난으로 유혹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마에게서 빠져나와야 했다. 지우는 세찬 바람을 등지고 숨이 턱까지 닿도록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느새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으로 감겨왔다.

부엌문을 열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뿔박질하던 가슴을 누군가 어루만져주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이 엄마였으면, 부엌의 열기가 지우의 가슴을 데워주는 게 아니라 엄마의 속삭임, 엄마의 자상한 말이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의 말은 늘 어딘가가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 지우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다친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은 엄마에게 없었다.

엄마가 말도 없이 손을 내미는 바람에, 지우는 당황하고 말았다.

아, 마땅히 손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두부를 놓고 왔다니! 지우는 안절부절못하고 어느새 울상이 되었다. 어쩌면 그 두부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엄마…….”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마는 지우보다 더 당황해 하며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할 게 뻔했다. 엄마, 라고 부른 뒤 한참 동안이나 뜰을 들인 뒤에 지우는 말을 이었다.

“된장찌개에는……꼭 두부를 넣어야 되는 거야?”

평소에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핀잔을 주었을 엄마가 어떤 일인지 웃기만 했다. 정 그렇게 궁금하면 아빠한테 다시 물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니 엄마는 된장찌개 같은 걸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는 외국인이니까. 아니, 한국사람인 엄마를 다른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다. 할아버지였던 지우아빠가 베트남이란 나라에 가서 데리고 온 아가씨가 엄마라고 했다. 덕분에 지우에겐 형이 하나 있었다. 지우와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지만 어쨌든 가족이었다. 그런데 그 형은 지우를 무척이나 싫어했다. 그리고 그 싫은 이유라는 것이 고작 ‘이유 없음’이었다. 형이 지우를 싫어하는 것만큼 지우도 형을 싫어했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형이 좋아지고 있었다.

“엄마, 두부 가져왔다!”

동생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웠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보니 동생을 생각 못했다. 동생은 지우가 놓고 온 두부를 챙겨온 모양이었다.

완벽한 범죄란 없는 법! 지우는 동생이 자신을 보지 않았을까 하

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지우는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너, 아까 뭐 본 거 있니?”

“응? 뭘?”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지우의 얼굴을 멍뚱멍뚱 올려다 보았다.

“아휴……. 아니야, 아무것도……. 혹시라도 니가 본 게 있다고 해도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우리 가족 모두 끝장이야.”

지우는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저금통을 꺼냈다. 꽤 묵직했다. 그동안 모아왔던 거스름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지우는 그걸 동생에게 말없이 건넸다. 동생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걸 받아서 지우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바꿔 썼다. 지우가 몇 년 동안이나 모아온 돈이었다. 저금통이 가득 차면 비행기를 타고 엄마 고향으로 가볼 생각이었다. 엄마의 소원은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는 것이었다. 지우는 누구보다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군것질을 좋아하는 동생의 손으로 넘어갔으니,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밥상에 앉았다. 그러나 마음은 마치 단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듯 쿵닥쿵닥 뛰다가, 어느 순간 한없이 우울해지곤 하는 것이었다.

‘내 마음에는 천사도 있고 장난꾸러기 욕심쟁이 악마들도 있다. 천사보다 악마가 훨씬 많다…….’

지우는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일어섰다. 그런 지우의 모습을 아까부터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 동생이었다. 지우는 마당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쌀쌀한 바람이 소매 끝을 휘감았다. 까

닭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 지우 옆에 동생이 앉았다. 어디선가 다급하게 사이렌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몸을 움직이려다가 다시 앉았다.

“형, 우리 불구경하러 갈까? 어디 불났나 봐!”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사이렌소리를 들으며 순찰차를 생각했다. 금방이라도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칠 것 같았다. 녀석을 떨어뜨린 죄!

하지만 동생의 생각이 맞았다. 다행히 경찰은 오지 않았다. 평소 대로라면 날쌔게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뛰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보다 어디에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 싶었다. 그렇게 숨을 돌리고 마음을 다독이고 싶었다.

동네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다. 동생은 불구경을 못해 아쉽다는 듯이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나 형이 왜 이러는지 알아. 아까, 그 아이……형이 밀었지?”

“허, 말도 안 된다! 내가 왜? 난 그냥……개네들 하는 거 지켜봤을 뿐이야!”

그저 한손을 떼어냈을 뿐인데, 잠깐 놀라게 해주고 다시 잡아주려고 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다.

“형, 내가 가서 경찰이 있는지 보고 올까?”

지우는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잡아끌었다. 형이 달콤한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지우의 곁을 지나쳐갔다.

고등학교 2학년인 형은 그 무렵 연애에 빠져있었다. 상대는 자기보다 한 살 아래인 여자친구였다. 물론 이런 사실은 지우가 형의 일기장을 몰래 훑쳐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지우는 어떤 만화책

보다도 형의 일기장이 재밌었다. 지우가 초등학교 이 학년 때부터 훑쳐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형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건 순전히 지우가 입단속을 잘했기 때문이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어머니 동생의 귀에 흘러들어간다면 형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지우가 알고 있는 정황에 따르면, 형이 훌쩍 빠져있는 여자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다. 엄마 없이 동생과 할머니와 살고 있고, 공부는 못하지만 얼굴은 꽤 예쁜 애라고 쓰여 있었다.

“형! 어디가?”

동생이 형을 가로막고 물었다. 형은 흘끗 지우와 동생을 바라보았다.

“데이트!”

아빠가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이 자숙아, 시험공부는 안 하나?”

형은 아랑곳없다는 듯 유유히 걸어가면서 한손을 들어올렸다. 아빠에게 괜찮다는 인사로 하는 것도 같았고, 지우와 동생에게 잘 놀고 있으라고 하는 몸짓인 것도 같았다.

그날 밤, 형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 내내 문 앞을 서성였다. 지우가 덩달아 몸을 뒤척이는 동안 도둑 고양이들은 누군가의 울음인 듯 구슬픈 소리를 흘렸다.

지우가 눈을 떴을 때는 해가 방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밤새 뒤척이다 잠이 들어서인지 늦잠을 잔 모양이었다. 지우는 화들짝 일어나서 가방을 챙겨 들었다. 방 한구석에는 밥상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공장으로 일을 나간 뒤였다.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햇볕이 머리 위로 숨 막힐 듯이 내리
쬘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녀석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녀석이 학
교에 오긴 했을까. 지우는 녀석의 반인 5반 앞에서 일부러 더욱 천
천히 걸었다. 녀석의 목소리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
이었다. 녀석이 평소와 다른 모습 보인다면, 그때는 녀석의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앞으로 어떤 놀림이나 따돌림을 주더라도
미워하지 않으리라. 제발, 아무 일 없이 교실에만 있어준다면…….

여주는 평소처럼 동생과 함께 공사장으로 통하는 계단 끝에 앉아
있었다. 동생이 좋아하는 공사장이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동생은
학교가 파한 뒤에는 늘 공사장 주변을 얼쩡거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단 한 번
도 제대로 된 자동차를 가져보지 못했다. 아빠와 엄마가 처음에는
여주와 동생을 고아원에 맡겼다가 할머니 댁에 다시 맡기게 되었는데,
두 아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서로’ 뿐이었다. 동생
이 있다는 것, 누나가 있다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가질 수 있
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동생을 위한 삶을 살리라.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누나가
아낌없이 주리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었으니까, 이 년만 더 지내면 동생이 원
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나 동생을 학교에 먼저 데려다주고 자기 학교로 향하는 여주
의 뒤를, 매번 따라오는 남학생이 있었다. 교복바지가 스타킹처럼
딱 달라붙은 데다 머리모양도 제비처럼 보이는 날라리였다. 여주는

그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런데도 그는 온갖 방법으로 여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애썼다. 어느 때는 여주의 신발 안에 편지를 넣은 적도 있었고, 동생에게 자동차를 주면서 편지 심부름을 시킨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읽지도 않고 버렸던 편지들이, 점차 여주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동이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여주의 마음으로 두박두박 걸어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다. 여주는 가족이 생긴 것 같은 안정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도 그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는 자주 약속 시간에 늦었다. 그건 여주에 대한 그의 마음이 퇴색해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생활이 지각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학교에 지각하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에 삼십 분 정도는 늘 늦고, 역시 여주와 만나기로 하고도 늘 늦었다. 다행히 여주는 기다리는 데에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였다. 아빠와 엄마를 처음 기다리기 시작했던 고아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기다림을 불편해했다면 아마도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삶을 견디기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다행히 여주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았다. 아침 해가 뜰 때의 찬란한 아름다움, 나뭇잎이 청초하게 고개를 들며 존재를 뽐내고, 신선한 바람이 가슴을 쓸어내릴 때의 감동.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 여주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해야만 삶이 공평하다는 자신의 생각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광경을 눈치채지 못하는 채 살고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여주는 가진 것이 없었고, 대신 자연을 통해 가슴 벅찬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 수 있었다. 게다가, 철이 없는 게 조금 흠이긴 했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피붙이……동생이 있었다.

땅거미가 꺼지는 것으로 보아 곧 그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동생은 자꾸만 계단 밑으로 내려가자고 여주를 졸랐다. 웅벽에서 떨어져 이마와 팔을 다쳤는데도 동생은 다시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었다.

계단 밑의 평지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마을 전체가 공사장이었다. 가끔 동생의 성화에 못 이겨 계단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강철모를 눌러 쓴 사람들이 여주와 동생을 막아서곤 했다. 아이들에게는 공사장 근처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따금 여주와 동생은 공사장 인근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곤 했다. 희뿌연 연기를 들이마시며 레미콘과 덤프트럭을 바라보는 동생의 얼굴은 행복에 젖어 있었다. 노을이 지고 땅거미가 꺼지는 순간에도 좀처럼 계단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았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시간인데, 동생에게도 엄마가 있었으면 어떨을까? 여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해두고 동생의 손을 잡았다면 어떨을까. 동생은 아마 투정부리듯이 입술을 내밀다가도 곧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잡았겠지.

여주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동생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세상에! 스스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는데, 어찌자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주는 자책

했다. 떠나버린 엄마를 어찌자고 생각해냈을까. 여주는 두리번두리번 동생을 찾기 시작했다. 어찌면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여주는 숨바꼭질이라면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이제 그만 들어가 볼 테니까 혼자 계속 그렇게 숨어있으라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여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소리도 여주에게로 오는 듯이 사나운 소리를 내며 가까워졌다.

들것에 실린 조그만 것이 보였다. 그 조그만 것 위에 덮여 있던 흰색 천이 순식간에 붉게 물드는 걸 보면서 여주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저게 동생은 아니겠지. 조금 전까지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동생이 아니겠지……. 여주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 내 동생이 아닐까요?’

여주는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묻고 있었다. 사람들이 측은한 눈길로 여주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여주는 들것이 실려진 구급차에 함께 올라탈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 피투성이가 동생이라니……. 아니다, 이대로 서서 동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동생을 실은 구급차가 떠나고 경찰도 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날 때까지 동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 왜 그랬을까……왜 잠깐 엄마 생각을 하고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고……그러는 동안 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그토록 좋아하는 덤프트럭에……. 여주는 가슴을 치며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

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주었다. 익숙한 화장품 냄새, 그였다. 오늘 만나기로 했던, 동생과 함께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였다.

“왜 이제야……. 아, 조금만 일찍 오지…….”

조금만 일찍 오지, 조금만……. 여주는 그의 가슴팍을 내리치며 울부짖듯 말했다.

“내 동생……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입술을 달싹거리며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누군가에게로 향하는 지 알 수 없는 화가 그녀의 가슴속을 꽉 메우고는 세상을 모두 삼키고 그녀를 가뒀다. 모든 것은 이대로 끝이 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내야 할 이유, 그녀에게 끊임없이 살아낼 용기를 주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던 동생이 이젠 없었다.

“나도 같이 갈래, 나도 그만 살래…….”

여주는 계단 밑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그가 간신히 그녀의 몸을 잡아 자신의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그도 울고 있었다. 둘의 눈물이 가로등 밑을 축축하게 만들었다. 지렁이 한 마리가 습한 땅 위로 몸을 비틀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굴빛 가로등이 그들의 몸을 껴안고 함께 몸부림치고 있었다.

녀석이 죽었다고 했다. 경찰차가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지레 겁을 먹고 이내 수갑이 채워질 두 손을 책상 위에 놓은 채 눈을 감았다. 도망쳐 봤자, 결국 스스로의 잘못을 더욱 크게 부각시킬 것이 뻔했다. 최대한 사실대로 말하고 소년원이라도 가면…….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우는 이상

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동안 마음을 졸이던 것에 비하면 차라리 이 순간이 천국 같았다. 지우의 속을 모르는 친구들이 짓궂게 지우를 놀리기 시작했다.

“식인종! 오늘은 또 뭘 먹으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

“이번엔 사람고기 먹는 거 아냐? ㅎㅎㅎ…….”

지우는 입술을 불끈 깨물었다. 어차피 소년원에 가게 되면 다시 보지 않아도 될 터였다. 교실의 미닫이문이 들들들, 소리를 내며 열렸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다. 동생이었다.

“형, 잠깐 나 좀 봐.”

동생은 지우가 걱정이 되어서 기꺼이 형이 있는 반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말은 안 했지만, 동생 역시 지우가 한 행동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동생의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했다. 동생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우가 바라는 대로 모르는 척 했을 뿐이었다.

“걱정하지 마, 형……. 그때 내가 분명히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 약만 바르면 금방 나을 거라고 했는데…….”

아,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소문은 역시 소문에 지나지 않을 터, 녀석이 고작 웅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할지 몰랐다. 그런데 녀석이 그 뒤로 이틀이나 결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생각해 보니 다리가 있기 전에는 웅벽에서 하천으로 뛰어내리는 어른들이 종종 보이기도 했다. 물론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돌 같은 것이 하나 있기

는 했지만, 어쨌든 하천의 용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게다.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되뇌며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는 어느새 담임선생님이 종례 준비를 하고 계셨다. 지우가 자리에 앉자 선생님은 한참이나 머뭇거린 후에 어렵게 말을 시작했다.

“5반 최동주가 이틀 전에 숨을 거뒀다. 곧 동주를 실은 차가 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친구를 맞이하자.”

아, 아무 일 아니라고 했는데……그게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곧 경찰이 들이닥칠 테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게 되겠지. 엄마의 고향을 가보겠다는 것도,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겠다는 다짐도 모두 부질없어졌다. 지우의 머릿속이 까마득해지더니 끝이어서 함성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지우를 선두로 일시에 반 아이들이 함께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도 울고 있었다. 슬픔은 이상하게도 각각 다른 생각으로 분열되어 있던 교실 안의 아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속에서 슬픔은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각각의 모난 가슴들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선생님,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제 마음속에 있던 악마가…….”

지우는 별떡 일어서서 읊조리듯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마음은 선생님이 충분히 안다. 하지만 너희들의 탓이 아니

야……어른들의 탓이지. 미안하다……. 동주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사고를 당했어. 너희들 모두 공사장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 한다.”

아, 일순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거두어지고 여우비 끝의 햇살처럼 그렇게 반짝 눈동자가 빛났다.

“아, 다행이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하지만 교실 안을 가득 메운 울음소리 덕분에 지우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또 다시 깨달았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수많은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며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것을. 지우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처럼 절망에 가까운 울음은 아니었다.

5반 아이들이 동주를 실은 버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운동장으로 뛰쳐나갔다. 동주의 가는 길을 배웅해야 할 것 같았다.

“미안하다……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동주의 눈동자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동주를 따르던 지우는 쓰러지듯 운동장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때였다. 차가 멈추더니 누군가 차에서 내렸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버스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었다. 낮익은 신발이 지우의 곁으로 걸어왔다.

“지우야, 일어나. 같이 타고 가자.”

형이었다. 둘은 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형이 왜 동주가 있는 버스에서 내린 건지, 학교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다. 형이

이틀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아 가족은 형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아빠는 엄마가 형을 살갑게 대하지 못해 형이 집을 나갔고 했다. 형을 만나면 꼭 그걸 물어볼 셈이었다. 형은 정말 엄마와 동생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하는지…….

그러나 막상 형을 만나자 지우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형이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의 옆에 앉은 동주를 닮은 얼굴이 바로……사랑한다, 사랑한다, 형이 쓴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 여자라는 것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동주의 누나 곁에 형이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있어서……. 지우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가늘게 지켜뚫다. 내일부터는 동주 누나를 형과 함께 지켜줄 셈이었다. 영원히 동주를 잊지 않을 생각이었다.

장지로 향하는 길에 잠자리 한 마리가 상여에 앉았다. 지우는 그 걸 손가락 끝으로 살짝 잡았다가 다시 날려주었다. 벚꽃 향기 나는 오솔길과 어젯밤 내린 비가 채 마르지 않는 질퍽한 흙탕길을 지났다. 풀꽃 향기가 배인 진흙 위에 웅송크리고 앉았다.

황토 색깔 흙 위에 손가락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젖은 흙이 손가락 끝을 무디게 했다. 악마들이 여기 붙어 있었나 싶게 무겁게 움직였다.

악마가 도망쳤다

지우는 자기가 쓴 글씨를 내려다보았다. 비뚤비뚤 쓴 글씨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두 발로 쿵쿵쿵쿵 악마들을 밟아주었다. 가슴

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악마들이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을 탈출하는 모양이었다. 후우~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풀냄새가 악마들이 비운 가슴 속을 채워주었다.

바람이 이마에 맺혀있던 땀방울을 시나브로 날려주었다. 그리곤 겨드랑이 사이를 부드럽게 간질였다.

어제와 달리 마음이 조금해지고 우울감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그는 파리 탓으로 돌렸다. 문을 열자마자 파리 두어 마리가 급습하더니, 어느새 대여섯 마리가 가게 안으로 날아들었다. 파리는 그의 귓가를 맴돌며 웅웅거렸다.

그는 파리를 향해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문득 자신이 상대하는 손님이란 존재가 파리라는 생각에 허탈한 웃음을 허공에 날렸다. 가게를 오픈한 뒤부터 어제까지 장마가 이어졌고, 오늘 반짝 해가 떴지만 그의 소박한 기대는 파리 공세로 인해 무참히 짓밟혔다.

아내의 전화. 그녀는 큰아이 유치원을 영어유치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하루에 이백 마리 치킨을 튀기는 아빠라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업료라고 했다. 그의 산란한 머리로는 유치원 한 달 수업료에 해당하는 치킨 마리수를 계산하기도 벅찼다. 무심하게 켜놓은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의 쇼핑호스트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에 배

경음처럼 들려왔다. 한순간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곧 안쓰러움과 서운함 따위가 복합적으로 밀려왔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스스로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극성스러운 파리 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방충망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골목 끝의 허름한 철물점을 찾아냈을 때, 가격이 저렴한 중고품 방충망이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쪽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 모양새가 낡고 방충망을 둘러싼 가장자리 쇠줄거미가 군데 군데 녹이 슬긴 했지만, 값이 부담스럽지 않아 좋았다. 가져간 줄자로 재어보니 신통하게도 자기 가게 문 사이즈와 꼭 맞았다. 안성맞춤이라고나 할까.

철물점 주인은 그가 황재한 것이나 같다며, 불룩한 배에 방충망을 밀착시켜 가게 앞까지 운반해다 주었다. 그러더니 골목 안에도 치킨가게가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소리를 함부로 지껄었다.

“골목 안이 아니라, 골목 초입이지요.”

스스로가 한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철물점 주인의 경망을 은근히 나무랐다. 하지만 술에 얼큰히 취한 철물점 주인은 여전히 그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말했다.

“골목 안에 있는데 출입문에 방충망까지 설치하면 누가 여길 들어오려 하겠소?”

쌍꺼풀이 짙은데다 눈동자가 희번덕거리는 양이 마치 생선가게

에 진열된 동태 눈알을 떠오르게 했다. 진한 알코올 냄새가 온몸에서 배어났다.

“골목 초입이라니까요.”

그는 미간을 좁히며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마치 집요한 더위에 맞서는 듯이 인내심을 갖고 말했다.

“파리가 들끓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면, 일단 청결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쇠줄거미가 군데군데 녹이 슨 데다 검은 먼지가 손에 시커멓게 묻어나는 방충망을 앞에 둔 채, 그는 청결이라는 말에 의식적으로 잔뜩 힘을 주었다.

“주인양반이 이렇게 무뚝뚝하고 정이 없이 말하니까 손님이 없는 거 아니오? 좀 유쾌한 맛이 있어야 사람이 붙지. 나 원…….”

그는 하마터면 풍보 알코올중독자의 먹살을 잡을 뻔했다. 다행히 상대는 목이 늘어난 혈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그가 마땅히 잡을 만한 곳이 없기도 했다. 옷에 가려지지 않은 목을 잡는 순간, 그는 살인이라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예감에 제풀로 소름이 돋았다. 그의 안에 내재된 수많은 우울함과 소외감, 분노 따위가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를 일이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그러저럭 살아내고 있기는 하나.

철물점 주인이 전혀 뜻밖의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웃음치료라고 들어봤소? 길 건너 버스정류소 앞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 한 번 가 봐요. 요즘은 사람들이 유쾌한 곳을 찾아간단지 않소?”

“그런 치료라면 사장님이 먼저 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는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고 투박하게 말했다.

“나야 소주치료를 해야지, 웃음치료가 가당키나 하나!”

철물점 주인은 키득거리며 바지 주머니를 더듬더니 소주 팩을 꺼냈다.

“당신, 거울을 좀 봐요. 지금 자기 표정이 어떤지!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방탄조끼가 바로 웃음 아니겠소?”

철물점 주인은 알코올중독자답게 복숭아처럼 빨간 콧등을 실룩이며 해죽해죽 웃었다.

그는 화를 내려고 하다가, 상대의 별건 콧등이 실룩거리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픽 웃고 말았다.

“저 봐요!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 그래야 손님이 붙는단니까.”

물건 값을 받은 철물점 주인은 비틀비틀 골목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술에 흠뻑 취해서라기보다는, 흐느적거리며 걷는 게 습관이 된 사람 같았다.

그는 더러운 방충망을 신문지로 쓱쓱 닦아내면서 유머와 유쾌함, 웃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유쾌한 사람의 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는 당연지사였다. 어쩌면 똥보 알코올중독자의 말처럼,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이지 유머와 웃음인지도 몰랐다.

‘치료’라는 말을 되새김질해보았다. 아픈 데가 있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성인이 된 이래로 병원 문턱을 밟은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치료소라니. 그는 헛웃음을 날렸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출입구 옆에 붙은 각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불현듯 눈에 들어왔다.

‘거울을 좀 봐요. 지금 자기 표정이 어떤지!’

마치 풍보 알콜중독자가 그의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거울 속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색이 어두웠고, 탈모가 진행 중인 이마에는 가로 주름이 희미하게 자리를 잡았다. 거울을 보며 가볍게 웃음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내 얼굴은 어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얼마간 망설이다, 가게 문을 열어 둔 채 큰길로 나갔다. 길 양 옆으로 수많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세련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웃음치료, 그는 ‘웃음’이라는 무미건조한 낱말을 가만히 되뇌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층에서 내렸을 때,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화사한 실내를 엿볼 수 있었다. 마치 그가 속해 있는 세계와는 다른 곳 같았다. 발길을 돌리려고 했을 때, 누군가 그의 등에 대고 다정하게 말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웃음치료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흥교회 목사처럼 복음을 전도하듯 과장된 목소리로 말하는 강사와 열혈신도들 같은 노인들의 모습에 정나미가 떨어질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간신히 붙들고 비아냥거리듯 강사에게 물었다.

“웃음치료소에는 왜 노인들뿐인 겁니까?”

“그건 어르신들이야말로 웃음의 가치를 깨우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오신 긴 인생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분들은 넘치는 시간과 외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그저 시간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필요할 뿐이지 않습니다. 값이 싸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리고 치료라고 한다면 웬만한 비용은 자식들이 감수할 테고요.’

한 시간 가까이 웃음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도 모르게 볼멘소리를 토하고 말았다.

“최소한 닭 한 마리 값어치도 들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지껄이면서 굳이 이만한 돈을 받아야겠소?”

동전까지 말끔히 털어낸 그의 지갑은 허영게 벌어진 입을 닫지도 못한 채 바지 뒷주머니 속으로 감춰졌다. 풍보중독자의 말에 속아 웃음치료소를 찾은 것은 주제에 맞지 않는 사치였다. 방충망 값의 세 배나 되는 돈을 헛되이 날리다니! 그의 낮은 붉으락푸르락하다가 울상으로 변해 웃음치료소를 나왔다.

“장사가 그렇게 잘된다면서 왜 돈은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장사 시작한 지가 언젠데 현금이 왜 하나도 안 보이냐구! 나, 임신부야……먹고 싶은 것도 많고……암튼 그렇다구!”

아내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 따위가 뒤섞여 있었다. 그가 전화를 받지 않고 녹음된 메시지를 통해 아내의 목소리를 확인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홀가분하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털어놓고, 아내로부터 위로 받고 싶어졌다. 이것도 웃음치료 탓인가. 하지만 만약 그랬다가는 충격으로 조산이라도 하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아내는 남들처럼 살고 싶어 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었다.

두꺼운 먼지로 찌든 방충망을 닦아내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일부러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웃음치료사보다는 자기가 훨씬 양심
적이고 떳떳하다고 자위하면서. 그것은 사실이였다. 남은 자금을
탈탈 털어 투자해 닭을 샀고, 한여름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땀을 흘
리며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은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 행복해지는 겁니다.’

웃음치료사의 식상한 대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살다 보면 때로
는 그런 식상하고 판에 박힌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법.

방충망을 손질해서 문에다 설치를 끝낸 만족감까지 보태어져 콧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
른 걸레에다 손을 쓱쓱 두어 차례 민 뒤에 민첩하게 통화버튼을 눌
렀다.

주문전화였다. 대응하는 그의 목소리가 기쁨에 차서 미세하게 떨
렸다. 다섯 마리였다. 그가 지금까지 튀겨낸 닭보다 더 많았다. 하
지만 주소를 받아쓰려던 찰라, 그는 멈칫했다. 헛돈을 날리고 화를
내며 박차고나왔던 그 웃음치료소였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그의 감
정을 읽었는지 ‘배달이 되는 거 맞습니까?’하고 재차 물었다. 상대
목소리 너머에서 과장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그의
모든 행동을 거울처럼 훤히 읽고 비웃는 소리처럼 여겨졌다. 프랜
차이즈도 없이 가게를 차리고, 단가가 비싼 닭을 사서 냉장고를 가
득 채운 채, 두 마리의 치킨만을 튀겨낸 이 주 간의 시간을, 아니,
마흔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서
성거리는 그의 인생 전체를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결국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전화를 끊고 말았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망설였다. 비굴한 웃음을 얼굴에 칠하고 그놈의 웃음치료소 안으로 과연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닭 다섯 마리도 그렇지만, 웃음치료소 안에 있던 사람들 십여 명을 단골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어느새 그의 마음은 간절해졌다. 그렇지만...결국 자존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웃음치료소라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결국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내, 결국에는 더 큰 수렁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뭘가. 자기 바지주머니 안에, 입을 벌린 채 텅 비어있는 지갑을 떠올렸다. 그는 결국, 치킨을 팔지 않겠다는 신념을 다지며 다시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는 다른 사람이었다.

“여보……나, 지금 병원이야. 양수가 터졌어. 빨리 와 줘! 카드도 정지된 거 알지? 돈 좀 가져와요. 지금 당장!”

그의 눈가가 축축하게 젖기 시작했다. 그는 기름을 불에 올리고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닭 다섯 마리를 토막 내고 튀김옷을 입히는 동안 냄새를 맡고 모여든 파리 떼가 방충망 저쪽에서 성화를 대었다. 그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파리들의 몸놀림을 물끄러미 응시하기도 했다. 어쩌면 제 모습인 양 여겨지기도 해, 얼마간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면서.

다섯 마리 닭의 포장을 마쳐 들고 웃음치료소를 향해 걷는 동안 해는 뜨거운 별살을 그의 등허리 위로 사정없이 내려쬘었다. 땀에 젖은 셔츠는 앙상한 그의 몸피를 훤히 내비치고 있었다. 줄기차게 따라온 파리가 투명한 날개를 찬란하게 펼치며 그의 목과 머리카락 주위를 곡예하듯 날았다.

그는 웃음치료소에서 배운 대로 어깨를 펴고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든 채 입술을 귀까지 끌어당기려고 애를 썼다. 아내에게 가려면 최대한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뜨거운 땅바닥이 그의 발을 흡착시킨 것처럼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방충망 사이로 몸을 비비며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 애쓰던 파리들이 떠올랐다. 파리인간, 파리…… 그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자비심을 잃은 태양이 휘청거리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 | 청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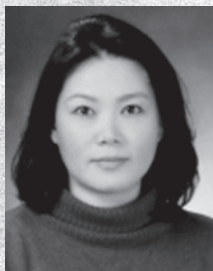
새벽 마실 왕벚꽃나무 왕밤나무 숲을 이루고 도토리 지천에 깔리고
시냇물 졸기졸기 흘러 바위틈을 살금살금 다람쥐 뛰놀고 아버지
웃음소리 할랑이는 나뭇잎 새로 퍼져간다 흙이 방귀 끼고 산짐승이
오줌 누고 지린내에 코를 벌름이면 약숫물 떠서 손에 들고 마음은
저만치 아버지 계신 곳 비단길 걷는다

시 호박꽃 목소리

어머니 목소리는 띄약별 아래
시든 호박꽃
움켜쥐면 손바닥을 노랗게 물들이고
허물어져버릴
호박 속으로 녹아들게 기다리는
슬픈 꽃

어머니 목소리는 어긋난 인연의
축 쳐진 등허리
빈 손 내밀고 애답픈 웃음 흘리다
지나가버린
어두운 거리에서 키 커진
그림자

어머니 목소리는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그리워서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호박꽃, 옛 애인



서동

이운실 편

소설 곶의 슬픈 얼굴

시 봄 초대장

낡은 트럭들이 줄지어 국도를 내달리다 이내 번잡한 지방도시로 진입했다. 트럭이 멈춰 선 곳은 지은 지 꽤 오래되어 보이는 체육관 앞이었다.

우리에 갇혀있던 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 보았다. 도시의 탁한 공기는 다소 매캐하였으나, 하늘만큼은 청명한 봄의 그것답게 맑고, 햇살은 엄마 품처럼 따스했다. 어디선가 열은 화향이 났고, 한 무리의 새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봄이 왔구나……!’

봄기운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의 문이 열리며 조련사의 채찍 소리가 들려왔다.

“뭘 꾸물대고 있는 거야! 어서 움직이라고!”

곰은 그제야 우리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나왔다. 움직일 때마다

발에 묶여있는 족쇄의 쇠소리가 오늘의 고된 일과의 시작을 알리듯 울려 퍼졌다. 곰을 비롯한 원숭이와 사자들이 조련사의 명령에 의해 체육관 실내로 이동되었다. 중앙에 공연무대가 설치 중이고, 그 뒤 한쪽에는 오늘 서커스 공연에 투입될 동물들이 족쇄를 찬 채 대기하고 있었다. 사자가 걱정스런 눈으로 곰에게 물었다.

“지난번에 조련사한테 맞은 곳은 어때? 그때 꽤 많이 맞았잖아.”

곰은 누워서 미동도 없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움직일 때마다 등짝이 욕신거리긴 하지만…….”

“아직 낫지 않은 줄 뻔히 알면서 또 일을 시키다니, 악마의 탈을 쓴 놈 같으니!”

사자는 한쪽에서 여자단원에게 연신 수작을 걸며 키득거리고 있는 조련사를 쳐다보다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앞으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맞을 일 없잖아.”

곰은 사자의 말에 별 대꾸 없이 먼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였다. 어린이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꽤 큰 규모의 서커스 공연이 열렸다. 서커스 단장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관객이 몰렸다. 단장에게는 그야말로 대목중의 대목이었다. 조련사는 관객의 반응을 살피며 공연을 이어갔다.

곰은 평소와 같이 저글링을 가뿐히 해냈고, 아이들은 박수를 쳐 대며 환호했다. 뒤이어 조련사가 한쪽에 놓여있던 자전거를 앞으로 가져와 곰 앞에 놓았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숨죽여 바라보았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곰은 자전거에 올라 자세를 잡더니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두 발로 중심을 잡고 저글링 네 개를 돌리는 광경은 아슬아슬하면서도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돌리던 저글링을 관객석에 던졌다. 이것이 서커스의 일환인지 어쩐지 몰라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때, 곰은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몰아 출입구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돌발적인 상황에 모든 조련사들은 채찍질을 날리며 곰을 쫓았다. 이내 채찍 하나가 곰의 등짝을 정확히 가격했고, 중심을 잃은 채 넘어진 곰에게는 마취 화살이 날라와 꽂혔다.

“크헉!”

곰은 다시 일어나서 뛰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음을 알았다. 눈의 초점은 희미해지고, 몸부림은 점점 잦아들어갔다.

그날 밤, 곰은 다른 동물들이 보는 가운데 살갗이 벗겨지도록 채찍질을 당했고, 며칠간 끼니는커녕 물 한모금도 주어지지 않았다.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을 때, 곰의 우리는 예전보다 작아졌고, 더 무겁고 커다란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 이후로도 한참동안 먹이는 물론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없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래, 이대로 며칠만 더 버티면 난 죽을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곰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팔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물과 먹이를 거부하자, 조련사들이 긴급히 수액을 투여한 것이다. 비록 사고를 친 놈일지언정 이 곰이 서커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고, 그것은 당연히 수익과 직결되었

기 때문에, 행여나 꿈이 죽게 되더라도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조련사에게 떠넘겨질 것이었다.

‘아, 나는 죽고 싶어도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하는 신세구나…….’

그렇게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지만, 꿈은 여전히 슬픈 얼굴이었다.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오는 원숭이들이 꿈을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번에 사고 쳐서 죽도록 맞은 놈이구나? 쫓쫓쫓, 누가 미련한 꿈 아니랄까봐. 킁킁킁.”

“오늘은 사고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괜히 우리한테까지 불통 튀게 하지 말고.”

옆에 있던 사자가 발끈했다.

“니들 조용히 못해?”

그래도 원숭이들은 전혀 겁먹지 않았다.

“너도 그 곰탱이랑 친하게 지내더니 물들었냐? 킁킁킁.”

“야! 가서 간식이나 먹자!”

원숭이들이 우르르 지나가버리자 사자가 말했다.

“재네들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

“틀린 말도 아닌데 뭐. 사자야, 넌 행복하니?”

뜻밖의 질문에 사자는 당황스러웠다.

“행복하냐고? 글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숲에 살았

던 꿈을 가끔씩 꾸곤 해. 꿈이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깨기가 싫을 정도지. 아마 난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

회상에 잠긴 표정으로 곰이 말했다.

“그렇구나. 난 그런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행복이란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

잠시 후, 체육관은 관객들의 입장으로 분주해졌고, 곧바로 서커스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는 원숭이들의 공중그네 쇼였다. 이 서커스단의 베테랑격인 그들의 노련한 쇼에 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입이 떡 벌어졌다. 다음은 사자들의 불 쇼가 이어졌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원형의 틀을 덩치 큰 날렵하게 통과하는 묘기는 관객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은 곰과 원숭이들의 자전거 타기였다. 곰은 숨을 몇 번 고른 뒤 사자를 흘끔 보고는 무대에 올랐다. 두 발로 타기, 회전하기, 점프하기의 묘기가 이어졌고, 아이들은 귀여움과 신기함에 연신 감탄을 했다.

이어서 원숭이와의 자전거 경주가 시작되었는데, 육중한 곰과는 달리 가벼운 원숭이는 미끄러지듯 앞서 나갔고, 아이들은 저마다 응원을 하느라 공연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허둥지둥 따라잡은 곰이 갑자기 몸을 날려 한주먹에 원숭이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관객석은 놀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당황한 조련사들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했다. 원숭이의 사체는 들것에 옮겨졌고, 곰은 다시 마취화살을 맞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이 사건을 연일 보도하

였고, 서커스 공연단은 해체가 결정되었다. 동물들은 자연방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있었으나, 결국 자연이 아닌 동물원에 기증되었다.

예전의 작은 우리가 아닌 넓은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을 새로 만났지만, 곰은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 봄 초대장

꽃들의 봄 초대장 릴레이가 시작되면
집배원 봄바람의 발에 붙이난다.

부지런한 개나리가 1등
동네 어귀, 가로수 사이사이, 산등성이까지
노란 초대장이 배달된다.
우릴 만나러 와요!

연분홍 벚꽃 눈꽃송이가
내 머리, 어깨, 발등까지
봄바람을 타고 훑날린다.
우리과 함께 걸어요!

주렁주렁 매달린 아카시아꽃이
코끝, 콧속, 머릿속까지
향기 진한 초대장을 분사한다.
우리가 행복한 선물을 나눠줄게요!

해마다 받아온 초대장
해마다 참석 못한 파티장

이제 초대장 안 보내주면 어찌지?



서동

이승환 편

소설 역마차 아가씨

1973년, 여름

수필 구경값

의식의 전환

차가운 새벽공기를 느끼며 기석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회사에 가기 위해 큰 길로 나오면서 이른 아침인데도 서둘러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어느 곳이나 아침시간에는 출근을 하는 사람들과 등산복이나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생각이 들었다.

기석의 친구 중에서 창식은 유난히 술을 좋아한다. 저녁 때 누군가를 만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소주 몇 잔이라도 마셔야 잠을 자는 친구다. 그날도 기석은 창식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이 좀 들어가니 옛날 생각이 났는지 창식이 기석에게 말했다.

“오랜만에 우리 논현동 역마차 한번 가볼까?”

“아직도 윤 사장 거기서 하고 있나?”

“얼마 전에 연락 왔었는데, 왜 놀러 안 오냐고, 네 안부도 묻더

라. 요즘 바쁜 일이 있는데 이 일 끝나면 한번 들른다고 하긴 했는데.”

“장사가 쉽지 않을 거야. 경기가 다 안 좋은 데 거기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닐테고.”

둘은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논현동으로 향했다. 퇴근시간이 지나서인지 차는 어느새 논현동에 도착했다. 먼저 들어간 창식을 반기는 윤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박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정말 누구 굶어 죽는 걸 보시려고 그러시나?”

“미안해, 미안해. 나도 굶어 죽지 않으려다보니까. 하하하.”

“어머! 김 사장님도 같이 오셨군요.”

둘은 윤 사장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으려니 웨이터가 들어와 각종 음료수와 술을 마시는데 필요한 잔이며 얼음들을 놓고 나가자, 창식은 참 멀쩡해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 무슨 사연으로 또는 어떤 루트로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했다.

곧이어 금발로 살짝 물들인 머리를 길게 기른 아가씨를 데리고 윤 사장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수정이라 합니다.”

“처음 보는 아가씨네. 전에 아가씨들은?”

“다른 방에 있어요. 좀 있다 들를거예요.”

“자, 오랜만에 한잔씩들 합시다.”

윤 사장은 창식 곁에 앉아 그 동안의 얘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수정은 자연스럽게 기석의 옆에 앉아 잔이 비면 채워주곤 했다. 기석

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담배를 한 대씩 피웠다.

“김 사장님, 수정이는 순진한 애예요. 괜히 바람 넣지 마세요. 호호, 내가 너무 앞서가나…….”

“윤 사장, 이젠 그럴 열정도 없어.”

“모르는 일이지요, 사람 일은. 누가 아나요?”

‘그 말도 맞는 말이다. 지희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으니까.’

기석과 창식은 윤 사장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

마흔 살을 바라보는 그 해 겨울, 창식과 기석은 을지로에서 맥주를 마신 뒤, 그냥 들어가기가 너무 이르다며 한잔 더 하려고 논현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날의 만남이 기석의 인생을 잠시나마 흔들어 놓을 줄을.

논현동에 도착한 둘은 출출하던 차에 근처에 붕어빵 장사가 보이자 한 봉지씩 사들고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아 붕어빵을 먹고 있으니 윤 사장이 처음 보는 아가씨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름을 지희라고 했다. 기석은 지희를 처음 보는 순간 참 매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옆자리에 앉아 조곤조곤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하는 편이었다. 술을 마시며 가끔씩 노래도 불러가면서 곁에 앉은 지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창식이 윤 사장에게 우리 나가서 넷이 한잔 더 할까 하자, 윤 사장이 지희에게 물었다.

“지희야, 너 괜찮겠니?”

“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러자 윤 사장이 노래를 한 시간만 더 부르고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래를 번갈아 가며 부르고나니 시간은 두시를 향하고 있었다. 네 사람은 나와서 어디로 갈까하고 있었는데, 지희가 여기서 조금 가면 어묵을 맛있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여 다들 좋다며 그리로 갔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창식과 윤 사장은 먼저 간다며 나갔고, 기석과 지희는 앉아서 남은 술과 안주를 먹고 있었다.

“김 부장님은 댁이 어느 쪽이세요?”

지희는 기석을 뻘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그런 모습이 지희의 매력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집은 좀 멀어. 분당 쪽이야.”

“정말 머시군요.”

“지희는 집이 어디지?”

“저는 가게에서 한 정류장 정도예요.”

“가까운 데 살아서 좋겠네. 그나저나 집도 멀고 지금 들어가기도 그렇고, 어디 가서 좀 더 놀다 그냥 회사로 갈까?”

“저는 술을 많이 해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몇 시간 있으면 날이 밝을 테니 싫지 않으시면 날씨도 찬데 저희 집에 가서 계시다가 회사로 가시든지요.”

기석은 술이 거나했지만 적잖이 놀랐다. 윤 사장이야 오래된 사이이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이 아가씨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내심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그냥 가겠다고 하기는 또 싫었다.

“고마워, 하지만 지희 집에 가는 건 오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기로 하고, 우리 술 시킨 거나 마저 마시고 좀 있다 일어나지.”

그 이후 기석은 시간을 일부러 내어 논현동을 찾았다. 아니, 지희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 싶다. 역마차는 지희를 만나는 통로였기에 가끔은 창식과 함께, 때로는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들렀다.

어느덧 기석이 지희를 알게 된지도 반년이 지나갔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지희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괜찮은 아가씨였다. 회사 일에 채이고 사람에 채인 한 남자를 위로해주는 데는 충분한 재주와 매력을 갖고 있었다. 기석은 지희와 함께 있다 보면 세상이 마치 정지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은 기석이 정지된 세상을 더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기석의 집에서는 왜 허구한 날 늦느냐, 웬 출장이 이리 잦느냐하고 아내의 불평이 늘어갔다. 그럴 적마다 기석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느라 적잖이 머리를 써야 했다. 한번은 아내가 당신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는 아니겠지 하는데, 기석은 이 사람이 뭘 알아차렸나하고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생사람 잡지 말라며 큰소리를 냈다. 아내가 당신 정말 수상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날도 기석이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얘기나 더 하자며 역마차에 들렀다. 술이 어느 정도 돌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희가 기석의 얼굴을 쳐다보며 지그시

손을 잡고 머뭇머뭇했다. 기석이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니 지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 곧 일본에 가요. 엄마한테 가기로 했어요.”

“일본……아,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고 했지. 얼마나 있다 올 건데?”

“안 올 거예요.”

기석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숨을 다시 고른 다음 기석이 물었다.

“안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일이 있어요. 그렇게만 아세요.”

그리고 지희는 곧바로 방을 나갔다. 기석은 무엇에 한방 얻어맞은 사람처럼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떻게 술자리를 마감했는지도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온 기억 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기석은 이부자리에 누운 채 가만히 생각했다.

‘아! 이제 그동안 지희와 함께 했던 달콤하고도 위험한 여행을 여기서 끝내야만 한단 말인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던 터였지만 막상 지희를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지희도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마음은 한결 편해졌다. 기석은 의도적으로 술을 덜 마시려 애를 쓰고 그동안 뜸했던 운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기 위해 회사 일에 더욱 몰두하였지만 그럴수록 지희에 대한 기억은 한층 기석을

괴롭혔다.

회사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기석에게 창식이 전화를 했다.

“야, 기석아. 누가 너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하.”

“무슨 소리냐?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전화했으면 용건이나 말해봐.”

“정말이야. 오늘 약속 없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네 회사로 갈게.”

창식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슬슬 풀어내고 있었다

“아까 낮에 역마차 윤 사장 전화 왔었는데……너 지희 기억하지?”

“왜, 또 지희 얘기는 하나? 이제 좀 잠잠해질만하니까.”

“가만히 들어봐. 지희가 일본에서 왔는데 며칠 있다 결혼을 한다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갈 거라고 하는데, 식에 올 사람이 많지 않다고, 나더러 시간되면 와서 축하해달라고 하는데, 참 가보기도 그렇고 안 가보기도 그렇고 넌 어떠냐?”

기석은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지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그 당시 지희 아버지는 육군 원사라고 했다. 아버지는 이혼하고 새 여자를 얻어 재혼하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따로 나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이혼한 후에 친척이 있는 일본에 가서 생활하고 있다며, 자기도 엄마를 따라 일본에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한 게 생각이 났다. 기석은 갑자기 여러 가지가 궁금해졌다.

‘그래. 맘에 안 맞는 아빠보다는 낫아준 엄마가 훨씬 나을 거야.

그런데 결혼은 왜 한국에 와서 한다는 것 일까? 누구랑 하는 것 일까?

“야, 너 뭘 그리 생각하냐?”

“아,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건 그렇고 너 술 한 잔 할 거냐?”

“윤 사장한테 이따 들른다 했어. 간단하게 한잔하고 들어가지 뭐.”

기석은 지희가 혹시 있으려나했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윤 사장이 기석에게 말했다.

“김 부장님. 아니, 이젠 사장님이신데, 김 사장님, 지희 보고 싶으시지요? 왜 아니겠어요. 내가 나쁜 년이지. 뻔히 알면서 사람 속을 헤집어 놓으니, 호호호. 지금 외갓집에 있는데 이따 잠깐 들른다 했으니 그때 보세요.”

창식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희희낙락하며 윤 사장과 시종일관 떠들어대고 있었다. 기석은 일부러 옆자리에 아무도 앉히지 않았다. 혼자 무료하면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한참 뒤 밖에서 낮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희 소리였다. 윤 사장이 용수철 튕기듯 얼른 몸을 일으켜 ‘지희야’ 부르며 나가자, 곧이어 지희가 윤 사장과 함께 들어왔다.

시집을 갈 때가 되면 여자는 예뻐진다더니만 정말 그런가보다. 한층 세련돼 보이고 예뻐진 지희를 보니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석은 곧 결혼할 사람과 술을 마시는 것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 지희에게 잠깐 나가서 차나 마시자고 하였다. 지희도 그게 낫겠다고 하여 둘은 잠시 그곳을 나와 근처 커피숍으로 갔다. 커피를 마시면서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잘 지낸 거로 보이니 좋다.”

“네, 잘 지냈어요. 엄마 곁에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저 열두 살 때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셨는데, 뒤늦게 어리광도 부리고 좋긴 했는데,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엄마가 힘들어 할 거 같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교포를 알게 되어 마음을 정했지요.”

“그래,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들 하더라고. 잘했어.”

기석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슬쩍 나와 근처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돈을 뽑아 봉투에 넣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어쩌다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을 다쳐서 한때 유흥주점에 있었지만, 다행히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니 잘 살라고 축원해 주고 싶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난 기석은 지희에게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며 준비한 봉투를 내밀었다. 그러자 지희는 이런 거 안주셔도 된다고 사뭇 뿌리쳤다. 기석은 그냥 자기 성의니 받으라며 그녀의 백에 넣어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창식이 그날 마침 지희의 결혼식장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러 축하를 해주고 왔다고 소식을 전해주었다.

기석과 창식은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서인지 술 마시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마시더라도 주량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어쩌다 소위 발동이 걸리면 과음을 하고 다음 날 후회하곤 했다.

그날도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을 먹은 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입가심으로 시원한 맥주나 한잔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논현동의 역마

차로 발걸음을 하고 말았다. 구관이 명관이다 하면서. 오랜만에 들어가니 윤 사장이 호들갑을 떨며 반겼다. 그러자 창식이 말했다.

“역시 윤 사장은 수완이 좋아. 이 불경기에 어찌니 해도 굴러가고 있으니 말이야”

“수완은 무슨 수완이에요. 할 수 없으니 하는 거지요. 그건 그렇고, 좀 있다 두 분 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니, 무슨 소리지?”

창식과 기석은 궁금한 얼굴로 다시 윤 사장을 바라보니 그녀는 윙크를 하고 사라졌다. 조금 있으려니 윤 사장과 함께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지희였다. 둘은 깜짝 놀라 말을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윤 사장이 나섰다.

“자! 이러지들 마시고 술 드시며 얘기하세요.”

하며 창식에 빈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지희는 기석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기석은 지희의 술잔을 채워주었다. 같이 건배를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희는 연거푸 석 잔을 내리 마셨다. 뭔지 모르지만 속에 쌓인 게 많은 듯했다. 기석은 궁금하였지만 먼저 묻는 것이 자칫 연약한 여심에 상처가 될까봐 가만히 담배만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지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참 좋은 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사업가는커녕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에게 당한 거였어요. 결혼 후 한 달쯤 지나고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아니다 싫어 바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도로 왔어요. 지금도 속은 생각을 하면……. 거기 있자니 엄마가 자꾸 속상해하시는 것을 보기도 괴롭고 해서…….”

가끔 일간신문 사회면에나 나오는 듯한 얘기가 실제로 자기 주변

에서 벌어지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그건 그렇고 한 여자의 인생은 어찌하란 말인가. 참으로 고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석은 그날따라 술맛이 씹쓸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본 지희와 같이 있고도 싶었지만 웬지 기분이 나지 않아 다른 날과 달리 긴 시간을 그곳에 있지 않고 집으로 왔다.

기석이 집에 들어오니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여동생이 거실에 있었다.

“유미야, 너 요즘 만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왜, 갑자기 그건 물어보시나요. 오라버니.”

“너 남자 잘보고 사귀어서 시집가야 한다. 괜히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혹했다가는 큰코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아니, 누가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네. 오빠 주변에.”

“아무튼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를 명심해라. 난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자련다.”

기석이 방에 들어오니 멀리 창밖으로 떠있는 달이 보였다. 그날따라 홀로 떠있는 달이 유난히 쓸쓸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시간이 가면 달이 차듯이, 지희에게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잠을 청했다.

막바지 칠월의 태양이 그 위용을 더해가고 있는, 1973년 여름 어느 날 오후였다.

형진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태평양다방에 들어섰다. 스피커에 서는 즐겨 듣는 히트곡, 길버트 오설리번의 ‘얼론 어게인’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평양다방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카운터가 왼쪽에 바로 있고 중앙에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의 뮤직 박스가 자리하고 오른쪽에는 이름만큼이나 넓은 홀이 있는, 충무로 일대에서는 제법 큰 다방이었다. 안쪽에서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 형진이 보니 인호와 대철이었다.

“일찍 왔네. 언제 왔냐?”

형진이 물었다. 그러자 대철이 말했다.

“응, 좀 전에 와서 이제 막 커피 시켜 놓고 있는 참이야.”

형진이 자리에 앉자 레지가 와서 차 주문을 하라고 했다.

“너희 커피 시켰다고 했지? 그럼, 나도 오늘은 커피를 한잔 마실까?”

셋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기다리던 여자애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맨 먼저 본 대철이 가만히 속삭였다.

“야, 왔다 왔어.”

그 여자애들은 다방에 들어오더니 뭔가 어색해하며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흡사 다방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오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인호가 일어나 반갑다고 손을 흔들자 약간은 어색해하면서도 이내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일찍 와 계셨네요.”

그 중 한 여자애가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찾았나요? 혹시 못 찾아서 늦나 했는데.”

대철도 인사치레로 한 마디 했다. 그러자 다른 여자애가 말했다.

“사실 처음 오는 곳이라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여자애들과 얘기를 하는데 레지가 불쑥 끼어들어, 차를 주문하라고 하는 바람에 잠시 얘기가 끊어졌다. 이 다방은 손님이 와서 앉기가 무섭게 레지가 득달같이 나타나 차 주문을 독촉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일행이 오면 그 때 같이 주문한다고 해도 귀찮을 정도로 다시 와서 주문 안하냐고 묻곤 했다. 그게 싫어 자주 찾는 다방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달리 고급스런 실내장식과 수준 높은 음향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끔 여자애들을 처음 만날 때 같은 날, 품을 좀 잡고 싶으면 이 다방을 이용하곤 하였다. 오늘 만나는 여자애들도 이 다방을 싫어하지 않으리라 여겨 이곳에서 보기로 한 것이다.

여자애들이 자리에 앉자 아니나 다를까, 레지가 쏜살같이 나타나 주문을 하라고 했다. 그 당시 여럿이 다방에 가면, 요즘으로 치면 커피숍에 가면, 학생들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니 가급적 한잔이라도 덜 시키려 했고, 거꾸로 다방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매상을 더 올리려 양측에 신경전이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남녀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여겨지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쩌쩌하게 굴지 않는다는 것을 노려 다방측은 이왕이면 값비싼 음료를 팔려고 무진 애를 썼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냉커피나 생과일주스 등 마진이 좋은 계절 음료를 은근히 강권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주문을 하게 한 뒤 나중에 계산할 때면 그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가 만나는 여자애들은 레지의 끈질긴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커피와 홍차를 달라고 하여 우리에게는 일종의 안도감을, 레지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오늘 만나는 여자애들은 지난 주 친구들과 함께 강릉의 경포대 해수욕장에 갔을 때 알게 된 여자애들이다. 무엇을 하는 애들인지, 몇 살인지도 몰랐다. 언뜻 보기에 나이가 비슷하고, 그때 거기서 만나 같이 놀다보니 서로 호감이 생겼고, 마침 서로의 집들이 서울이어서 나중에 한번 보자고 하여 오늘 처음 만나게 된 것이다.

그 쪽도 세 명이고 우리도 세 명이라 만나는 모양새는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처음 시작이, 인호가 셋 중에서 그 중 예쁜, 우리끼리 ‘긴 머리’라고 부르는 여자애를 좋아해서 비롯된 것이니 만큼 ‘긴 머리’를 인호가 만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없었고, 대철이 녀석은 ‘새침이’라고 부르는 여자애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니 형진은 어쩔 수 없이 파마한 여자애와 파트너가 되어 만났다.

형진은 ‘파마’가 그리 좋지도 싫지도 않았지만 친구들 만나고 여자애들하고 떠들고 노는 게 좋아 별 다른 생각 없이 만나곤 하였다. 여자애들과 대화를 해보면, 쓸데없이 내숭이나 떠는 애들도 꽤나 많은 데 이번에 만난 애들은 그렇지 않고 시원시원하여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있었다. 만나서 놀다 보면 마치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재미있는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면 같이, 음악 잘 틀어주는 다방에 가서 서로 좋아하는 곡을 경쟁하듯 신청하여 듣고, 차를 마시며 떠들곤 하였다. 출출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영화 보고 싶으면 극장가고 정말 즐거운 나날이었다. 단지 하나 생각 외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빼고는 베짖이가 따로 없는 시절이었다.

처음 강릉에서 만난 때가 7월 말이었는데, 어느덧 몇 번 만나서 놀다보니 8월 말이 되었다.

형진은 여자애들과 함께 만나는 재미에 빠져, 평소보다 인호와 대철을 만나는 횟수가 더 잦았다. 그날도 형진은 여자애들을 같이 만나기로 하여 인호와 대철을 일찍 만났다. 점심을 먹고 당구를 한 게임 치고 나니 시간은 벌써 세 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셋은 서둘러 여자애들을 처음 만났던 태평양 다방으로 갔다. 오늘은 레지들과 웬지 실랑이하기 싫어 아예 먼저 차를 주문한 다음 시원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여기 커피 세 잔이요.”

스피커에서는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셋은 바닷가를 다시 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 잡혔다. 그 때, 대철이 제안했다.

“우리 여자애들하고 남이섬이나 대성리로 놀러가는 거 어떻겠냐?”

“그래! 바닷가 다시 가는 건 쉽지 않으니 그게 낫겠다.”

인호가 맛장구를 치며 형진을 바라보았다. 우리 둘은 괜찮은데 너는 어떠냐는 모습이었다. 형진도 마침 다니던 학원이 끝이 났기에 그러자 했다. 한참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계바늘은 어느새 네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니, 네 신데 애들이 왜 안 오지?”

“글쎄 말이다. 좀 이상하네. 그동안 별다른 기미도 없었는데. 계속 잘 만나왔지 않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세 시에, 이 다방에서 만나는 거 맞지?”

“맞아. 자기네들이 여기서 보자고 한 거잖아?”

“그래. 이왕 기다린 거 좀 더 기다려 보자.”

결국 다섯 시가 지나도 그 여자애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이섬이고 대성리고 모두 다 부질없는 얘기가 되고 말았다. 평소에 워낙 말수가 적은 인호는 이상하다며 계속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레지를 부르더니 도라지 위스키 한잔을 시켜 한숨에 들이켰다. 형진과 대철은 인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적잖이 놀랐다.

날이 어두워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길은 근처의 학사주점으로 향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인호는 무척이나 상심한 모습이 었다. ‘새침이’를 좋아한 대철도 꽤나 서운해 하였다. ‘파마’와 파트너가 된 형진은 좋은 것도 없었기에 그다지 서운할 것도 없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여간 셋은 뭔가 이상하다, 무슨 실수를 한 게 있나, 우리가 싫은 건 가 등등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얘기하며 밤이 깊어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였다.

더운 여름이 언제였나 싶게 지나가더니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왔다.

형진은 개학 후 학교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에 맞춰, 모처럼 인호와 대철을 시내에서 만났다. 그 날 셋은 경복궁 쪽에 일이 있어 종로2가에서 안국동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맞은편에서는 학교수업이 끝난 인근의 여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교복을 입고 걸어오는 여학생들 중에 무척이나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셋은 잠시 눈을 의심했다. 지난 달, 만나기로 하고 나오지 않은 바로 그 여자애들이었다. 아니, 근데 그 여자애들이 여고생이라니……, 셋은 어이가 없어 일순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 여자애들도 마치 무엇을 흠치다 들킨 도둑처럼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

형진이 보니 인호는 그 와중에도 놀라움보다는 반가움이 더한 듯했다. 당황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여고생, ‘긴머리’를 붙들고 어

떨게 된 거냐고 묻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여자애들은 인근 덕정여고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했다.

한 여름의 바닷가에서 파마한 머리를 길게 풀고 화장까지 한, 성숙할 대로 성숙한 그 여자애들을 만난다면 어느 누가 여고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 해 여름은 형진과 친구들에게 그토록 아린 추억만을 남기고 가을을 향해 제 갈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어제는 친구들을 보러 종로에 나갔다. 늘 사당동 쪽에 있는 주점에서 만났는데, 모임장소를 바꿔보자는 주장들이 강해 모처럼 종로 5가 쪽으로 정했다며, 총무가 만날 장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집에서 버스로 서너 정류장 거리인 종로에 일이 생기면 운동 삼아 가끔 걸어가곤 한다.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도 쉽지 않은데,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고, 비록 천원이지만 차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

어제도 약속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어 대학로를 거쳐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나 하고 쳐다보니 웬 남자가 쇠줄을 타고 있었다. 나이는 오십대 정도, 군살이 없는 몸매에 셋노란 옷을 아래위로 빼입고, 철사 같이 가느다란 쇠줄을 사람 키 높이만큼 걸어놓고 그 줄 위에서 왔

다 갔다 하며 묘기를 부리는 중이었다. 떨어질 것만 같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모습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는지 감탄사를 연발하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재미있어 잠깐 동안 들여다보다 약속시간에 맞춰가기 위해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걸어서 종로에 거의 다 도착할 즈음까지도 오랜만에 본 신기한 구경거리인 셋노란 잔상은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스페인에 출장 갔을 때, 바르셀로나 거리를 구경하다 보았던 거리의 조각상이 생각났다. 정확히는 ‘거리의 커플’이었지만, 처음 보았을 때는 영락없이 조각상의 모습이었다.

젊은 남녀가 몸에 은분페인트를 칠하고 마치 은으로 만든 조각상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본 나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돌같이 꿈쩍하지 않고 있던 남자 조각상이 갑자기 손을 움직여, 그 앞에 놓여있던 자그마한 통을 가리키는 바람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통에 돈을 넣은 뒤에야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몸에도 좋지 않을 은분을 매일같이 뒤집어쓰고 날마다 광장에서 같은 자세를 잡고 힘들게 서 있어야 하는 거리 of 커플, 그리고 노란 옷을 차려입고 아차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을 위태로운 쇠줄을 타는 사나이.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될 텐데……, 하지만 사람들은 소위 거리의 행위예술가들에게 정작 돈 천원 가량 내어 주는 것에도 꽤나 인색하다. 버스 한번 안타고 걸어가면 고작 돈 천원이 절약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돈 천원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얼마 전 보았던 책에 있던 글 구절이 떠오른다.

‘삶은 치사하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웬만큼 살아본 다음에야 언젠가부터 비로소 삶이란 것이 참 치열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어느 작가는 치사하다고 표현한 것일 테다. 나부터도 술을 먹을 때는 몇 만원도 아깝지 않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큰돈도 망설임 없이 선뜻 쓰면서도, 좋은 구경을 하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늘 돈 천원 지불하는 것에 어찌 그리 주저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지하철 입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 쫓그려 앉아서 동냥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거리의 행위예술가들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달리 마땅히 돈을 벌 방법이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는 응당 그 구경의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인생이 조금은 덜 치사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수필 | 의식의 전환

요 며칠 사이, 누구를 만나든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V를 틀어도 어느 채널 할 것 없이 시종 일관 이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펼치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뉴스 창에 뜬 속보를 보고 나서였다. 속보의 내용은 학생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여객선이 좌초되었으나 모두 구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그 속보를 보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웬만한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면 많은 인원도 순조롭게 구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다.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모두 구조되었다니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는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곧 하루가 지났다.

“여보, 여객선이 침몰되어 큰 사고가 났대. 구조가 안 되서 보통 난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당신 알고 있어요?”

저녁 때 아내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오히려 아내에게 되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전에 뉴스 봤을 때는 다 구조됐다고 나왔었는데. 뭔가 이상하네.”

그래도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 얼른 TV를 틀었다.

‘아!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TV화면에는 커다란 배가 가라 앉아 있었고 귀퉁이 자막에는 사망O명 구조O명 실종O명이라고 써어 있었다. 너무나 어이없고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럼 오전에 모두 구조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보도였으며,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시작했단 말인가.’

언제부터인가, 큰 사고가 났을 때 TV를 보면 범죄 용의자 또는 수사 대상자들에게 기자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하나같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억울하다. 누명이다.’ 등 온갖 핑계를 대거나 거짓을 얘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았다. 간혹 양심에 가책을 느껴, 뒤늦게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후회와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몰염치함은 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IMF사태 이후부터가 아니었나 싶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과 달리 인간의 모든 가치 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다른 어느 것보다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경향이 그 후부터 생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물질과 재화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박스러워지기 때문에 예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현들은 여러 글을 통해 경계한 바 있거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해도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이득과 이권에 눈이 멀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 심지어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닐까.

지난 1970~80년대부터는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대다. 우리 세대의 학창시절이기도 한 이 시기에는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자유가 억압당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특히 자유의 만행격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유달리 더 탄압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잘 사는 나라를 빠른 시일에 만들었음지는 몰라도,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풍조도 지금의 우리 시대상을 만든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기에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겨를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단면도 있지만 단지 배부른 돼지가 되려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TV 및 언론들도 얼마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끔찍한 참사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천박한 가치관과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물며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 의식이 마치, 이른 봄 새벽에 짙은 안개가 낮게 깔려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안개같이 넓게 퍼져있는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언제라도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겪지 말아야 할 사건들, 제대로 규칙을 잘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일부 어른들의 물질만능주의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이 번번이 애꿎게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 따르지 않는 것 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책임을 다 하지 않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은커녕 불신과 경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제라도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가는 속도는 적당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리 더디더라도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자기의 역할을 한다면 선진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수필

이미숙 편

『참여문학』 신인상 수필 당선

수필 동자그림

빛을 잃다

인연의 소중함

“엄마! 책 한 권만 사다 줘.”

“무슨 책?”

“어릴 때 출가했는데, 시도 쓰고 동자승 그림도 그리는 스님 책이야.”

딸은 친구에게 빌려 읽었다고 했다.

“그 책에 있는 글과 그림이 마음에 와 닿아서 꼭 갖고 싶어.”

딸이 책 내용과 작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사동에 작은 갤러리도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 나도 본 것 같아. 가부좌한 동자승, 진짜 천진난만하지?”

딸은 엄마도 봤느냐고 하며 즐거워한다.

화선지를 사리가던 날, 인사동에서 동자승 그림을 눈여겨 본 적

이 있다. 미소 띤 얼굴에 곧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야릇한 기분을 갖게 했던 그림이다.

노란 은행잎이 쌓인 날이었다. 간밤에 바람이 몹시 불었는지, 잎이 바람에 날려 구석구석 눈처럼 소복하게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는 겨울을 떠올리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웠다. 노란 잎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소담스럽게 쌓인 잎의 감촉을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노란 잎이 정말 곱고 눈이 부시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기분일까? 살며시 발을 들어 쌓인 은행잎 위에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은행잎이 어떤 저항력을 발휘한 것처럼, 차마 발을 내려놓지 못하고 괜히 미안쩍어서 슬그머니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길을 따라 걸었다. 울적했던 기분이 조금 사그라졌다. 그렇게 길거리의 노란 낙엽에 마음을 묻고 걷다가 불현듯 마주친 동자승의 그림, 그것이 그와의 첫 대면이었다.

살다보면 생활에 활력을 줄 요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던 일들이 시들해 흥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것에 대해 후회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만족하면서 한순간 폭풍우가 휘몰아쳐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뜻하지 않게 다가온 손님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면 서점으로 향한다. 책을 사러 간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 한 방법이다. 여기 저기 수북한 책을 뒤적이다 보면 불청객의 방문을 잠시 잊게 된다. 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과 밀회를 하고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딸이 반색을 했다.

책이 든 봉투를 높이 들어 흔들었다. 딸이 활짝 웃으며 쏘르르 달려와 책을 받는다. 봉투에서 책을 꺼내 거실에 쏘그리고 앉아 책장을 넘긴다.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런저런 말로 종알거린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림도 한 장 사다 달라는 부탁도 했다. 새 책을 만나서 반가운지, 책장을 넘기다 멈추다를 반복한다. 한참 소가 되새김질하는 양 페이지를 넘기는 행동을 하다가, 나를 쳐다본다.

“난 읽었으니까, 엄마 빨리 읽고 나 줘.”

손에 놓여진 책을 가만히 보았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이다.

책장을 넘겼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절간에서 정진하는 모습과 어머니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는 글이다. 겨울 긴긴밤 엄마가 그리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그림의 동자승과 스님의 글이 어찌 그리 매치가 잘 되는지! 자식이 불가에 들기를 소망한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 마침내 스님이 되겠다는 아들과 그 어린 손을 잡고 절간으로 향하는 어머니, 이들 두 모자의 눈물겨운 모습. 가슴 한 자락 저며 오는 아픔에 읽어나가기가 힘들다. 스님이 얼굴인지, 동자승 그림의 얼굴인지, 천진한 모습과 해맑은 미소에 매료되었다.

‘어쩔 저리 맑은 얼굴이 있을까. 동자승이 되어 엄마가 보고 싶어 어찌 견디었나.’

가슴이 시리다. 강한 아픔이 온다.

어린자식을 산중에 떨어뜨리고 돌아선 어머니의 뒷모습이 가슴으로 파고들어 싸한 아픔을 자아낸다.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워 베갯잇을 얼마나 젖혔을 것인지. 아마도 그 긴 시간 눈물강을 이루었

으리라.

그 이후 책꽂이를 뒤적이다 그 책과 마주하면, 동자승과 스님얼굴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 책을 꺼내 손에 들었다 놓았다 하는 일이 한동안 반복되었다.

때로는 마주앉기만 해도 행복감을 선사해주는 사람이 있다. 사는 모습이 화려하진 않지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많은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평범한 말이 행복한 언어가 되어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가끔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향기를 느낀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눈망을 속에서 순수와 행복을 얻듯, 상큼한 향기로 사람들 마음속에 예쁜 수를 놓아주며 용기를 준다.

나는 번민이 많을 때 걷는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지칠 때까지 간다. 그러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산처럼 쌓인다.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따라간다.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모난 마음 하나를 꺼내 날린다. 가로수가 바람에 손짓하는 모양에 위안을 받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따사로운 햇살에 내 마음도 따스해진다. 자연의 숨결이 내 안에 와 닿는다. 깊숙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뱉는다.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가 하나 둘 밖으로 흘러나와 흩어진다. 사사로운 감정들이 하늘 거리며 날아간다. 자연이 나를 위로하고 동행해주기에, 내 안에 새로운 집을 만들고 탄탄한 울타리도 쳐준다.

자연은 버리는 마음과 용서하는 능력을 부여해준다. 내 안의 소소한 욕심도 놓아버릴 수 있고, 미워하던 감정도 스스로 녹아내리

게 하는 힘도 준다. 그렇게 걷다보면 내 안의 모든 걸 자연에 놓고 돌아오게 된다.

서점 순례와 산보는 내 영혼을 맑게 해주는 활력소다. 동자그림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과 미소 짓게 만드는 치유의 손이 된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산란할 때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맑은 영혼들과 교감하고 자연과 진솔한 교감을 이루며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다. 어쩌면 그 향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길을 걷다가도, 어디서 향기로운 커피향이 바람을 타고 솔솔 날아오면, 나는 그 향에 이끌려간다. 그게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날이면 더 심하다. 그러다 보니, 커피를 마실 때도 다양한 컵을 바꿔가며 마시기를 선호한다. 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컵마다 각기 다른 느낌의 맛과 흡족한 행복을 제공하는 것 같다.

해가 구름 속으로 숨어버리자, 옅은 회색 물감을 칠해 놓은 듯 주위의 풍경이 스산한 느낌을 주는 날. 공기 중에 떠돌던 습한 기운이 어깨를 누르며 나의 감각을 흔들어댄다. 그럴 때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끌려들어간다. 이런 날이면, 후각은 커피 향을 그리워하며 이미 그 향을 쫓아간다.

부엌으로 급하게 걸어가 컵부터 고른다. 오늘 같은 날, 마음을 달래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컵을 골라 커피를 탄다. 코에 스며

드는 향이 내 마음을 온화하게 진정시킨다.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커피의 향이 입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따뜻한 액체와 어우러져 나에게 행복감의 절정을 선사한다.

“이 컵 예쁘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새로운 컵!”

딸이 들고 있는 사과 모양의 컵을 보고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박수를 쳤다.

“엄마는 작은 것에 행복해 해.”

딸의 호의다. 그 컵은 양 옆이 불룩 튀어나와 있어, 사과의 윗부분을 칼로 쓰윽 자른 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은색 도자기 컵이다. 빛나는 은색 컵은 탐스럽다. 은빛 컵, 그 표면에 얼굴을 비춰보면 오목렌즈 형상으로 내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집 안 풍경이 담겨져 있어, 내가 다른 세상에 들어간 기분이다.

새로 생긴 컵은 그 날로 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하루 세 번 정도는 나와 마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려다 팔목이 아프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식기세척기에 그릇들을 집어넣었다. 옆에 있던 은색 도자기 컵을 넣을까 말까 약간 망설이다가 세척기에 같이 넣어버렸다. 그러면서 ‘혹시 색이 변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잠시 했다.

저녁 무렵 그릇을 정리하려고 식기세척기 문을 열었다. 마른 그릇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몇 개의 컵을 꺼내어 제자리에 놓다가 은색컵을 집어 들었다.

‘이런, 세상에!’

은처럼 반짝이던 겉모양이 거무스름하게 녹이 난 것처럼 보였다.

이럴 수가! 반짝이던 빛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낡은 컵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자기 본래의 빛을 아주 잃어버린 것이다.

‘나도 이 잔처럼 빛을 잃고 살고 있거나 않을까?’

불현듯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잔에 커피도 담지 않고 들여다보기만 했다. 세척기에 집어넣을 때 잠시 고민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바보 같으니!’ 하고 내 머리를 툭툭 쳤다.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나는 가끔 내적 흔들림에 직면할 때,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곧잘 한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품고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이다. 초심은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처음 먹었던 마음의 빗줄기, 그 사람이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성격과 삶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게 초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동심’이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동심과 함께 동행 하고 싶다. 그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슴 한구석에 간직하고, 살며 살아가며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어떤 이는 그런 것을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 하고, 어떤 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싫다고도 한다. 심지어 그것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어디 있으며,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이 질타 받을 일은 아닌데 말이다.

수 년 동안 육체적 통증 때문에 마음마저 병들어버린 것인지, 싫

은 내색도 거침없이 하고 짜증도 낸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위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유도 없어져버렸다. 온 정신을 자신에게 쏟다보니, 눈이 멀고 마음도 얼어버린 모양이다.

컵의 색이 변해버린 후, 은색 컵은 쓰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얹어 놓았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 일어난다. 몇 달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의식도 못하게 되었고, 어찌다 눈에 띄면 제풀에 움찔한다. 그러다 미안함에 다시 커피를 담아 마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점점 거리감을 두게 된다. 그것에 퇴색된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빛을 잃은 컵, 낱아버린 내 영혼을 보는 듯하다. 초심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망연히 그려본다.

수필 | 인연의 소중함

붓글씨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글을 쓰지 않은지 십오 년이 넘었다. 손에 익힌 기술은 잊어버리지 않아 다시 하게 되면 저절로 나온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 글씨가 엉망이다. 심지어 처음 쓰는 사람처럼 긴장되고 손에 힘이 들어가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쭈신다.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라는 옛 시구(詩句)가 떠올랐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꾸준히 한 우물을 파야 한다더니, 어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 시절이 생각난다.

내가 붓글씨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특별한 사연이 있긴 것은 아니다. 서예학원에 딸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 같이 다닌 것이 인연이 되었다. 처음에는 글씨체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초보인지라 글씨가 영 엉망이라 그랬는지, 한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좋았다.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이 되었고, 부족했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 셈이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붓을 들어 쓰는 시간이 좋아졌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벼루 위에 물을 조금씩 부으며 먹을 갈면 먹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잘 갈아진 먹물을 붓에 묻혀 쓰다보면 온갖 잡념이 사라진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집살이에서 나만의 도피처가 만들어진 셈이었다. 거기 있는 동안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했다.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내면의 기쁨을 갖게 도움을 준 것이 서예선생님이다.

선생님을 만났을 당시, 이 분은 연세가 높았다. 흰칠한 키에 알맞은 풍채, 잘 생겼으면서도 온화해 보이는 외모. 나직한 톤의 목소리와 꼭 필요한 말만 구사하는 섬세성. 식후 커피한잔을 즐길 줄 아는 낭만적 센스. 삼십대부터 앓았다는 당뇨병 때문에 철저해진 몸 관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신력. 이런 선생님의 생활모습에서 서예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인품의 전형을 보았다. 그와 같은 것들이 십여년이 넘도록 선생님과 인연의 끈이 되었다.

서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연령 차이가 많았지만 친하게 지냈다. 연말 파티를 할 때는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서실에서 튀김을 만들기도 했다. 그곳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난 후,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한 곡씩 불렀다.

내가 처음 서실에 다닐 때는 어른들 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꽤 있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컴퓨터학원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의 취미나 관심사항이 현저히 바뀌었다. 아이들은 힘들고 지루한 것을

기피했다. 그 여파로 서실도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선생님은 걱정을 많이 했다. 엄마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붓글씨를 배우러 온 아이들도 한글서예를 원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본래 한문서예 위주였을 뿐 아니라, 연세 때문인지 한글서예에는 난색을 표했다.

나는 마침 그 무렵 다른 데서 한글서예를 사사받고 공부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오후에 아이들을 지도하겠다고 자청했다. 선생님은 고맙겠다며 승낙해주었다. 내가 오후에 아이들 한글지도를 할 때 서실동료인 J씨도 일을 돕겠다고 해서 같이 진행했다. 덕분에 서예 학원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런대로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다.

그런데 선생님 엄지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보였는데, 지병인 당뇨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점점 덧나 상태가 심각해져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선생님은 서실에 종일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하셨다.

“죽기 전까지는 이곳에 드나들고 싶네요.”

선생님은 서실을 남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누군가 서실을 물려받아 맡아 주었으면 했고, 그 대상이 나였다.

‘평생을 여기서 보내셨으니 그러시겠지.’

나는 선생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실을 이끌어 가기로 약속하고, 전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선생님께 드렸다. 순전히 둘만의 구두 약속이었다. 집주인한테도 일단 비밀에 부쳤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연로한 선생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선으로 물려난 줄 주인이 알면 월세를 더 달라고 할지 모르니, 하는 동안은 잠정적으로 그냥 이대로 유지하도록 합시다.”

나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 그런 것은 중요하지도 않았다.

선생님은 마음이 편하다며 계속 서실에 나와 자리를 지켰다. 그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두어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선생님 댁에서 전화가 왔는데, 머느리라고 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날, J씨와 함께 병원 영안실로 찾아갔다. 영정 앞에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침에 일어나신 선생님은 ‘어지럽다’ 하더니 쓰러졌다고 한다. 그 길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한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선생님이 서실 책상 앞에 평상시처럼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앞을 가만히 응시하는 듯 보였다. ‘선생님!’ 하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 역시 가만히 바라보기다가 잠에서 깼다.

그날 오전 J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이 흰 한복을 입고 바랑을 메고 가는 모습을 꿈에서 봤다고 한다.

신기한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 얼마나 묘하고 야릇한 경험인가. 그날 온종일 꿈 때문에 온통 정신이 산란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오후 6시쯤 선생님 댁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이 사십구제입니다. 절에 잘 모셨어요. 여러 모로 고맙습니

다.”

‘사십구제라면 망자가 이승을 떠돌다가 비로소 저승으로 가는 날...그러면 이승을 떠나시려고 인사차 우리 꿈에 보였나. 아니면 서실이 그리워서 다녀갔을까?’

선생님은 곧 맞게 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시중을 드는 큰며느리에게 서실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일임했으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시설 일체와 함께 내 소유로 해주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큰며느리가 와서 이 유의(遺意)를 전하며, 건물주를 만나 명의변경을 해 주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깔끔한 성격만큼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상태였던 것 같다.

오래된 앨범을 뒤적거린다, 서예전시회를 할 때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았다. 몇 장의 사진이 그 시절을 떠 올리게 하니,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반가움에 좋기도 하면서 묘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선생님 고향은 이북이다. 언젠가 통일전망대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서실 다니는 사람들과 차 두 대로 통일전망대에 간 적이 있다. 선생님은 과일 몇 개와 술을 올려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런 선생님 뒷모습이 너무나 애잔해보였다.

우리는 구경도 하고 가져간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사진도 찍었다. 같이 공부하던 김 선생, 박 선생, J씨와 여러 사람들, 게다가 나와 막내딸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다.

얼마동안 학원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 때 큰 경제적 고난을 겪게 되는 바람에 서실을 정리했다.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고 서실을 오래 지키지 못한 것이 늘 가슴 한 구

석에 회한의 짐으로 남아있다.

만남과 이별은 가슴 아프게도 하고 설레게도 한다. 만남은 곧 헤어진다는 것은 전제하고, 이별은 곧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인연을 맺었다.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 사소한 만남이었음에도 그 끈이 길게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래 친하게 지내왔으나 짧게 매듭지어지는 사람도 많다.

‘오다가다 옷깃만 스쳐도 전세의 인연’이라고 했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 떠올려 본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인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내 곁에 머물러 있어 주니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 일인가.



수필

옥수향 편

수필 그림자

가을하다

시 아침, 길을 걷다

농담

모과

퇴근길에 딸아이의 같은 반 어머니만 만나지 않았어도 ‘오늘도 무사히’의 평범한 일상처럼 지나는 하루였을 것이다. 그러나 잔뜩 말하고 싶은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 딸아이친구 엄마의 등장과 털어놓는 이야기가, 약간의 여유를 느끼는 주말 발걸음을 잡았다.

“어머, 주연이엄마, 오늘 스카웃야영하잖아요. 난 침낭 필요 없는 줄 알았다가 아침에야 전해 듣고 부랴부랴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지금 가져다주고 오는 길이에요.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뭐예요. 호호.”

‘침낭? 아, 이럴 줄 알았다.’

학교운동장에서의 첫 야영을 손꼽아 기다리던 딸아이, 쌀과 계란 몇 개, 부탄가스와 버너만 준비하면 된다고 강충거리던 딸아이의 얼굴과, 토요일 수업 끝나고 하룻밤 자는 일을 하찮게 생각한 태평스

러운 엄마라는 자책에 발걸음보다 마음이 먼저 학교로 내달렸다.

운동장에 늘어선 텐트들 중에서 ‘아이를 어떻게 찾지?’ 하고 아득했는데, 마침 지나치는 낮익은 아이들이 있어 물어서 딸아이의 텐트를 찾을 수 있었다.

‘여자1보’.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조이름인가. 하지만 텐트 앞쪽 올망졸망 벗어놓은 짤짤이 슬리퍼와 샌들들, 짧은 핫팬츠와 민소매 옷을 입은 막 십대에 진입한 풋풋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자, 문득 스카우트복장에 운동화만 신고 대문을 나서던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심란했다.

“엄마!”

낮선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반기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 뒤로, 그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딸아이의 친구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듯 새된 소리로 불쑥 끼어들었다.

“주연이아줌마, 주연이요, 이따 밤에 조별 발표회 하는데 춤 안 춘다고 연습 안 해요.”

일순간 당황한 표정인 딸아이가 주춤거리며 애길 꺼낸다.

“있잖아, 엄마. 나 그냥 무대 밑에서 열심히 응원하려고, 그래도 된댔어.”

일 초도 걸리지 않을 시간에 텐트 옆의 가방들 사이로 딸아이의 빨간 가방이 눈에 띄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방 싸.”

“엄마…….”

아, 모두가 보았어야 했는데, 내 말이 얼마나 낮고 단호했으며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를. 그 옆의 아이들마저도 감히 끼어들지 못할 만큼의 몇 초가 지나, 조장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말 타래를 푼다.

“아줌마, 발표회 말고도요, 조별활동 많아요. 담력훈련도 있고요, 밥도 해먹고요. 지금 주연이 가면 우리조 점수 다 깎여요.”

침을 꿀꺽 삼키며 한 번 더 딸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말 따위로 절대 양보하지 않을 눈빛으로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주연, 가방.”

‘여자1보’ 아이들이 이 무식한 엄마 주위를 감싸며 애원하는 눈빛이 되고, 딸아인 내 눈치와 아이들 시선을 함께 느끼며 우물쭈물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얼굴이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딸아이의 가방을 낚아채며 내주지 않을 기세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낸다.

“그럼, 좋아. 지금부터 같이 연습하고 발표회 때 무대 위로 함께 올라가. 아줌마 이따가 발표시간에 올게.”

그러고 딸아이를 바라보며 한 번 더 다짐을 받아두었다.

“있다가 함께 발표회에 안 올라가면 그땐 집에 가자.”

딸아이가 친구들 손에 이끌려 철봉 쪽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내 걸음은 더 빨라졌다.

가까이 있는 시장골목을 훑으며 아까 딸아이 친구들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엉덩이에 영어프린트가 그려진 핫팬츠와 모자 달린 민소매 티, 그리고 작은 무릎담요를 사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발표회를 보기 위한 스카웃 대원의 엄마 · 아빠 · 할아버지 · 할머니

니 등 대식구가 강당을 향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난 발표회가 저희들끼리의 잔치인 줄 알았지, 몇 주 전부터 조별로 연습을 했고, 부모가 참관할 수 있으며, 또 대부분의 부모가 온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지한 엄마인가.’

어느 행사에나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인사말과 풍선게임시간이 지나고 발표회시간, 드디어 딸이 속한 여자1보의 차례였다. 모두 여덟 명, 아이들의 당당한 걸음 뒤로 딸아이만 같은 조원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고, 한창 유행을 타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Oh’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밥 먹고 춤만 춘 듯 몸을 흔들며 대는 일곱 아이들과 가장 키가 큰아이 뒤에 서서 그림자처럼 따라 춤을 추느라 바쁜 아이하나, 모두들 그래서 앞의 춤 잘 추는 아이보다 뒤에 선 한 아이에게 더 관심이 간다는 걸 모른 채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잔뜩 긴장된 얼굴로 앞 아이의 그림자가 되는 딸아이를 보며 숨결이 멎어버렸다.

‘내 아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엄마를 위해 하고 있구나. 이걸 놓쳤다면 어쩔 뻔했단 말인가.’

내 눈엔 내 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여운 그림자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말할 수없는 벽참과 함께하는 때늦은 후회, 오래전 잊었던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에는 입학생들을 운동장에 반별로 세워놓고 젊은 여선생님이 조희대에 올라 춤과 율동을 가르쳤다. 얼핏 생각나는 노래가사는 ‘동근 해가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끗하게 세수하고 이를 닦고 가방을 메고 인사하고 씩씩하게 옵니다’라는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그 노래와 그 율동들을 따라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시골마을의 무당푸닥거리처럼 생경스럽고 시시해서, 몇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서로 질세라 선생님을 따라하는데도 외딴섬처럼 차렷하고 서있었다.

(못해서가 아니라 싫어서였다고 지금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겐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었다.)

그때, 맨 뒤에 서 계시던 어머니가 내가 있는 중간까지 달려와 내 팔을 나비 날갯짓 시키듯 율동에 맞추어 올려주었고, 한 번도 큰소리조차 들은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자란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차렷했던 것 같다.

그래도 입가에 얹은 미소를 지으며 특이한 딸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 시선쯤은 아랑곳 않던 어머니의 사랑 가득 담겼던 따뜻한 눈빛.

그러나 그때 그러지 말걸, 우리엄마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 줄 알았다면, 그 후로 계속된 병상생활과 어린나이라 면회도 제한되는 나날이 지속될 줄을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나도 딸답게 다른 아이들처럼 춤을 출걸.

다음 해 처음 맞는 봄방학의 설렘과 어머니의 죽음이 함께한다는 걸 알았다면, 나도 내 딸처럼 앞사람의 그림자쯤 되어줄 것을…….

새벽녘 알싸해지는 바람을 느끼며, 대문 담장 쪽의 화분과 계단에 놓인 나무들의 시린 발이 걱정이다. 계단을 오르는 난간으로 밖에서 꽃이 보이게 매달아 놓은 바구니의 아이비들도 잎 가장자리마다 조금씩 붉은 단풍이 들고, 함께 심은 일일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작은 꽃을 피운다. 벤저민도 한 잎씩 노랑 잎사귀를 단다. 새벽에 피어 정오면 꽃잎을 닫던 나팔꽃이 초저녁까지 작아진 꽃망울로 늦도록 피어 찬란하던 여름날의 기억에 젖는 가을날, 갑자기 서리 내리기 전에 실내로 들여 놓아야 할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 본다.

열다섯 딸아이 키만큼 자란 벤저민은 들어오는 현관에 세우고, 한겨울 둥글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 볼을 달아주어야지. 천사의 나팔과 개나리자스민의 화분에는 붉은 체크무늬 형겅으로 옷을 입히고, 실내 창가에는 제라늄과 아이비, 라벤더 화분을 들여 놓고, 식탁에는 두 팔 가득 한아름이 되는 세 개의 스킨답서스 화분이

자리를 차지할게다. 처음부터 실내에 있던 녹보수 밑에는 가랑코에 화분을 둥글게 들고, 알로카시아 옆에는 울마를 놓아야지. 보라색, 초록색의 달개비들이 실내로 들어와 또 꽃을 피우고, 몇 녀석들은 이사를 했다고 몸살을 앓으며 잎을 떨구고 색이 바래지기도 하겠지만, 조용한 기다림으로 다시 어린 잎을 내밀고 꽃을 피울 것이다. 몇해 전 생일선물로 딸아이한테서 받은 계발선인장과, 5월 제자들이 사온 호접란바구니와 체리세이지도 놓을 곳을 찾아야겠다. 어린아이 팔만큼이나 아무저진 토란줄기도 이제 거둬들이고, 토란도 캐서 미리 캐어둔 튕립 구근과 함께 저장해두어야지. 여름동안 휴면을 취하고 이제야 깨어나 매일 매일 새 잎을 다는 시클라멘도 이제 실내에서 꽃을 피울 차례다.

담장가에 가지만 남을 함소화와 애기사과, 모란과 해당화, 앵두나무에는 금색의 불을 달아야겠다. 천사의나팔은 아직 피우지 못한 세 송이 꽃을 피우고 들여야겠고, 돌절구의 워터코인도 생이가래도 초저녁부터 느껴지는 한기에 서러움이 크겠다. 봄과 여름 내내 꽃을 피우던 꽃들을 대견해하던 마음은 겨울 한철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는 것들에 또 감탄하는 마음이 된다. 실내에 들인 화분에 저절로 떨어진 나팔꽃 씨가 싹이 트고, 단 한 송이 꽃을 피워도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 숙연해진다.

한때는 겨울이면 다시 올 봄만을 그리워한 적도 많았다. 얼른 봄이 오기를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듯 여명처럼 따사로운 빛의 봄은 희망의 빛깔이었다. 두꺼운 외투를 벗기도 전에 가지 끝에 아기 손톱보다 작은 얼굴을 내미는 꽃봉오리와 어느 사이 보라색 꽃을

피우던 노루귀를 보며 반가워하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건마는
한겨울 동안 나이트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시린 땅속 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을 씨앗들을 생각하면 겨울은 시련만은 아닐 것이다. 상
처의 딱지가 더 딱딱해지고 견고해지듯 더 찬란한 나날을 위한 기
도의 순간인 것이다.

시 아침, 길을 걷다

네거리 신호등에서
사람이 더 많은 쪽을 향해
걸은 적이 있다
나는 완벽히 혼자였지만
또한
수많은 혼자 속의 혼자였다

밤새 내린 가을비에
온 몸을 납작하게 엎드린
나뭇잎처럼
한 없이 낮아지고 싶은 아침

풍향계 사이로 날아오르는 작은 새와
흔들리는 깃발들

이제 막 제 몸을 부풀리며
고소한 내음 풍기는 빵들도
온전히 혼자이면서
함께인 아침

시 농담

자꾸 발을 헛디디는 꿈을 꺾
툭! 던져지는 신문뭉치처럼
공중에 온몸을 날리 듯

두런두런 꽃봉오리들은
부풀어 오른 가슴을 내밀며 말을 걸고

으양이는 고양이소리
봄꽃처럼 피어나는 밤

언 땅을 비추는 햇살에
감출 수 없는 아지랑이 같은 웃음

흙통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서로 다른 조각을 가진 우리의 기억

아니라고 해도
슬픈 건 어쩔 수 없지

시 | 모 과

끈적이며 손끝을 감돌아
여운으로 남는 체취를
그리워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



서풍

심희진 편

소설 달콤한 상상

삼장법사

수필 여덟 살 아들

관심의 효능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남자 둘이 포장마차에 앉아 술을 주고받고 있었다. 상대의 눈치라도 살피듯 눈동자를 올렸다 내렸다하던 B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네. 도대체 언제 빌린 돈인데……. 이제야 갚게 돼서. 그것도 이자 한 푼 없이.”

“허, 자네는 무슨 그런 소릴……. 사실 이십 년 전 자네가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이 돈을 빌려주면서 자네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조심스러워 그냥 주는 거라고 말을 못했을 뿐이야. 설령 받지 못해도, 아니 굳이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데, 오늘 횡재했네, 그러.”

B는 L의 말이 허세가 아닌 진심인 걸 알고 있었다. L은 언제나 유쾌하고 배포가 남다른 친구였다.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오백만 원은 선뜻 내주기엔 너무도 큰 액수였다. 그럼에도 망

설임 없이 선뜻 내어주어 얼마나 고마웠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L은
방금 건네받은 오백만 원이나 되는 돈뭉치를 무심경하게 테이블에
턱 올려놓았다.

“저기, 어디 안 보이게 가방에라도 잘 넣어두게.”

“내가 들고 온 가방도 없고, 이 두둑한 걸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있을 수도 없으니 일단은 여기 두지 뭐.”

‘아무리 안 받아도 그만이었던 돈이지만, 나는 이걸 돌려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이자도 한 푼 안 없어졌다고 섭섭해
서 그러나?’

B는 잠시 무안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학창시절부터 보아 온 L의
성격을 잘 알기에 다른 뜻이 없다는 것도, 그리고도 남을 인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네, 나랑 내기 한 번 할 텐가?”

L이 뜬금없이 물었다.

“내기? 무슨 내기?”

“내가 오늘 기차를 타고 집에 내려갈 때, 돈을 지금처럼, 이 상태
그대로 객차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집어갈까?
안 집어갈까?”

“에이, 그야 당연히 누가 가져가지 않겠나? 고양이한테 생선 말
기듯 던져주는 꼴인데…….”

“그래? 그럼, 나는 안 가져간다는 걸지.”

“만약 누가 가져가면?”

“그럼, 자네가 돌려준 오백만 원을 내가 다시 줘세.”

“누군가 걱정하고 가져간다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건 내기에 진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 말고.”

“혹여 자네가 이기면 나는 어찌하는가?”

“다음에 내가 서울 올라오면 오늘처럼 술 한 잔 사주게.”

“뭐, 그거야 어렵지 않네만…….”

B는 L을 오랜 시간 보아왔지만, 가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때면 진심으로 그 속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가 어찌되든 자기가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었기에 술기운을 빙자해 그러마했다.

B는 전화로 결과를 전해 듣기에는 그 진행과정이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L과 밤기차를 함께 타고 갔다가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돌아올 작정이었다.

그들은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사람들이 거의 올라탔을 무렵 동행이 아닌 양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L은 작전을 개시했다. 순간, 객차가 술렁이는가 싶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객차선반 위에 던져진 돈뭉치를 향해 있었고, 깜깜한 밤 동태를 살피는 고양이의 눈빛을 띠고 있었다. 동행이 있는 사람들은 시선을 돈뭉치에 두고 조용히 속닥거렸다.

‘거 보라구,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건 시간문제야. 어리석은 사람.’

B는 결눈질로 L을 살폈다. 초조해하고 있을 거란 생각과는 달리 태평하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하지만, B는 이미 자기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오백만 원을 받으면 무얼 하지? 이건 집사람도 모르는 돈이니 비상금으로 잘 뒤야겠군. 그래도 옷 한 벌은 사줄까? 나도 옷이 변변

참으니 한 벌 장만하고, 신발도 많이 낡았는데 하나 살까? 아니야, 갑자기 돈을 헤프게 쓰면 집사람이 꼬치꼬치 캐물을 거야. 천천히 바꿔야겠군.’

B는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혼자 실실거리기도 하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이보게, 어서 일어나. 다 왔네.”

B는 팔을 들어 기지개를 켜다 돈뭉치가 떠올라 객차 선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 찾나?”

돈뭉치를 들고 서있는 L의 손이 오늘따라 더 커보였다. 그 손아귀에 쥐여 있는 돈은 갑옷을 두른 병사처럼 든든하게 보호받는 듯 보였다. 사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주인의 책임도 있으니, 누군가가 조금만 욕심을 냈더라면 쉽게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들고 객차에서 멀어지는 L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쉬움보다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역 근처,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건지, 아니면 주인장이 부지런해서 일찌감치 장사를 시작한 건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오래된 해장국 집에서 B와 L은 속도 달랠 겸 서울행 첫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B는 L에게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확신? 그런 건 나도 없었네. 다만 요즘처럼 세상이 각박해진 이 유는 사람이 사람을, 내가 이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네. 그래서 사람을 한 번 믿어본 거뿐이야. 아마 사람들은 처음엔 나를 보고 ‘뭘, 저런 사람이 다 있어?’했을 걸세. 그러다 ‘나한테 저

만큼 돈이 생기면 무얼 할까?’ 상상들을 했겠지.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혹시나 저걸 도둑맞으면 현장에 있던 본인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괜히 휘말리면 어쩌나하는 개인주의적인 생각도 했을 테지. 감정에 흔들리는 인간이니까. 그래도 말이야. 결국엔, 내가 그 돈을 잃게 되면 속상해 할 거라는 걱정과 측은지심이 발동해, 술 먹고 사리판단 못해 보이는 내 대신 돈을 지켜준 거지. 우린 아직 살날이 많이 남았으니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은 B는 창 밖에서 손을 흔들고 서 있는 L을 보며, 잠시 달콤한 상상을 했던 미안함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술한 잔 빚진 거 잊지 말라는 몸짓으로 술 마시는 시늉을 하는 친구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는 걸로 알았다는 답을 보냈다.

“봄인데, 나 옷 한 벌만 사줘요.”

“매일 집에서 애들이나 보는 사람이 옷은 무슨…….”

“나는 뭐, 집에서 애나 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 나도 마실 줄 알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놀 줄도 안다고. 그런데 왜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이래.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옷 한 벌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나가서 노는 줄 알아?”

“누가 나가서 논대? 당신이 살림하는 나를 노는 사람 취급하잖아. 나도 계속 일했으면 당신만큼 벌었다구. 옷 한 벌쯤 굳이 허락 안 받고 살 자격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기분 좋게 그러마 해주길 바랬는데…….”

“…….”

일찍 잠자리에 든 아이들이 혹시 깨지나 않을까하는 걱정 따윈

안중에도 없을 만큼 허무하고 서러운 마음에 여자는 떼쓰는 아이마냥 엉엉 울었다.

결혼 7년차 동갑내기부부, 결혼 전 계획은 맛벌이를 이삼년 정도 한 후에 아이를 가지자는 거였다. 허나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재미를 맛보기도 전에 덜컥 임신이 되었다. 인간 만사 새옹지마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술술 풀렸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도 없었겠지.

요즘 들어 부부의 대화는 오늘처럼 서로 마음만 상한체로 끝나곤 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하늘을 봤으니 별을 만난 건데 남편이란 사람은 그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투로 항상 그녀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 물론 외별이 가장이 느낄 경제적 부담이 클 거라는 건 여자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가 된 그녀가 여섯 살, 세 살인 두 아들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그런 어려움을 이해 못하고 살림하는 여자는 집에서 논다 여기는 무심한 남자들 중 한 명이라는 게 그녀를 더 화나게 했다.

봄이기는 하지만, 새벽공기는 옷깃을 여미는 손에 힘이 들어가게 했다.

‘황금 같은 일요일에 애들이랑 한 번 제대로 놀아보시지. 아마 24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놀랄 걸?’

여자는 걱정하고 가출을 한 사람치고는 차림이 단출했다. 큰 마음먹고 집을 나선 그녀는 채 십분도 되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했지만,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던가. 무턱대고 친구들에게 전화하기도 그렇고, 결혼 후 제대로 놀아 본 적이 없으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지 막막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또 서러움이 몰려왔다.

‘그래, 바다 보러 가자. TV에서 보면 이럴 때 다 바다로 가던데, 나도 한 번 가보지 뭐. 에이~ 유행은 지났지만 집에 있는 스카프라도 하나 두르고 나올걸 그랬나?’

여자는 바닷바람에 스카프를 휘날리며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실실거렸다. 그녀는 강릉으로 갈 참이었다. 결혼 전 남편과 데이트로 몇 번 가봤기에 그나마 익숙한 곳이었다.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은 여자는 버스터미널이 있는 강변역이 가까워오자 망설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가방을 뒤져 지갑을 확인했다. 현금이라고는 만 원짜리 달랑 세 장과 천 원짜리 몇 장, 카드 두어 개가 다였다. 그녀는 다부지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했다. 이유인즉슨, 여자 이름으로 된 카드라곤 빈 잔고의 체크카드 하나가 전부고 나머지는 모두 남편 명의로 된 카드뿐이니, 자기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는 휴대폰의 문자로, 남편에게 거취가 보고 될 것이었다.

자유를 누리보자 큰 맘 먹고 가출을 감행했지만, 삼장법사 손 안의 손오공밖에 안 되는 신세라……. 남들 하나씩 차고 있다는 뒷주머니는 제 발 저려 만들어 본 적도 없으니, 호기 좋게 집을 나와서야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바보였구나 생각했다.

발목을 잡는 게 어디 돈 뿐인가. 애들 밥이며 목욕 시키는 거, 집안일까지 뭐하나 신경 쓰이지 않는 게 없었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씌워놓은 머리띠(금고아)가 여자 머릿속

에 있더라도 한 듯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벗어던지지 못한 금고아 때문에, 그녀는 강변역에서 지하철 밖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

여자가 고민 끝에 시간 때우기 장소로 선택한 곳은 영화관이었다. 그것도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을 택했다. 집이 아닌 이상에야 어디에 있든 뭐 상관인가 싶어 그냥 마음 편한 대로 하기로 했다. 아이를 돌이나 낳은 엄마가 되고 보니, 남의 시선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 혼자 영화 보는 일쯤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햄버거와 콜라로 저렴하게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고 시간이 겹치지 않게,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세 편의 영화를 예매했다.

여자는 환한 대낮에 영화관에 들어가 어두워진 밤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아직 남편에게서는 전화 한통이 없었다.

‘어쭙, 제법 오래 버티는데?’

여자는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는 지갑에 남아 있는 돈을 확인했다. 동전을 제하고 나니, 오천 원이 고작이었다.

‘커피 한 잔은 마실 수 있겠다.’

여자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끼야또를 한 잔 시켜 카페 구석진 자리에 가 앉았다. 최대한 오랜 시간 그 곳에서 버티 볼 생각이었다.

달짝지근한 커피가 목을 타고 흐르자, 짜릿한 기분까지 들었다.

‘아~ 이 해방감, 자유. 진짜 며칠 강릉에나 다녀올까?’

그런데, 아까부터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말 안 듣는 손오공을 다스리는 삼장법사의 주문처럼 쉴 새 없이 진동이 울어대고 있었다.

‘흥, 이제 슬슬 내 빈자리가 느껴지나 보지? 아마 당장이라도 회사 나가 일하고 싶을 걸? 집에서 애들 보는 일이 그리 쉬운 게 아니

라네. 아저씨.’

끓였다 다시 올리기를 반복할수록 여자는 뭘지 모를 통쾌함으로 조금 더 자유를 만끽해보려 했으나, 정작 진동이 멈추고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자,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허세를 부리다 들킨 사람처럼 멧쩍은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문자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여보, 나 ○○병원 응급실이야. 작은 녀석이…. ㅏㅏ—

여자는 앞뒤 생각할 틈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엔 왜? 애가 어떤데? 어디가 아프냐고? 당신은 애 안보고 뭐했는데?”

“어? 그게, 정말 잠깐이었는데……. 빨리 와. 당신 보고 싶어.”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는지 여자는 좀처럼 차분해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평상시 들을 수 없었던 ‘당신 보고 싶어’라는 남편의 말은 그녀를 설레게 했고, 그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하게 했다.

방향을 잃고 헤매던 눈동자가 멈춘 것은 응급실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있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였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그는 오랜 시간 병상을 지킨 환자 보호자처럼 지쳐 보였다.

“여보!”

“정말 잠깐이었어. 밥 먹다 작은 녀석이 뭘 흘려서 닦아주려고 휴지 가지러 간 사이, 자기 혼자 의자에서 내려오다 의자랑 같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나도 놀라고 애도 놀라고, 울다 토하니까 겁이 나더라고.”

남편은 고해성사라도 하듯, 여자를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다. 고개 숙인 그의 머리가 땀에 젖어 있었다. 얼마나 정신없이 뛰

어다녔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지금은 괜찮은 거지?”

여자는 괜찮다고 남편을 달래듯이,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했다.

“오자마자 엑스레이랑 CT도 찍었는데 다행히 이상 없대. 상처 난 부분만 잘 소독하면, 금방 밥을 먹은 후라 울다 토한 것 같다고.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가 어지러워하거나 토하거나하면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 한대.”

“그런데, 큰 애는 어디 있어?”

“병원 올 때 앞 집 할머니께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어.”

여자는 두 아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거실에 어질러져 있는 장난감들을 정리하는 여자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저기, 이거.”

남편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집에 굴러다니던 은행봉투인 거 보니 급조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게 뭔데?”

“얼마 되진 않아, 그래도 카드로 사는 것보단 기분을 낼 수 있을 거 같아서.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있음 사라고.”

망설이는 척 받아든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다.

‘뒷주머니도 못 차던 바보지만, 남편 비상금을 내 걸로 만들었으니 진짜 삼장법사는 나 아닌가? ㅎㅎ.’

여자는 봄맞이 가솔이 가져온 성공을 자축하며 속으로 웃었다.

수필 | 여덟 살 아들

Episode1

뒷바라지는 물심양면 모자람 없이하면서 중력을 거스르는 듯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는 고3 엄마, 나는 그에 못지않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회사에 뼈를 묻으려는 워킹맘들의 발도 묶어 둔다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다.

등교를 준비하던 분주한 아침,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툭 한마디 던진다.

“시시하다…….”

마트에 있는 진열대의 많은 장난감들을 눈으로만 만지고 상상으로만 가지고 놀아야할 때처럼 불만족스럽고 통명스런 말투다.

“아들, 뭐가?”

“인생이…….”

‘뭐라고?’

어제 초등학교 입학식을 치른 여덟 살짜리 입에서 인생이라니... 망설임 없이 튀어나온 대답에 어이없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반응해야 할 것 같아 다시 되물었다.

“왜?”

“지루하잖아…….”

헉... 8년 인생 중 많게는 5년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들과, 이다음에 커서 군대도 한 날 한 시에 함께 가고 회사도 함께 다닐 거라며 그토록 붙어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고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쫓아다니 엄마의 공도 모르고 지루하다니…… 그럼, 너와 함께한 엄마의 8년 세월은 어찌라고...

엄매이기도 싫어하고 책임감은 더 무거워하는 요즘 시대에, 나를 꽃다운 나이 스물여섯 살에 결혼해 매일 깨 볶는다는 신혼생활을 누릴 틈도 없이 첫 애 낳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둘째 바로 너 낳아 지금껏 부모님의 맏딸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던 나도 삼십구 년 인생에 미안해서 선불리 내뱉지 못하는 말을, 이제 꼭 채워 일곱 해 넘긴 여덟 살짜리 아들에게서 들을 줄은 몰랐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마음만은 많은 걸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 주고 싶은 욕심으로 너와 함께 할 재미거리를 찾아 헤매던 지난 시간들이 한 순간 의미 없이 허물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들입장에서 차분히 생각해 보니 작년 말 쯤부터 내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이제 학교가기 전 마지막 시간이야, 그러니까 실컷 놀아!”

당장 군대 보내는 엄마라도 하지 않았을 애기다.

“이제 학교가면…….”

이런 말들을 주입시키며 부담스런 자유를 누리게 했으니 본인도 모르게 긴장감이 쌓였을 것이다. 트레이닝복만 즐겨 입던 아이가 정장을 입은 듯 얼마나 불편하고 조심스러웠을까!

항상 엄마가 제일 예쁘고 좋다며 마력의 미소를 보내는 애교쟁이 아들이 인생을 논했을 땐, 조금은 부산스럽고 적극적인 엄마의 반응을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엄마는 자식 앞에서 늘 약자다.

‘아들, 엄마가 더 노력할게. 남은 인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럼 될까? 그리고 기대할게. 내년엔 행복한 아홉 살 인생이 되길 말 이야.’

Episode2

주전부리를 한 탓에 늦어진 저녁, 별로 해 먹은 것도 없는듯한데 개수대 안엔 설거지를 해야 할 그릇들이 한가득이었다.

혼자 분주히 움직이다 거실을 둘러보니 아이들이 노느라 벌려놓은 장난감, 숙제한다고 늘어놓은 교재들과 목욕하고 갈아입은 옷가지들까지 뒤엉켜 가관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거실은 나 몰라라 하고, 방으로 자리를 옮겨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애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어지럽힌 것들 엄마가 매번 치워줬지만 앞으로는 저렇게 아무데나 물건 벌려 놓으면 필요 없는 걸로 간주하고 다 버린다! 알았어?”

늘 하는 엄마의 잔소리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나와서는, 주섬주

섬 치우는 시늉을 했다. 그러는 동안, 안방에서 다 듣고 있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다.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확 갖다 버려! 안 그럴 줄 아니까,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당신은 잔소리만 늘잖아.”

안 그래도 얼마 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별명을 얻었다.

“엄마, 엄마는 잔돌이에요.”

아들이 얘기했다. 어떤 이야기 끝에 나온 말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함께 있던 딸이 동생 이야기에 반기를 들었다.

“엄마한테 잔돌이가 뭐냐?”

‘옳거니, 역시 엄마에겐 딸밖에 없어.’

감격하기도 전에 딸이 말을 이었다.

“너한테 순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 그러니까 잔돌이가 아니고 잔순이라고 해야지!”

“…….”

이렇게 난 잔순이가 됐다. 언제나 악역만 맡게 되는 입장이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나라고 할 말이 없을까.

물을 마시러 나오는 남편을 의식해 한마디했다.

“그래? 여기 말 안 듣는 제일 큰녀석 있는데 먼저 갖다 버려야겠네.”

“왜 그래…….”

내 뒤를 지나가던 남편이 머쓱했는지 툭 치고 지나가면서 말했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던 아들이 나와 남편의 대화를 들었는

지 심각하고 조심스런 목소리로 누나에게 얘기했다.

“누나, 엄마가 누나도 갖다 버린대…….”

몇 년 전,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던 길이었다. 남편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로비에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다, 지하 2층에서 싱그러운 꽃과 나무들이 가득한 화원을 보게 됐다. 초록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사실 화초 키우는 데 영 소질이 없는 나였다. 남편이 꽃도 예쁘고 향도 좋다면 가끔 사다주는 화초들을 여지없이 주인 잃은 화분신세로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키울 거 아니면 더 이상 식물은 집에 들이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내가 제 발로 화원에 들어가니, 웬 일인가 싶었는지 남편도 군말 없이 따라 들어왔다.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나도 모르는 이끌림에 들어와 쪽 둘러보고는 있었지만, 덩치 큰 녀석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무슨 의욕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화초를 기르는 재주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작은 사각도자기화분에 담긴 이름 모를 아담한 식물 하나를 골랐다.

“이거 어때요?”

같은 종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였다. 줄기모양이 특이했다. 값은 치른 화초를 주인이 포장해서 건네주며 말했다.

“이 아이 이름은 인삼벤자민이에요. 물은 흠이 마르면 주시면 되요. 예쁘게 키우세요.”

그리고 보니 특이한 줄기모양이 꼭 인삼을 닮아있었다. 작지만 통통한 줄기와 잎 하나하나에 싱그러움을 가득 품은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특별함이나 새로움이 무뎠던 한낮,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을 열고 돌아서다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이름이 무색할 만큼 마르고 말라 인삼은커녕 도라지썸밖에 안 되어 보이는 줄기, 가지에 잎이라고는 노랗게 변하고 처져 붙어있는 게 애처롭기까지 했다. 그대로 내다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럼 그렇지. 처음 화초를 사들고 왔을 때의 의욕은 여느 때처럼 꼭 그 줄기만큼 말라있었다.

‘너도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하는구나.’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그리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유독 마음이 편치 않게 만드는 녀석이었다. 목마르다 찜찜대는 아이들한테 물 한 컵 가져다주는 일은 당연히 여기면서 말 못하는 식물은 말라 죽

어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니,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으레 나는 식물 키우는 재주는 없다 치부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식이었다. 어찌 보면 최소한의 것만 지켰더라도 저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갑자기 오기가 발동했다.

‘그래! 내가 너는 꼭 살린다.’

먼저, 인삼벤자민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다.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랬다.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울 것. 추위에 약하다. 물은 손가락 한두 마디 깊이의 흙이 보슬거리면 충분히 준다.’

의외로 간단했다. 아이 둘 키우는 내가 이쯤이야, 자신감도 붙었다.

한 번 관심을 갖자, 자꾸 들여다보게 됐다. 아침에 모닝인사겸 한번, 지나가다가도 한 번, 흙이 마르지 않았나 또 확인,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상태를 눈여겨봤다.

다행히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고, 화초가 반응을 보이는 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앙상했던 가지에서 물감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맑은 연둣빛의 아주 작은 새잎이 올라오고 있었다.

신기했다. 사실 물을 주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덤빈 일이었다. 그런데, 고운 빛깔의 새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와주니 고맙고 신이 났다.

‘이런 맛에 사람들이 화초를 키우는 거구나.’

얼마 전, 엄마와의 통화가 떠올랐다.

“아빠가 친구 통해 작은 텃밭 하나를 맡아서 이것저것 심으시고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만 나면 나가보신다. 자고 일어나 나가 볼 때마다 조금씩 자라있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신가봐. 까만 열굴이 아주 더 까매졌어. 이러다 제대로 농사꾼 되겠어.”

그 애길 처음 들었을 땐 땡벌아래서 고생스러우신데 뭐가 그리 재미있을까했는데, 이제 조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았다.

그 후, 화초 기르는 재미를 조금 느낀 나는 하나둘씩 집에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마음만으로 다 잘 키워지는 건 아니었다. 어떤 녀석은 지나친 관심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줘서 과습으로 잃었고, 또 어떤 건 며칠 집을 비운사이 말라버리기도 했다.

식물도 아이들처럼 각기 다 다른 개성과 특성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지나온 일곱 해 동안 그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는 화초가 기특하기만 했는데, 너무 웃자란 가지가 얼마 전부터 자꾸 신경 쓰였다.

검색결과, 인삼벤자민은 수형을 잡아가며 가지치기를 해줘야 예쁘게 자란다고 해서 아깝지만 눈 딱 감고 가지치기를 감행했다. 그런데, 남아있는 가지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 잎들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아주 오래전에 느꼈었던 그 기쁨, 그리고 칠 년이나 지나 새롭게 알게 된 가지치기의 필요성.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원할 때, 잎이 푸르고 풍성한 그 화초를 집에 가지고 오면서 나 자신을 투영하지 않았나싶다. ‘이제 나는 건강하

게 잘 지낼 거야. 앞으로 내가 잘 돌봐줄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다.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는 식물 키우는 재주는 없어, 다 말려 죽이는 재주는 있어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돈이 많다고 그것만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식물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잘 키우는 건 아니었다.

관심,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어야 정성을 들이고 그러다보면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노하우가 쌓이다보면 그때서야 특별한 재주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최근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추위를 싫어하는 화초들이 걱정돼 일찌감치 실내로 들여왔다. 그렇다고 베란다에 그럴싸한 화단을 꾸며놓고 가꾸는 정도의 열의와 지식이 쌓인 건 아니다. 그저 나와 인연이 닿은 식물들이, 예전처럼 관심 받지 못하고 말라죽는 일은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다. 그리고 길을 지나다 혹시 마음을 사로잡는 화초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관심을 표현한다.

“우와, 넌 이름이 뭐니?”



소재수

소재수 편

소설 부적(符籍) 한 장

수필 참 아름다웠던 그 여름의 약속

시 가을에 쓰는 편지

자화상 2014

겨울비 소묘(素描)

밖에는 가을 날씨답지 않게 제법 굵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별로 가깝게 지내지는 않아도 동네 이웃여자들로부터 교장선생사모님이라 불리는 조 여사는 어둑어둑하고 온기라곤 전혀 없는 쌀렁한 주방 한귀통이에 덩그러니 자리잡은 고물 식탁 의자에 철부덕 주저앉은 채 정신이 나간 사람마냥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아무래도 오늘 낮 외출에서 겪은 일이 마냥 꺼림칙하게 머리에 서 떠나지를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 정신을 혼돈 속으로 몰고 가는 현기증처럼 느끼고 있었다.

“이년아, 벌써 죽었을 년이 여기는 어떻게 왔어. 네 주제에 아직도 세상에 뭐 미련이 남은 게 있어 안 죽고 살아서 찾아온 거야? 바보 같은 년!”

“지금 너는 껌데기야. 진짜 알맹이는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염라

대왕이 실수를 하신 모양이구만. 에이그, 모질기도 하지. 이왕에 왔으니 옛정을 생각해서 부적(符籙) 한 장 써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점쟁이의 이런 말이 아직도 조 여사의 머리에서 맴돌고, 손에는 시뻘건 경면주사(鏡面朱砂)로 요상하게 그려준 부적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 인근 원당 근처에 텃밭 조금 낀 개량농가로 이사해 살고 있는 조 여사가 오늘 다녀온 곳은 무학재 고개 넘어 산기슭으로 한참을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오래된 연화보살이라는 점집이었다. 처녀시절에 친구 따라 처음 간 적이 있는, 제법 융하다고 이름 난 여자무당 겸 점쟁이였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할 때 사주며 궁합도 거기서 보았다. 점괘는 그럭저럭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할 때도 있었지만, 교육자 남편 몰래 다니면서 진급 때만 되면 이번에는 남편이 교장 승진이 되겠느냐, 애들 시험 때면 원하는 대학에 붙겠나 좀 봐달라고 가끔 다니다 보니 점쟁이 말을 꼭 믿는 건 아니라도 답답할 때마다 하소연이라도 하는 셈치고 가끔 다니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제법 얼굴도 익혔고, 한참이나 뜸했다가 가기라도 할라치면,

“흥! 요새는 일이 잘 풀려서 좀 살만 한 게로구나. 낯짝 보기도 힘든 것을 보니”

하며, 반말 비슷하게 막말을 하여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 있게 들리는 사이가 되어있었다.

자칭 보살이라는 점쟁이의 말은 이랬다.

“지난번 왔을 때, 네 서방이 안성인가 어딘가에 가 있다고 했지?”

이건 사실이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고 두서너 달을 집에서 텃밭의 잡초나 뽑아주며 소일하던 남편은 매일매일 시계바늘처럼 생활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시간표도 없는 하루하루가 답답해서 못 견디고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해야겠다고 나가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전직 교장선생님이라는 체면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서울을 벗어나 안성인가 어딘가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고 몇적은 변명까지 해가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조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다

“맞아요가 아니고 네가 죽은 거야, 이 바보야. 너는 그때 벌써 네 남편의 손에 죽은 거야. 왜 너를 죽였는지는 지금 알려고 하지 마.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 에그, 불쌍한 것!”

이러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안쓰럽고 측은한 눈길로 한참이나 쳐다보며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그래, 이것도 너와 나의 인연일 텐데, 네년 잘못 될 것을 알면서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구나.”

하며, 접시 물에 탄 빨간 경면주사를 약지(藥指)로 한참 휘젓더니 붓에다 듬뿍 찍어서 글썽지 그림인지 알아보기도 힘든 부적 하나를 만들어 주며 말했다.

“이런 거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지만, 네년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해서 천기누설(天機漏泄)을 무릅쓰고 만들었으니, 집에 가지고 가서 하루만 이불장 밑에 두었다가 태워버려. 이 부적을 태우는 것으로 네 남편한테 죽은 너는 사라진 거야. 나머지 인생은 새로 사는

인생처럼 재미있게 잘 살아봐. 그리고 다시는 답답한 일 있어도 날 찾을 생각하지 마라. 아마 찾아와도 나를 만날 수 없을 거야.”

어둠이 점점 짙어 가는데도 조 여사는 불 켜는 것도 잊어버린 양, 오늘 낮에 겪은 일들이 좀처럼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 남편은 무려 사십여 년을 공무원 소리 들어가면서 학교와 집, 그리고는 학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지. 어느 날 갑자기 정년퇴임으로 시계추 같은 생활을 끝내고 서너 달을 친구들도 만나보고, 텔레비전 연속극도 보고, 별천지 같게 느껴지는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 아마 지난 세월이 갑자기 억울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머지 인생은 아무에게도 구속 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멋대로 즐기며 살고 싶어졌는지도 모르지.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야.’

‘그러다 보니 늘 곁에 있는 마누라가 걸림돌이 되었겠지. 혹 어느 순간에는 내가 없어졌으면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존심이나 체면을 핑계 삼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경비원으로라도 취직을 한답시고 간 게 아닐까?’

‘맞아, 틀림없어. 집에서 멀다는 핑계로 주말에나 한번 씩 다녀가더니, 요즈음엔 낚시에 취미를 붙였다며 비번 날에도 어김없이 낚시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것도 거르기 예사가 아니던가.’

‘처음에는 학교일만 알던 공무원이 처음 가져보는 취미생활이려니 이해하며 참고 넘겼지만, 아니었던 거야. 어쩌면 점쟁이 말이 맞는지도 몰라. 취직했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남편은 나를 죽인 거야. 정신적인 살인을 한 거야. 그때 나는, 이 조영실은 죽은 거야. 지금의 나는 빈 껍질일 뿐이야.’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주체할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마침내는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조 여사는 저녁도 거른 채 냉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이불장 밑에 부적을 쑤셔 넣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잠은커녕 두 눈이 말뚱말뚱한 채로 한없는 상념의 세계로 빠져들어 갔다.

‘아, 그때 나는 죽은 거로구나, 그럼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나는 누구냐? 그렇다면 그 긴 세월 동안 감정이라고는 말라비틀어진 북어처럼 일편단심 남편 하나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 이 한적한 곳으로 이사 오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그려보던 남편과의 말년 꿈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

한도 끝도 없는 생각에 환각제를 먹은 양 온 방안의 어둠속을 어지럽게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든 인간 조영실 여사는 다음날 늦게야 눈을 떴다. 어젯저녁 굶은 속이 쓰리고 얼굴은 부스스한 게 하룻밤 사이에 중병을 앓고 난 사람의 물결이 되어버렸다. 어제 일이 다시금 꿈속에서처럼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아니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죽었다 치더라도 나머지 인생은 나도 한번 내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보아라는 듯이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이불장 밑에 쑤셔 넣었던 부적을 꺼내 들었다.

‘봐라. 이 부적을 태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화장시켜 멀리 날려 보내고, 보란 듯이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내겐 그럴 권리가 있어.’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태워버리려던 부적은 남편이 오면 그 앞에 꺼내놓고 부적의 사연과 함께 자기의 결연한 각오를 보여준 후 당당하게 태워버리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교장선생 사모님 조 여사는 죽고, 인간 조영실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해 어젯저녁을 거른 배부터 채우고, 그동안 게으름을 부리느라 어지러워진 집안도 정리하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신바람이 나는 듯 콧노래도 불러가면서 들떠있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나 된 듯 자신을 주체 못하는 듯 보였다.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 느지막하게 점심을 먹고 나니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남편으로부터였다.

‘오늘 저녁 집에 감. 저녁식사 안 하고 감.’

헌 옷가지 한 보따리 들고 와서 세탁한 옷들 챙겨간 지 이틀밖에 안됐는데 무슨 일이야 의아해하면서도,

‘아, 이게 신의 계획된 섭리구나. 하루라도 빨리 나를 정리 하라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오늘이 교장사모님 조 여사의 제삿날?’

하고 생각하니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오후의 시간은 나름대로 소설에서 많이 읽어본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며,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식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밖에는 아직도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며 날이 어둡기 시작하니, 조 여사의 마음마저 슬픈지 기쁜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억누르며 안절부절못하게 만들었다.

초저녁이 훨씬 지나서야 ‘딩-동-’하고 울리는 인터폰소리에, 이제까지 갖은 상념에 넋을 잃고 앉아있던 조 여사는 깜짝 놀라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일어나 인터폰 화면 앞으로 갔다. 남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 여사의 전신이 굳어버렸다. 화면에 비친 남편의 어깨에 길쭉한 가방이 메어져 있지 않은가!

‘저건 뭐야! 엽총?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이 밤에 엽총을……? 그렇다면 무당 점쟁이의 예언이 진짜인가?’

“뭐해? 빨리 문 열지 않고, 기다리다 잠이 들어버렸나.”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조 여사는

“네, 지금 열어요.”

하며 도어버튼을 눌렀다. 그러고는 ‘철킱’하는 소리와 동시에 실내의 불부터 꺼버렸다. 무서웠다. 하루종일 다짐했던 자신감은 어디로 실종된 듯 온 몸에 한기가 엄습해왔다.

“뭐야, 불도 안 켜고. 사모님께서 깊은 잠이 드셨던가?”

약간은 빈정거리는 듯한 남편의 말이었다.

“아, 네. 깜빡 그만…….”

조 여사는 당황하며 열린 실내등의 스위치를 올렸다.

메고 온 것을 현관에 내려놓고 들어왔는지, 남편의 어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넋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있는 조 여사에게 남편이 말했다.

“아, 뭐하고 있어? 나 배고파, 금방 샤워하고 나올게.”

샤워실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 제정신이 돌아온 조 여사는 오후 내내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식탁에 차리고 찌개를 렌지 위에 올

려놓고는 촛불도 하나 밝혀서 제법 분위기를 살려놓았다.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 기죽지 말고 당당하자. 인간 조영실의 나머지 인생이 달린 일인데.’

스스로 최면 같듯이 자기를 추스르고 있었다.

저녁상 준비가 다 될 때쯤, 남편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나오다가 촛불까지 켜져 있는 식탁을 보고는 깜짝 놀랜 모습으로 주춤했다.

“웬 일이야? 오늘이 누구 생일인가? 아닌데.”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의 냄비에 이끌려 얼른 식탁에 앉았다. 특별해 보이는 식단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의아해하며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는 남편 앞에 조여사가 종이 한 장을 조용히 펼쳐 놓았다. 부적이었다.

작심한 듯, 조 여사는 숨을 깊게 들며 마신 후 어제 오늘 있었던 일과 자기의 결심을 차분하게 말해줬다.

조 여사의 설명이 끝났는데도 한참이나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얼마를 지내고 나서야 침묵을 깨고 남편이 말문을 열었다.

“그럼, 이게 당신과 나 사이에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지? 당신두 참, 그래 교장사모님 조 여사께서 겨우 무당의 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건 미신이야 미신. 그동안 나도 모르게 그 무당 점쟁이를 찾아 다녔다는 거 아냐. 이거 대단히 실망인데.”

조 여사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쪽 어깨에서 구멍 난 고무풍선처럼 힘이 쭉 빠져 나가는 걸 느꼈다.

“그럼 아까 메고 온 건 뭐지요? 나를 죽이려고 가져온 염충 아닌가요?”

조 여사는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질렀다.

“엽충? 엽충이라니, 그러면 혹시 내가 엽충으로 당신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설마 당신이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

남편의 얼굴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참 후에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간다는 듯 얼굴이 풀리면서 해명했다.

“이봐, 조 여사님, 그건 엽충이 아니고 내가 쓰던 낚시 가방이야. 현관에 놔뒀으니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봐.”

남편의 이 말은 조 여사의 나머지 한쪽 어깨 힘마저 빠져나가게 만들었다.

“사실은 말이야, 나 오늘 경비원 그만뒀어. 그래서 쓰던 낚시가방도 다 챙겨온 거야. 그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어. 역시 당신이 늘 곁에 있는 우리집이 제일인 걸 알았어.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이 집으로 이사 올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인생을 함께 보람있게 보낼 생각이야. 당신도 잘 지켜보라구, 나도 다 늦게 철이 든 모양이지? 히히히.”

그러면서 멋쩍게 웃는 남편을 보고 있으려니, 조 여사는 남아있던 두 다리의 힘마저 몽땅 빠져 나가는 듯이 맥이 풀린다.

“아, 뭘 그렇게 낮을 놓고 있어. 자, 찌개 식기 전에 밥부터 먹자구. 나 배고파.”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겨우 의자에 앉은 조 여사는 한참만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적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럼 저 부적은……?”

“부적? 글썄……아, 마침 잘 됐군. 이왕 당신을 위해 만들어준 거라니까 이리 와서 같이 붙잡고 저 촛불에 태워버리자고. 응? 우리 둘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일렁이는 촛불에 활활 타오르는 부적을 보며, 인간 조영실 여사의 두 눈에서는 지나간 많은 시간들이 녹아든 회한의 눈물이 불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필 | 참 아름다웠던 그 여름의 약속

온고지신(溫故知新) 6

‘띠리링……띠리링……!’

새벽의 적막을 뚫고 알람이 귀청을 울린다. 오늘 새벽 친구들과 낚시 가기로 약속하고도, 혹여나 실수할까 싶어 맞춰놓은 양증맞은 탁상시계에게 새벽 네 시에 깨워주기로 부탁한 약속을 훌륭히 지킨 것이다.

그렇고 보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언가와 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오히려 약속 아닌 것이 없다고 함이 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만약에 약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무엇 하나 제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없이 큰 혼란 속에 한시도 견딜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교통질서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기차나

자동차들은 어찌 다닐까?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약속이 없다면 과연 한시라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약속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문혀 살면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어렸을 때의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각종 오락기구나 풍부한 놀이기구에, 심지어는 스마트폰이라는 만능친구와 같이 자라는 지금 세대의 어린이들과는 달리 땅따먹기, 비석치기, 남자아이들의 자치기놀이, 여자아이들의 고무줄놀이 등 자연 친화적인 단순한 놀이와, 저녁이면 입담 좋은 동네의 어느 할머니가 재탕 삼탕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의 추억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녀와 나무꾼’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중의 하나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내용이지만, 핵심은 역시 ‘약속’이었다. 아이 셋을 낳아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옷을 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나무꾼이 잠시 잊고 아이 둘을 낳았을 때 그만 선녀와의 행복했던 정에 방심하여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옷을 내주었는데, 선녀는 옷을 보자마자 입고는 양 옆에 아이 하나씩을 끼고는 하늘나라로 날아가버렸다는 그저 그런 이야기지만,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좀 싱거운 이야기다.

이왕에 약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육이오 피란시절에 경험한 어떤 기억 한 가지가 떠오른다.

육이오가 나던 해 우리 가족은 서울이 다시 수복될 때까지 피난도 못하고 서울에서 겪은 갖가지 참혹하고 힘든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그 기억 때문에,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피난 대열에 올라, 진해를 거쳐 충청도 외가로 가서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약 2년여를 보낸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다. 농기구나 농약이 오늘날처럼 흔치 않았던 그때의 더위는 논에서 김을 매는 농부나 밭에서 피약별 아래 하루종일 밭을 매는 아낙들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더위에 찌든 농촌사람들이 그 더위를 식히는 방법이라야 일을 끝내고 우물가에서 시원한 샘물로 등목을 하는 정도였다. 이마저도 아낙네들은 남녀가 유별한 시절에 훌훌 벗고 시원한 샘물로 더위를 식힐 마땅한 방법도 없었으니, 에어컨이니 샤워니 하는 문명의 혜택 속에서 여름을 보내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애처롭고 힘든 여름나기였다.

그런 피난생활 속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는 여름나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삼십여 호가 웅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 끝자락 얇은 산모퉁이를 돌아서 얼마를 가면 서당골이라는 천연의 약수터가 있었다. 오솔길에서 꺾어져 숲이 우거진 샛길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서당골은 밖에서는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수량도 풍부하고 샘물은 발이 시릴 정도로 차가워서, 몇 명이 동시에 목욕을 하여도 충분할 정도로 아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옛날에는 식수로도 사용되었으나, 동네 공동우물이 만들어진 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용도가 폐기된 우물이 되어버렸지만, 초여름이 되면 동네청년들이 하루 품을 내어서 진입로도 정비하고 우물가도 말끔하게 청소하여 한여름의 더위를 씻어

내기 충분하게끔 손을 보곤 한다는 것이다.

저녁들을 먹고 큰집 마당의 평상으로 모여 모깃불로 모기를 날리다 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원하게 목욕이나 하고 와서 수박이라도 먹지’ 하면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수건 하나씩을 허리에 차고 서당골로 향하게 된다.

처음에는 나도 덩달아 수건 하나 챙겨 들고 따라가 보았다. 한데, 어른들의 뒤를 쫓령쫓령 따라가던 나는 어린 소견에도 문득 ‘동네아주머니들이 먼저 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당골로 꺾어 들자 어둠과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보이지는 않지만 먼빛으로도 우물 입구엔 여인들의 허연 속치마가 나무에 걸려있고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어른들은 ‘응, 오늘은 여자들이 먼저구만’ 하며 근처 너럭바위 위에 다리를 쭉 뻗고 둘러앉아서는 괴춤에서 삼지를 꺼내서 담배 한 대씩을 피워 물고 느긋하게 잡담들을 나누고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나만 걱정스러운 눈을 꿈벅꿈벅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려니, 아낙네들 대여섯 명이 고개를 외로 돌리고 ‘으이,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며 동네를 향하여 종종걸음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어른들이 담뱃불을 비벼 끄며 ‘어이, 광식이 자네 잠뱅이(잠방이)좀 걸쳐놓고 들어오게’ 하며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서당골 샘터에 들어섰다. 광식이라고 호명된 어른은 입구에 아까 보았던, 허연 치마가 걸렸던 나뭇가지에 잠뱅이를 벗어 걸쳐놓고 들어왔다.

시원하게 샘물로 더위를 날린 우리는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수박

을 먹으며, 매운 모깃불 연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달려드는 모기를 연신 손으로 쫓으면서 농사일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더위를 달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서당골에서 목격한 치마와 잠방이에 관해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평소 나에게 곱살갑게 해주던 광식이 어른에게 물었다.

“광식이 아저씨, 아까 배잠뱅이는 왜 나무에 걸쳐놓고 들어갔어요?”

그분은 내 물음에 장난기 어린 꿀밤을 한 대 먹이며 말했다.

“이 깡통대가리야, 왜 잠뱅이를 걸어놓고 목욕을 했는지, 보고도 모르겠단 말이냐?”

“글쎄요.”

“글쎄요는 무슨 글쎄요냐, 요 녀석아.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남 녀가 유별한데 아무 기척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오래전부터 먼저 샘에 온 사람이 표시를 해두는 게지. 이를테면, 여자들이 목욕을 하게 되면 초입에 있는 나뭇가지에다 깜깜한 밤에도 잘 보이도록 흰색 속치마를 걸어 놓아서 ‘여인네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중이요’ 하는 뜻이고, 또 남정네들이 목욕을 하게 되면 허연 잠뱅이를 걸어두어 ‘지금은 남정네들이 목욕 중이요’ 하는 표시지. 이렇게 되면 서로 실수하지 않고 안심하고 목욕을 하게 된단 말이다. 이제 알겠냐? 이 깡통머리야.”

그러면서 또 한 번 군고구마처럼 부드러운 꿀밤을 먹였다.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 동네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놓은 약속이야. 어때, 시골사람이라고 함부로 보고 무시하면 안 되겠

지?”

“듣고 보니 그럴듯한데요.”

나는 지금도 더운 여름에 외출에서 돌아와 샤워를 하다가 가끔은 그때가 생각나서 혼자 웃곤 한다.

속치마와 잠방이의 약속. 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약속인가.

손가락 걸고 힘차게 흔들며 하는 약속도 믿지 못하여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팡팡 찍어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어겨서 소송을 합네, 차압을 합네 하며 난리를 치는 야박한 세태에 살고 있으려니, 시원한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무더위의 끝머리에서 새삼 피난시절에 경험한 소박한 시골 우물가의 속치마와 베잠방이처럼 아름다운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이 그리워진다.

시 가을에 쓰는 편지

이 가을엔
파아란 하늘에다
흰 구름 듬뿍 찍어
편지 한 장 쓰립니다.

새카만 눈망울에 이슬 감추고
토끼풀 반지 낀 손 아쉽게 흔들며
세월의 긴 터널 끝으로
낙엽 따라 가버린 소녀에게

늘 머뭇거리다 못 다한 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가을엔 편지를 쓰립니다.

갈대 속삭이던 그 강 언덕에 앉아
낙엽 출렁이며 흘러가는 강물
당신 문득

눈을 들어 파아란 하늘을 보면
내 마음 보일 테지요,

‘꼭 한 사람 당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이 파란 가을엔 당신에게
가을 편지를 쓰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 글썄요. 아마 늦여름 미루나무에 붙어서
폼을 잡고 있던 속이 텅 빈 매미 껍질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글썄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데요.
한 오십년을 이불 속에서 도둑숨을 쉬다가 왔거든요.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매미 껍질은 속이 비었다니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매미 껍질은 미루나무에 붙었지요.

아-대답이 없으면 당신이 무안하시겠지요.

어제는 지하철을 탔는데 졸다 보니
두 정거장이나 더 갔더구만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뇌 속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복도 쪽에 난 찌그만 창을 열고 담배 한 개비를
날숨에 섞어서 껌싸게 날려 버리고
소파에 털부덕 앉아 TV를 보려니
4번 5번 척추 매디가 아프다고 야단입니다.

분수도 모르고 낮에 미끈미끈한 항아리를
나 혼자 옮기는 만용을 부린 게
트집인가 보네요?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아이디어란 게
그저 파스 한 장에 안녕을 부탁하며
낮잠이나 청하려구요.

이게 지금의 나입니다.

이게 지금의 나입니다.

시 겨울비 소묘素描

동굴 속 거미처럼 심난하게, 음산하게
지하철 3번 출입구에 겨울비가 내린다

찢어진 비닐우산 사이로 비집고 내려와
색 바랜 바바리 코트 깃을 적시던 비
을지로 전차길 위에 50년 전에도 내리던 비

지하철 3번 출입구엔 겨울비가 내린다

이제는 엄지손만 닿아도 자동으로 활짝 펴지는
매끈한 피에르 가르팽 검정 우산 위로
타닥 타닥 드럼을 치며 내리는 비

지하철 3번 출입구에도 겨울비가 내린다

백원에 두 개 짜리 국화빵 할머니를
오늘은 빵-치게 하고 아랫목에 누어 드리는
찜질 파스처럼 따뜻하고 착한 녀석

겨울비가 내린다. 지하철 3번 출입구에는



서경숙

성정숙 편

수필 굴비말리기

잡초랑 개나리랑

나는 고양이를 생각하면 왠지 음산한 기분부터 든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고양이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다. 들어온 이야기들도 주로 양젖음하는 고양이에 관한 것 이어서 개인적으로 별로 다가가고 싶은 동물은 아니다. 울음소리만으로도 오싹한다.

내가 살던 시골엔 고양이가 지천이었다.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길에 한두 마리는 사고를 당해 죽어있었다. 그 덕에 시골치고는 쥐가 없는 것은 다행이었다.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싶다가 어느 날은 눈에 잘 띄지 않곤 했다. 이장님 말씀이, 정기적으로 약을 놓는다고 하셨다. 그러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된단다. 불쌍한 생각도 들긴 했지만 오죽하면 그리할까 싶었다.

마당 있는 집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한 들을 할 수 있다. 마당에서 바비큐를 할 수 있고, 햇볕에 빨래를 말리고, 장독대도 열어

놓고, 굴비도 말리 수 있다.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조기가 많이 잡힌다. 몇 년 전, 목포의 조기시장 얘기가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주말에, 나와 엄마는 조기 사러 목포로 향했다. 많이 잡힐 때는 축제처럼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갔을 때는 행사도 끝난 때고 조기도 그리 수량이 많지는 않았다. 조기와 해산물을 이것저것 샀다. 기름값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었겠다 싶기도 했지만, 바닷바람도 쐬고 나쁘진 않았다.

제대로 된 굴비를 먹어보겠노라고 조기의 비늘을 벗기고 진한 소금물에 담갔다가, 옷걸이를 잘라 고리를 만들어 하나씩 아가미에 꿰어 빨랫줄에 널었다. 굴비는 바람맞고 눈 맞고 얼었다 녹았다 해야 맛있다고 했다.

언젠가 선물 받은 굴비를 좀 더 말려 먹겠다고 창고에 넣어놓았는데, 고양이가 자전거를 딛고 올라가 줄에 걸려있던 아까운 굴비를 세 마리나 채갔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라 잔디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빨랫줄을 매고, 중간에 장대를 세워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해놓았다. 혹시라도 장대를 치고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염려되었지만, 그것까지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쭉 널려있는 조기들을 보니 자린고비처럼 밥 한 수저 먹고 조기 한번 쳐다봐도 간이 느껴질 것 같았다. 우리집에 굴비 말린다는 소문이 온 동네 고양이들에게 퍼진 듯했다. 낮이고 밤이고 고양이들이 그 밑에 와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집 누렁이가 짖어댔다.

고양이들은 조기 밑에서 팔짝 팔짝 뛰고, 장대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정자 지붕에 올라가 뛰어내리며 잡아

보려고도 하고, 줄을 매놓은 향나무에도 올라가 넘보기도 하였다. 지켜보자니 내 조기를 굴비가 되기 전에 가져갈 것 같은 염려도 되면서, 한 편으로는 그들 하는 양이 우스워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는 새끼고양이 세 마리가 장대 밑에서 팔짝팔짝 뛰었다. 어린 것 치고 안 예쁜 것이 없다더니, 그 하는 양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한 마리 떼서 줄 번했다.

그해에 나는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조기를 온전히 굴비로 만들었다. 어린 것들한테 한 마리, 아니, 머리라도 떼어줄 것을 하는 후회도 되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귀한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바람 맞고 눈 맞고 얼었다 녹았다하며 말린 굴비의 모양과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쫄깃쫄깃하면서 적당한 간. 아마 그리 큰 굴비는 대여섯 마리에 십만 원은 족히 넘지 않을까 싶었다. 나는 구정 선물로 그 굴비를 외가에 들고 갔다. 대환영이었다. 재미가 들려 겨울만 되면 굴비 말리기를 몇 년 동안 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기대를 한껏 안고 우리집 빨랫줄 아래로 모여 들었다. 나는 그들의 하는 양을 지켜보며, 굴비를 뺏기지 않으려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다.

어느 해인가는 찬바람이 불기 전에 굴비를 말리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고양이보다 파리들이 먼저 몰려왔다. 고양이는 하는 양을 집안에서 지켜보고 경계할 수 있겠건만, 파리는 아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 표도 안 나고 고양이처럼 조기를 마리째 잃을 염려도 없건만 불결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종일 옆에서 파리채로 잡거나 □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날아다니는 것들은 무슨 재주로 당하겠는가. 나는 결국 굴비를 빨랫줄에서 거두어들였

다. 굴비말리는 데는 고양이보다 파리가 더 고약한 상대라는 걸 그때 알았다. 차라리 밑에서 노리기만 하는 고양이들이 고맙기까지 했다. 그날로 굴비들은 냉장고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고양이도 파리도 빛도 바람도 없는 서늘한 곳에서 수분을 말리게 되었다.

절대적으로 굴비는 찬바람들 때, 높은 곳에서 말릴 것.

나에게 봄의 초록은 캠퍼스에 줄지어 서있는 은행나무의 엄지손톱만한 이파리 색이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나에게 봄의 초록은 잡초를 의미한다. 봄의 기운을 느끼기도 전에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 잡초다.

정원이 있는 집에 살아가기 전에는 풀은 풀이지, 그것을 잡초라 부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땅에다 마음대로 뭔가를 가꿔보리라 마음먹고 행해본 사람이라면, 봄을 느끼기도 전에 땅을 파고나오는 그 조그만 말쑥꾼들을 보고 한숨지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과의 전쟁은 시작된다.

너무 뿌리가 내리기 전에 뽑아야 잘 뽑히기에 엄지와 검지를 집게 삼아 110도로 고개를 꺾고는 말쑥꾸러기들을 찾아 뽑아낸다. 그러나 그때뿐, 다음날 나와 보면 더 많은 방해꾼들이 올라온다. 그들은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봄의 초입부터 여름이 넘어가는 때까지

지 그들과의 전쟁은 끝이 없다. 급기야 사람들은 잡초를 견디다 못해 제초제를 뿌린다. 나도 마당에 대책 없이 동아나는 풀을 없애느라 그것을 뿌려본 적이 있는데, 땅은 푸른빛을 띠고 한 달 동안 풀이 나지 않았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잡초와의 인연은 14년 전 주택에 살게 되면서 부터였다. 내가 그 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나는 주택에서 살아보겠다고 결정하고 집을 몇 군데 보러 다녔다. 그런데 나의 상상과는 달리 내놓은 집들은 대부분 마당이 시멘트로 발라져 있었고,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를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던 차에 그 집을 만났다. 11월이었음에도 집 전체에 햇살이 그득하니 따뜻해 보였다. 넓은 잔디밭과 정원수가 잘 가꾸어져 있는 그 집은 단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 담 너머로만 엿보기를 두세 번 하다가, 늦은 밤에 주인이 퇴근한 후에야 집 안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내부는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 사실 처음 내 이름이 소유자명이 되는 집을 갖는 순간이었다. 당시는 평생 여기서 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집을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집 가꾸기를 취미로 삼고, 출근 전과 주말에 집에서 일을 하며 보냈다. 내 집이 생겼다는 것도 즐겁고, 정성들인 만큼 변해가는 집을 보면서도 좋았다. 정원의 나무들을 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전지했다. 새벽에 일어나 정원돌보기 작업을 한 다음 출근하고, 주말에는 잔디밭 잡초를 뽑고 잔디를 깎았다. 남들은 보너스를 타면 옷을 사고 가방을 산다는데, 나는 그 돈으로 집을 고쳤

다. 주말이면 집 안에서 노동을 즐기며 보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는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기와 시간이 한정되어있다. 여름에는 해가 뜨면 바로 들어와야 했고, 저녁에는 모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봄과 가을은 일하기 아주 좋으나 너무 짧았다. 5월만 되어도 낮에 밖에서 일하기에는 별살이 뜨겁고, 10월 중순이 지나면 서늘함이 밀려와 새벽에 일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10년을 가꾸면서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시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다르고, 전지하면 나무들도 아파한다는 것, 아파야 예쁘게 자랄 수 있다는 것, 약자는 강자에게 먹힌다는 것,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 아름다움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유한다는 것은 항상 수고를 동반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나의 노동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잡초 뽑기였다. 어제 모두 뽑았다고 생각한 잡초가 아침에 나가보면 다시 빼죽이 잔디 위로 솟아 있었다. 재미있게도 잡초는 자기가 있는 곳의 주류식물과 모양이 유사하다. 잔디밭에 나는 잡초는 잔디와 비슷한 것이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순히 잡초인 관계로 잔디와 차별되어 뽑힌다. 뽑고 보면 뭐 그리 모양이 흉한 것도 아니고, 잔디처럼 돈 들여 심고 정성들여 가꿀 필요도 없음에도 그들은 사정없이 뽑혀졌다. 그들은 빠르게 자라려는 속성 때문에 잔디가 아님을 들켜 사정없이 뽑힌다. 아마 그 성장이 둔화된다면 뽑히기보다 키워질 것이다. 정말 귀찮아서라도 그리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병중에 계셨을 때,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정원은 밀림을

방불하게 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흉한 꼴이 되었다. 잡초들은 내가 애지중지 가꾸는 것들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내 것을 지키려니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봄이 되면 내 마음속에는 노란 개나리 덩굴이 쳐진다.

내가 개나리를 좋아하게 된 것은 이십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다. 어느 봄날 친구와 남산 언덕길을 오르는데, 왼쪽 길을 따라 너무도 소담스럽게 연이어 피어있는 노란 모습이 나를 온통 사로잡았다. 길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한참을 걸어도 계속 개나리를 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무슨 꽃을 좋아하냐고 하면 ‘개나리’라고 말한다.

나는 주택을 갖게 되면 담을 개나리로 만들 것이라 마음먹었었다. 꿈은 이루어졌다. 개나리가 꺾꽂이 식물인 걸 알기에, 주변에 흔히 있는 개나리임에도 들키면 어찌나 마음 졸이며 열 가지 정도 잘라왔다. 그리곤 마당의 한 귀퉁이를 잡아 개나리 가지를 꽂았다.

봄이 되어도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들은 무성히 자랐다. 일 년 내내 잘라서 옮겨 심었다. 그렇게 하니 3년이 되기도 전에 개나리로 담을 모두 두를 수 있었다. 봄꽃이 거의 그렇듯, 개나리도 꽃이 지고 나니 잎이 나왔다. 꽃이 질 때도 떨어지는 자국을 별로 남기지 않고 작은 잎을 열었다.

그렇게 착하게만 생각했던 개나리를 어느 해부터인가 심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담을 두른 개나리는 자르지 않고 놔두었다가는 길을 막아버릴 기세였다. 매주 전지를 해주지 않고는 담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전지가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주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전지기계를 샀다.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고, 모양을 자유로이 낼 수 있어 우리집 정원은 날로 예뻐졌다. 나는 개나리 울타리를 산등성이 모양으로 구불 구불 잘라도 보고, 집 안쪽은 높게 바깥쪽을 낮게 하여 경사진 면이 밖에서 더 예쁘게 보이게도 잘랐다. 그리고 김천 직지사에서 본 개나리 나무처럼 만들고 싶어 하나를 골라 굵은 가지만 남기고 옆을 잘라내어 나무로 가꾸보기도 했다. 왕성한 번식력을 지닌 개나리가 잔디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선을 정해놓고 월경가지는 모두 잘라버렸다. 출근하기 전에 새벽부터 전지기계를 들고 나가 이틀에 걸쳐 다듬고, 그 잘라낸 것들을 손수레에 실어 집에 들여다 말렸다가 주말에 소각시켰다. 그러다 보니 노동량이 잡초 뽑기에 버금갔다.

전지를 하고 나면 그해에는 그 자리에 꽃봉우리가 잘 맺지 않는다는 것을 몇 년 후에 알았다. 천변이나 언덕에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늘어져서 꽃을 피우는 수목을 정원수로 가꾸려니, 나무도 괴롭고 나도 괴로웠다. 보려던 노란 꽃은 원한 만큼 실컷 볼 수 없었고, 무성한 잎들만이 나의 개나리 담장을 장식했다.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나오고 척박한 땅도 마다않고 자라는 개나리는 잡초만큼 번식력이 좋고 생존력도 강했다. 자연과 잘 지내고 싶어 정원 있는 집으로 이사했는데, 자연과 전쟁을 치루고 있었다. 흔하고 생명력이 강한 것은 귀히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봄이면 개나리꽃 구경 가는 사람은 드물지만, 벚꽃놀이 가는 사

람은 많다. 여기저기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꽃구경 행렬이 이어진다.

내가 살던 곳은 전국에서 벚꽃을 보러 오는 송광사와 내장산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지금은 예전 같진 않지만, 전주에서 군산까지 벚꽃 백리길이 있다. 나는 그 고장에 가서 처음 몇 년은 벚꽃의 아름다움에 취해 살았다. 벚꽃이 필 때는 일부러 출근길을 우회해 전군가도의 벚꽃을 즐겼고, 주말 새벽에는 송광사의 아무도 없는 벚꽃길에서 벚꽃을 보며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내장산 벚꽃 축제에도 몇 번 갔다. 필 때도 아름답고 피서도 환하고 질 때도 눈처럼 날리는 벚꽃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꽃이 지고 나면 내가 언제 꽃이었냐는 듯, 그 큰 나무동지를 틀고 앉아 시원한 잎들을 드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줄지어 모여 있기에 벚꽃은 사랑 받는 것 같다. 큰 나무에서 피어나는 벚꽃을 보니, 잔가지에서 화려함 없이 지는 개나리가 안쓰러웠다.

나에게 봄의 색들을 다른 느낌으로 가져다준 그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많은 것을 배웠다. 결코 사람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다. 자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들은 무엇일지를 묻고 또 물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해본 사람만이 안다. 보여지는 것 뒤에는 항상 수고로움이 있다. 잡초가 뽑힌 자리에 물이 스며들어 땅을 부드럽게 하고, 잡초 덕분에 나의 것들 더 보살필 수 있었다. 개나리는 개나리의 자리가 있음도 알았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면서 어머니는 큰 집을 지킬 나의 노후를 걱정

하시고, 나는 잔디밭의 잡초만 봐도 심란해졌다. 그러나 10년을 정성들여 가꾼 집이어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내놓으면서 꿈속에서도 울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니, 그리 편할 수가 없었다. 그땐 그 집에 어찌 살았을까 싶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도 주택얘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운다. 아주 작은 텃밭이 달린 조그만 한옥에서 개나리를 아름드리나무로 가꾸며 살고 싶기도 하다. 불쑥 없애버리고 싶기도 했던 개나리 담이 그립다.

올해는 꼭 남산에 개나리를 보러 가야겠다. 아직 남산에 개나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난 개나리를 믿는다. 아스팔트로 덮지 않는 한, 그 생명력을 절대 제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서향근

서향근 편

수필 수상한 행복느낌
정의의 이름으로
할머니의 가을

친정어머니의 생신으로 온 가족이 모였다. 근사한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 중에서 제일 똑똑한 동생이 어머니께 질문을 했다. 일생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는지,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은지 여쭙었다.

우리들은 어머니가 생각에 잠겨있을 동안 저마다의 이유를 대며 어머니의 대답을 상상하고 있었다. 혹시 아버지를 만나기 전이라고 한다면 멋진 남자를 만나 황홀한 결혼생활을 다시 하고픈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이고, 자녀들이 어릴 때라고 한다면 자녀를 더 훌륭히 키우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사위들이 눈에 안 차니 다시 결혼시키고 싶은 것이라 생각하고 어머니의 대답이 궁금하였다.

우리는 예상 밖의 대답에 다 놀랐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건강이 조금은 남아 있을 때에 마음만 먹으면 남을 위해 몸

으로 일할 수 있었던 그 나이를 그리워하셨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비슷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가장 행복한 나이는 어떠한 꿈도 다 꿀 수 있고 또한 다 이룰 것 같은 23세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불행했던 나이는 55세인데,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자녀는 다 떠나보내어 외롭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나하는 후회로 제일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요사이 칠십대 할머니가 인생의 제일 꽃다운 나이인 이십대 아가씨로 되돌아가 살아가는 내용으로 ‘수상한 그녀’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다.

나는 몇 살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어떠한 꿈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이십대도 좋았지만, 무작정 꿈만 꾸도록 놓아두지 않는 현실이 있었다. 과연 내가 정해놓은 꿈만 성취한다고 잘 산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나를 사십대로 되돌려보자. 중학생 하나와 세 명의 초등학생을 키울 때라 집안 일이 너무 많았다. 날마다 세탁기를 돌려야 하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네 개씩 싸는 일은 힘들었다.

어느 날 친구와 조용한 공원에 앉아 시내를 바라보며, 어서 빨리 아이들이 다 컸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친구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다 가버린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리기도 하지만, 그 시간으로 내 인생을 되돌린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볼 문제다. 아이들에게 더 상냥하지 못했고 친구처럼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 후회가 된다. 그러나 내 과거의 조건—아이 넷에 남

편 뒷바라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산다면, 내가 지나온 과거보다 지금은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정신의학자 에드 디너 박사의 개인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설문을 보면, ‘지금 나의 삶은 나의 꿈과 아주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질은 훌륭하다고 느끼는가? 현재 나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가? 내 생활을 통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얻고 있는가? 더 살아도 내 삶의 틀을 바꾸고 싶지 않은가?’ 라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행복을 측정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OECD국가 중에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거·소득·공동체·교육·환경·시민여가·삶의 만족도·안전·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항목을 분석하여 행복지수를 만든다고 한다. 행복을 숫자로 측정하기 위해 많은 기준을 만들지만, 어떤 행복지수의 기준에 따라서는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통계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행복의 기준을 두어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훌륭한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고,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삶의 덕목이었던 용기와 정의, 우정과 친절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다.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은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맞게 속이 채워지듯이 용기·정의·우정·친절이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이해와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행복의 출발점에 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본인의 짐은 조금 벗은 상태이면서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줌으로 본인의 삶이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이제는 너무 오래 살아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신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노예 12년’을 오랜만에 친구들과 관람했다.

이 영화는 일반적인 노예의 비참한 삶과 기구한 인생이야기와 12년이라는 제한적인 노예생활을 제목에서 드러내주고 있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줄거리다.

1841년에 태어난 주인공은 흑인남자로, 미국 뉴욕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잘나가는 음악가이며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인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노예로 팔려간 그는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외쳐보지만, 모든 흑인은 노예라는 공식이라도 있듯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다른 노예들의 처참한 죽음, 백인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해가는 여자노예들, 한 인

간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여기저기 팔려 다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그는 자유의지와 자존감을 자기의 의식 속에서 삭제하고,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복종의 수치심을 본래 제 것인 양 받아들이기로 했다. 많은 매질과 노동, 굴종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 만큼 그의 의지는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린 노동 착취자인 노예주인들은 노예들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만 노예들을 위한 자비는 없었다. 주인공은 악독한 주인들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당신을 응징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가 자유인이 되는 길은 험하고 멀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주인의 한 친구에게서 ‘현재의 노예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며, 언젠가 변해야 할 법’이라는 말을 듣고는 한 가닥 희망을 보며 용기를 얻게 된다.

드디어 12년 만에 자유인의 신분을 되찾은 그는 노예해방운동과 체험담 출판에 자기 일생을 바치며, 도주노예의 조력자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죽은 시기와 장소,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자막이 뜰 때, 두 시간 내내 마음 조이며 주인공이 하루빨리 자유인이 되기를 고대하던 관객들에는 또 다른 공포감과 좌절감이 밀려왔다. 비록 다시 자유인이 되기는 했어도 노예주인들에게 결국 피살되었으리라고 상상하도록 만든 작가의 서술기법이 뛰어나 보였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과 노예주인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소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구성과 정치작용 원칙을 정하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라고 하지만, 노예나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 그 당시로서는 당연히 기본적 인권 보장은 노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구일 뿐이었으리라. 인간의 필요와 편리함 때문에 노예법이라는 악법도 생기지만, 그 악법도 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역사적 심판을 받아 없어지기도 한다.

영화를 감상한 느낌도 다 다르다. 그 노예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기도 하겠지만,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다행이구나 싶기도 할 것이다.

성경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곧 뒤이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한다. 실로암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아 망대에 깔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영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전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노예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폭군 노예 주인들의 자기 합리화와 비슷하다.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감사하다는 이기적인 사고의 전제가 문제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남의 불행을 나와 비교하여 나의 감사와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나의 삶이 정의로운가,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요, 마음으로만 믿는 종교가 아닌, 실천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닐까?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이젠 내 이웃을 찬찬히 돌아보며 느리게 가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살자.

데카르트는 ‘생각하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고 말했지만, 최근 뇌신경학자들은 ‘존재하므로 나는 생각한다(Sum ergo cogito)’라고 반론한다. 데카르트는 사유와 지적활동을 인간 존재의 최우선적 가치에 두었지만, 뇌신경학자들은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지적활동은 당연지사임을 새롭게 부각하는 뜻으로 보인다.

첫 손녀의 외갓집 나들이로 한여름의 더위만큼이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떠나보낸 후, 딸과 손녀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대청소를 했다. 손녀가 입었던 옷가지와 장난감들을 딸이 종이박스에 넣어서 벌써 베란다에 정리해놓은 상태라 그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어릴 적 가을소풍 보물찾기를 하듯이, 먼저 찾은 사람이 탄성을 지른다. 그렇지만 천정에 매달아 놓은 반짝거리는 별

풍선, 냉장고 속의 바나나 우유, 비눗방울 통 등이 고작이었다.

손녀가 지금이라도 재잘거리며 나타나 치마를 붙잡고 주저앉는 착각에 빠진다.

“할머니, 우리 놀자.”

“할머니는 아빠, 난 엄마.”

이중사촌을 오전 내내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던 말.

“언니는 왜 빨리 안 오지? 구름 뒤에 숨었나 봐.”

모녀간에 퍼즐 맞추기를 하다가 엄마가 일부러 못 맞추는 듯 우물쭈물하자, 어린 것이 하던 핀잔.

“엄마, 퍼즐은 전체 그림을 생각해야 돼.”

이제 과연 네 살배기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이젠 아빠 만나러 집에 간다고 엄마가 비행기 안에서 설명하자, 어린 것이 했다는 말.

“비행기가 어떻게 우리 아빠 집을 알지?”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과 한낮의 따끈한 햇살로 가을이 내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긴 추석연휴도 끝나고 모든 게 복잡하게 돌아갈 시장을 상상하며, 토요일 아침 재래시장에 나갔다. 시장 안의 김밥집과 감자탕집은 아직 문을 안 열었다. 대형마트에서 한 곱 오천 원인 대추토마토를 두 곱 오천 원에 팔고 있는 가게주인은 반듯하게 생긴 총각들이다. 알록달록한 운동화가 가지런히 땅바닥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켄레에 만원이라한다. 손칼국수는 이천구백 원. 과거 몇 년 동안 재래시장의 물건 값은 별로 오르지 않은 걸 보니 서민들

이 살기 힘든 시기라 생각이 든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러온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큰 응원을 보냈다.

‘여러분, 모두 실망하지 말고 힘냅시다. 우린 모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십여 년 전, 인간의 수명을 칠십 세라고 가정하고 하루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 내 인생 시간은 오후 다섯 시가 넘었다. 이제 인생 백 세시대를 부르짖으며 내 시간을 보니 아직 오후 두 시 반밖에 안되었다. 시간상으로는 십년이 지났지만, 수명기준에 따르면 나는 더 젊어진 셈이다. 십 년 전 오후 다섯 시는 학교와 직장에서 돌아올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음에 조급함이 났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간다는 것에 적잖이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사진을 의미하는 photo를 foto라고 표기한 나라도 보았다. 요즈음은 발음을 위주로 철자를 바꾸어서 고유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아, 자칫 정신을 놓고 있다간 내가 벌써 저 단어도 잊어버렸나하고 놀라게 된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준을 선과 악을 구분해서 확실히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어른도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고 부모도 외로울 때가 있고 이따금 이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하고 나니, 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던 기억이 난다.

나는 아직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다. 가치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연 내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말한 대로 살았다고 할지 궁금해서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어른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 두렵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우는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에게서 삶의 원칙인 정직, 성실, 사랑만 배우고 자신의 삶 때 순간마다 그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어느 날, 9988234라는 숫자를 보면서 남편은 건강하게 살다가 이삼일 앓고 죽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했다. 난 이삼 일 만에 죽으면 멀리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유언도 할 수 없으니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곧바로 드는 생각이, 평생 살면서 보여준 말과 행동이 유언인데 죽기 전에 별다른 말이 필요하기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즈음 식품이나 화장품, 음식까지 항노화, 노화방지하면서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 당당하게 백세를 준비해야하는 이 세대에 걸맞은 말인가, 진정 건강한 사회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생명체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브리슬콘 소나무가 네바다 사막의 험한 지형에서는 오천 년 이상을 사는데 비해, 기후가 온화하고 습도가 좋은 지역에서는 삼백 년 이상을 못 산다고 한다. 또 젊은 세포와 노화세포에 독성 자극을 주었을 때, 젊은 세포는 민감한 반응으로 죽어버리지만 노화세포는 반응이 낮은 대신에 죽진 않았다고 한다. 노화세포가 외부의 강한 독성에 도리어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사실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노력의 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노화를 무조건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사람답게 살자(well-being),

사람답게 늙어가자(well-aging),

사람답게 죽자(well-dying).

우리는 늙어감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이듦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답게 죽는 것을 고귀함으로 여기는 스스로의 마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남은 미래에 대한 꿈을 계획하고자 오늘도 존재하므로 ‘나는 생각한다(Sum ergo cogito)’.



수필

김시영 편

『문학저널』 신인상 수필 당선

수필 새벽산책

버드나무

시 철쭉

조건 없는 사랑

날마다 4시면 눈이 떠진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전날 밤 내일 아침을 위해 일찍 잠을 청한다.

어렴풋이, 먼저 일어난 남편이 산책바지로 갈아입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 잠이 덜 깬 느린 걸음으로 둘이서 말없이 집을 나선다.

적당히 좁은 골목에 있는 24시편의점에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다.

신호등도 없는 작은 건널목을 살피며 성북천에 다다르면 어느새 졸졸 흐르는 조용한 물소리에 정신은 이미 맑혀져 있다.

첫 번째 만나는 선물, 키 큰 노란 달맞이꽃이 초여름부터 9월이 된 지금까지 끝없이 봉오리를 피워준다. 아침산책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맑게 피어나는 달맞이꽃에 눈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약 한 시간의 산책길은 남편과 내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선물한다.

낮시간대에만 운동을 하던 것을,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이른 시간대로 바꾸고 나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대화를 나누며 사색을 겸한 낭만도 즐기게 되어 손자덕을 단단히 보고 있는 셈이다. 고즈넉하고 넉넉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양옆으로 줄지어 길게 늘어선 은행나무 가로수, 물가에 숲을 이룬 여뀌, 수은보안등 아래 조용히 흐르는 냇물은 은파가 되어 끝없이 흐른다. 조용한 황홀경이 온 몸을 휘감는다.

이북에서는 전기가 부족하여 두 시간씩이나 공급이 중단되어 고층아파트를 걸어서 오른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호사스런 국민이 되었음에 때로 감사하고 괜히 미안해진다.

서서히 풀숲에서 귀뚜라미 같은 풀벌레소리가 요란하고, 양옆으로 잘 자란 설유화 여린 잎의 촉감이 부드럽다. 여름내 옷자란 즐거움을 고르게 잘라내니 반듯하게 황록색으로 자란 잎이 비단을 만지는 느낌이다.

가끔씩 손등에 부딪히는 차가운 이슬의 청량감이 짜릿하기까지 하다. 올해엔 가뭄도 심하지 않아서, 이제 어른 키보다 훨씬 키가 큰 억새와 갈대가 바람이 불때마다 서걱대며 서로 부딪는 풍경이 싱그럽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에 드문드문 무리지어 피어 있던 코스모스가 무더기로 나풀거리고, 연보라색 개미취가 물결을 이룬다.

이제 막 보라색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맥문동 잎 곡선에 이슬이 내려앉아 은하수의 별빛만큼이나 은은하게 반짝이

며 은파가 되어 흐른다.

아홉 개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는 동안 은은하게 운치 있는 정경에 취하여 걷다보면, 청계천과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 아취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예쁜 모습으로 단단한 돌다리 위에 둥그스름하게 놓여있다.

이쯤이면 청계천과 성북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하니, 깊은 산계곡에서 큰 울림으로 떨어지는 폭포소리인 듯 제법 요란하다.

인공천이긴 하지만 작은 바위섬 수면에도 유유히 물이 흐른다. 그 물살이 바위를 휘돌아 거스르듯이 흘러가는 모습이, 돌아갈 줄도 아는 인생의 지혜를 내게 가르쳐주는 것 같다.

숫머에 앉아 숨을 고르며 두 팔을 귀에 바짝 대고 뻗히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새벽 싱그러운 바람에 버드나무 잎들이 떨고 있다, 가벼운 이파리들이.

청계천 양쪽 높은 빌딩사이로 펼쳐진 까만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하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마음껏 보고 있다. 어릴 적 밀대방석에 앉아 부채질로 모기를 날리며 구운 옥수수를 먹던 추억이 밀려온다.

그 아래 뽕나무 두 기둥을 감고 올라가는 붉은 유홍초 잎이 돌벽에 붙은 보안등을 살짝 가려주니, 겹쳐진 곡선 사이로 비치는 조명 빛이 그렇게 신비스러울 수가 없다.

서서히 동이 터 오르니, 주위의 풍경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떼 지어 물놀이하는 회색빛 오리가 선명하고, 유난히 키가 큰 흰

색 두루미처럼 생긴 조류가 유유히 걸음마하고 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한가롭게 볼 수 있도록 내 건강을 챙겨주는 동반자와 하루하루를 함께할 수 있다니 새삼스럽게 고맙고 행복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는 좀 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본다.

산책길 양쪽에 분홍색 부처꽃이 흐드러지고, 운율을 맞추듯 심어진 홀잎나무가 일곱 개의 계단을 장식한다.

그 계단을 연결하며 늘어진 인동초의 흰색, 미색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진동한다. 깊은 뜻이 담겨있는 인동초를 유심히 살펴본다.

흔하디흔한 강아지풀의 부드러움과 수크령이 어우러진 모습은 인간세상에서 외유내강의 삶을 생각하게 한다.

어둠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붉은 능소화, 연분홍색과 하늘색 남보라 나팔꽃, 메꽃이 완만한 언덕아래 가득 깔리고, 저마다의 풀꽃들이 여명의 빛을 받아 풀벌레들의 교향악과 함께 최고절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불현듯 남편을 쳐다보며 옛일을 문득 생각한다. 40년 전 내 결혼식 날, 잠깐의 축하 연주가 아쉽게 끝나자마자 바로 걸어나왔던 일이.

너무 인위적이고 운치라곤 없던 그때의 결혼식장과 비교하면, 오늘 이 아침의 굽이굽이 길게 이어진 이 꽃길은 지루하려야 지루할 수 없는 대형 꽃길이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이 서정적 꽃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면 마음이 평온하여 궁금하고 걱정되는 숙제들이 저절로 풀리어진다. 고마운 조용한 하루를 계획하며 자세를 다듬으며

걷는다.

아침을 일찍 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 꽃길을 소개하고 싶다.

내겐 매우 소중한 선물이 지금 성북천변에 자라고 있다.

올여름 최고로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덥던 날, 나무를 선사하겠다는 전화를 받고는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고민에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길을 나섰다.

아스팔트도로가 열기에 떡반죽이 될 것 같은 7월, 삼복이 걸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식물이든 좋아하는 욕심과 상대방 성의에 대한 고마움에 떠밀려 출발하고서도 차 안에서 갈등이 가시지 않았다. 이 한여름에 옮겨 심어서 과연 무사히 살릴 수 있을까 하고.

키가 큰 버드나무인지라 구부려 싣고 보니 정글처럼 우거져 차에 가득 찼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른다고 속으로 연신 후회가 막심했다.

그렇지만 정성들여 뿌리를 내린 후 4년을 길렀다는 말을 듣고는,

꼭 가져다 기르며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바다 건너 외국에서 들여온 데다, 주신분의 성의가 고스란히 담겨진 귀한 선물이라서 기대치도 대단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밑바닥에 구멍을 내어 화분으로 사용해온 큰 고무물통에 버팀목까지 세우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심었다.

그러나 다음날 남편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 화단에 데리고 내려가자마자 일이 터지고 말았다.

“버드나무를 집 안에 심으면 안 돼! 잘라서 밖에 내버려! 안 그랬다간 다시는 내가 여기 발을 딛나 봐라.”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 무슨 차가운 호통인가.

옳고 그름과 호불호가 분명한 남편을 순간이나마 몹시 원망하며, 야속한 마음에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었다. 여태 남편의 뜻을 불평 없이 받아들여온 나로서는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랐다.

‘어디 두고 보라지! 기필코 키워서 그 운치를 꼭 감상하게 해주고 말 테니. 그러면 오히려 날 고맙게 생각할걸!’

스스로도 심했다 싶었던지, 나중에 남편은 버드나무를 집 안에 심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무당이 굿할 때 혼드는 상서롭지 못한 나무라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무나 야속해서 치솟는 원망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까짓 꽃가루는 그렇다 치고, 이 무더위에 온종일 애써 심은 노고를 완전무시하는 말투가 너무 미웠다. 삼복더위에 엄마 고생한다고 냉커피까지 타다주며 동조한 딸의 정성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랴! 저토록 완강하게 거부하는 남편의 뜻을 거역한다

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새벽 두 시. 적당히 잠을 설치고 일어나 살그머니 현관문을 연다. 어른 키의 배나 되는 버드나무를 신주 모시듯 조심스럽게 뿌리에 흙을 묻치고 비닐로 싼 다음, 삽과 함께 매고 성북천으로 향한다. 내내 억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서.

‘이 시간대면 아마도 산책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있어도 하는 수 없지. 우선 나무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그러나 남의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한 내 바램은 소용이 없다. 일바지에 등산화를 신고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한밤중에 나무와 삽을 어깨에 메고 가니 가끔씩 지나치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본다.

‘뭐 어때. 모르는 사람들인걸.’

나는 애써 무시하고, 되도록 물에 가까운 장소를 골라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여름이라 무성한 풀뿌리들이 물속 깊이까지 뻗혀 있고, 삽 끝에 돌들이 부딪친다. 그 돌들을 골라내고 겨우겨우 심고 돌아선다. 제발 잘 살아나줘, 버드나무야!

내가 이 밤중에 나무 심으러 떠난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현명한 방법으로 감정마찰의 소리를 해결한 내 행위가 참 착하다는 자각으로 뿌듯해진다.

어제 심은 버드나무를 보살피러 몰래 집을 나선다. 잠든 남편에게 들킬까봐 조심조심.

다행히도 이 밤중에 어디 가냐고 묻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안심이다. 망치와 건축작업 잔재물인 보조막대 두 개를 들고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대인 새벽 두 시. 나는 왜 이렇게 식물

을 무척 좋아하는 체질인지 모르겠다.

도중에 건축공사장에 버려진 막대와 밀동만 남은 행운목을 추가로 챙긴다. 평소 눈에 거슬리던 것들을 재활용하게 되니,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고맙기도 하다.

그러나 아뿔싸! 미장원 구석에 세워져 있는, 평소에 보아왔던 막대기 하나를 더 챙기려다가 그만 발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짐작으로 손을 뻗어 더듬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하필이면 그 막대기는 썩은 나뭇가지여서 두 동강이 나버렸고, 어머니께서 사주신 예쁜 새 양말, 바지, 운동화가 시궁창 오물에 범벅이 되었으니 이런 고약한 낭패가 있나!

하마터면 병원신세를 질 뻔하였다. 발이 약간 삐끗했을 뿐, 이만 하기 다행이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설 수도 없다. 그래도 버드나무를 찾아가 보조막대를 꼼꼼히 철사로 묶어세운다. 그리고 나서야 집에 돌아와 오밤중에 세탁작업을 시작한다. 기분이 그렇게 언짢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은 남편이 알면 ‘자알 했다’고 코웃음치며 핀잔하겠지. 그럴 바엔 영원히 비밀에 붙이는 게 좋을지도 몰라.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버드나무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선다. 종이가 돌돌 감겨진 철사뭉치와 가위를 비닐백에 담아 들고서.

벌써 심고 나서 사나흘이 되니, 더위에 잎이 누렇게 뜨고 몸살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사람도 처지는데, 아무리 물가라지만 버드나무인들 어떻게 온전할까. 당연한 현실에 나무에게 미안해진다.

설마 죽기야 하라! 휘어진 버드나무를 철사로 조심스레 감아주어 고정한 다음, 남은 철사뭉치를 백에 담아 다리 밑 벤치 아래에 숨기듯 가려두고, 평소대로 한 시간 거리 걷기운동.

운동을 마치고는 백을 챙겨들고 즐겁게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여 보니 철사뭉치가 온데간데없다. 혹시 잘못 둔 게 아닌가 싶어, 아침식사 준비로 시간이 촉박한데도 그걸 찾겠다고 뛰다시피 걷는다. 땀이 비 오듯 한다. 하지만 헛수고, 오늘도 속상한 아침이다.

누가 가져갔을까? 처음부터 적당히 잘라서 가져갔으면 괜찮았을 걸, 그랬다가는 혹시라도 자투리를 한 뼀이라도 버리게 될까봐 아끼려던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만 것이다.

그래도 기분을 돌려, ‘그 사람은 황재하여 기분 좋았겠다’고 나를 위로한다.

문득 ‘가죽신 한 켤레’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느 시골에서 한 농부가 소를 끌고 지나가는데, 짓궂은 두 사람이 말했다.

“내가 저 소를 내 것으로 만들겠어.”

“어림없는 소리 마.”

“할 수 있으니 구경만 하라니까.”

농부는 소를 끌고 내려오다 길에서 새 가죽신 한 짝을 발견했다. 그런데 한 짝이라서 어디다 쓰겠나 싶어 아쉬워하면서도 그냥 지나쳤는데, 한참 오다 보니 마침 한 켤레가 될 다른 한 짝이 떨어져있지 않은가?

욕심이 발동한 농부는 ‘에이, 귀찮은데 소는 이 나무에 매어 놓고 얼른 한 짝을 마저 가져와야지!’하고 뛰어갔다 돌아와보니 전 재산인

소가 없어진 것이다.

소를 가죽신 한 결레와 맞바꾼 격이다.

작은 욕심에 연연하다가 큰 손해를 본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버드나무 심어놓고 흥겨워하던 내 꼴과 같은 이야기다.

그래도 이 나무가 자랄 것을 생각하면 즐겁고 흐뭇하다. 버드나무가 꼭 살아서 남편에게 기필코 보여줘야 내 직성이 풀리겠는데.

일주쯤 후, 잎이 메말라 떨어진 버드나무 줄기에 찌라기만한 눈이 돋는 김새가 보인다. 설마 한여름에 무슨 싹이야 나려고?

위로 점 소망 점 그렇게 사나흘이 지나고 나니, 정말로 이 불별에도 움이 트나보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다.

이제야 남편도 벤치 옆에는 나무가 없는데 이곳에 심길 잘했고 나무가 귀티난다며, 내년 봄에 손자들과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게 해주마고 미안쩍은 기색으로 나를 위로한다.

심은 애착에, 갈 때 올 때 버드나무 옆에 내 발이 머물면, 어둠속에서도 모르는 산책객들이 “아주 좋네요. 삼으로 심는 것 봤어요.” 하고 말을 건넨다. 이처럼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나누다보니, 그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 같다.

간밤에 한바탕 천둥 번개가 요란하고 국지성 호우가 세차게 내렸다.

골목은 깨끗하고 상쾌하다.

버드나무에 다가가다.

내 집 웅색한 뜰에 심은 것보다 얼마나 잘 한 일인가? 하루종일

햇빛, 바람, 물 식물의 생육조건이 충분하나 곳에 넉넉히 자리를 잡았으니, 내 욕심을 포기한 게 얼마나 잘 한 일인지, 서운하면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남편에겐 토라진 내 심경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두어 달이 지난 지금, 그토록 애를 태우던 버드나무가 무성한 푸른 잎을 자랑하듯 휘늘어진 폼으로 바람에 유유히 하늘거리니 마냥 흐뭇해서 한참을 하염없이 바라보게 된다.

버드나무 주위에는 여름 내내 자란 풀덩굴, 시원한 물줄기가 작은 아마존을 이루고 반달 모양, 지도모양의 작은 모래섬이 군데군데 생겼다. 그 모래섬 위에 오리 한 쌍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자고 있다.

어른 키의 두 배나 높은 돌담엔 윤기 나는 초록 담쟁이가 질서 정연하게 펼쳐져 담을 온통 다 덮고 있다. 그 푸름에 마음까지도 순화되는 듯하다.

봄이 오면 다리 밑 그늘진 벤치에 앉아서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손자들과 남편과 웃어볼 날이 은근히 기다려진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 얼마 후에는 우리 집 담벼락의 담쟁이도 붉게 물이 들어 산국과 함께 거실에 있는 탁자 유리 밑에서, 떡 접시 위에서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안정되고 순수한 고요 속에 하루를 열 수 있으니, 이만하면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시 철쭉

뜰에 나선다.
밤새 몰래 내린 비에
연분홍 철쭉이 함초롬히 젖어있다.

가녀린 얼굴마다 송글송글한 빗물
가지는 늘어지고 휘어졌다.

걱정마세요.
털지 않아도 돼요.
이제 곧
햇님이 나올 테니까요.

목욕한 모습으로
찬찬히
더 예쁘게 빛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예쁘고 맑은 얼굴로

친구들을 부를 거예요.

바닥엔 벌써 꽃자리 펼쳐났어요.

시 조건 없는 사랑

나이 들어감에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관심과 사랑뿐!
아쉽게도 그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때론 너무 넘치고
방법이 설어서
빛나갈 때도 있지만
살아온 습관인걸 어떡해
생각의 과잉이 오히려 짐이 된다.

더욱 세련된 사랑의 기법으로
행복의 꽃을 가득 피우고 싶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 들어감을 어찌랴!
그래도 눈먼 사랑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핀다.



수필

김수희 편

수필 묘(猫)하고도 향기로운 휴가

삶의 2막은 축복이다

시 성묘 가는 날

미망(未忘)

고애(孤愛)

비가 올 듯 올 듯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 요즈음, 정릉천의 바닥은 거북이 등딱지마냥 짝짝 갈라져서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천변의 습지는 푸른 이끼를 물고 활짝이고 있었다. 마른천둥만 우릉우릉 위협을 주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 눈곱 낀 눈망울마냥 애처롭게 장마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막을 내려야만 될 것 같다는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나는 휴가를 못 간 지 십 년은 족히 넘은 것 같다. 아이가 어려서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갔지만 이제 다 큰 아이가 나와 함께 영화 보는 것도 크게 인심 쓰는 듯한 몸짓을 보이니, 휴가 같이 가자고 하면 아마 핑계가 열 개 이상 나올 것이 뻔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정원에 핀 야생화를 자세히 보고 있자니 한가로운 나른함에 올해의 더위가 별로 괴롭지 않았다. 도리어 몰랐던 야생화 이름 찾기에 재미가 붙어서 사진 찍어가며 ‘야생화사

랑’이라는 카페에 가입해서, 야생화 이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내게 우리동네에서 마을카페를 운영하는 친구 영미가 자기 집에 피어있는 꽃 이름을 알려달라고 자주 요구했다. 그때마다 난 꽃을 사진 찍어 일단 카페에 올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회원들이 알려주는, 힘 안 들이고 알게 되는 지식 가지고 친구에게 알려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다.

쥐손이풀 · 송장풀 · 개싸리 · 사위질빵 · 접시꽃 등, 예전에 들에서 많이 보아왔던 야생화가 사진으로 이름과 그 이름의 유래를 알게 되니 재미도 쏠쏠할뿐더러, 휴가 때 놀러가야만 한다는 강박증과도 같은 존재인 어린아이도 없으니, 나쁜 더위가 내 나이에 딱 맞는 것 같은 느긋함에 흠뻑 빠져버렸다.

야생화 이름 하나까 생각하는데, ‘송장풀’은 원래‘숨장풀’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따른다. 꽃은 숨을 연상하게 하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자태인데 이름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마치 예쁜 여학생에게 안 어울리는 이름처럼 마냥 어색하다.

‘사위질빵’은 참 재미있는 꽃말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조금만 힘을 주어 잡아당기면 툭하고 끊어져버리는 줄기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마치사위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는 장모의 애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꽃말 같다. 어찌 보면 꽃의 가다가닥 갈라진 모양새가 사위에게 먹이고 싶은 씨암탉의 고운 살결 같아서 침이 저절로 고인다.

야생화들이 여기저기 널려서 피게 되자, 잔디는 일찌감치 자신의 영역을 잡초에게 내어주고 퇴물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맥문동이라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야생초를 키우게 되었다. 키웠다고보

다는 그늘진 숲에서 자라는 맥문동 몇 뿌리를 뽑아와 심었고, 그것이 번지고 퍼져 이제는 우리집 정원을 넓게 차지하게 되었다.

무성하게 자란 맥문동 사이사이에 온 동네 도둑고양이들이 찾아들어 길게 하품하며 낮잠도 자고 맥문동 열매를 야금야금 먹기도 한다. 『동의보감』에 맥문동이 소화효소로 유용하다고 하니, 고양이는 한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도 어찌 그리 상식이 풍부한가 모르겠다. 이것들이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모양은 그렇게 평화롭고 양증맛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편안하고 어떤 시름도 없는 편안한 휴일을 연상하게 하는 풍경이다.

접시꽃 넘적한 꽃잎을 바라보자니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본, 피자의 달인이라며 피자 도우를 하늘 높이 빙글빙글 돌리는 청년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 더위에도 자기 본분에 열심히 충실한 모습, 떨어지는 땀방울마저도 역겨워 보이기커녕 마치 피어오르는 양지꽃처럼 향기로워 보였다.

우리집 도둑고양이들도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자 칠 개월밖에 안된 게 벌써 엄마가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새끼들에게 느긋하게 젖을 먹이는 모습은 대견하다가도 은근히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새끼들이 태어날까? 어찌다 내 눈과 마주치면 경계심리와 보호본능으로 끊임없이 새끼 몸 구석구석을 훑아주는 모성애에 가슴이 찡해왔다. 나의 올해 휴가는 우리집 정원에서 고양이들의 재롱을 보며 지내는 것으로 때워야 할까보다.

고뇌에 빠진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다가간다는데, 내 영혼도 어찌면 길 잃은 고양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 안아주길 바라고 있지 않은가 싶다.

아! 이 여름 난 우리집 정원에서 야생화 모습에 흠뻑 취해 고양이
처럼 뒹굴뒹굴 나른해지고 싶다.

수필 | 삶의 2막은 축복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지니

오늘도 침대와 겨루는 씨름에 지친 나는 푸시킨의 시 구절을 읊어본다.

‘미친 세상……그래, 세상이 날 버려도 난 산다. 산 목숨은 살아 지나까.’

자조 섞인 속울음이 내 목울대로 나오지도 못한 채 한숨만 나왔다. 참고 견디어도 즐거운 날이 올 것 같진 않다. 오늘도 조반을 챙겨놓고 마트에 아르바이트 나간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지 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녀가 야속하기만 했다.

마누라 고생시키는 것을 즐기는 남편이 어디 있으련만, 남편과

얼굴 맞대는 것조차 꺼려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제도 벽만 바라보다가, 한숨 겸 체념 섞인 웅얼거림을 들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

“사람들이 너무 편하면 교회 찾을 인간이 없을 거다. 자식이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턱하니 들어가고, 남편이 돈 잘 벌어서 걱정 없이, 교회나 절이 유지하기 힘들까봐 적당한 시련을 주시는 우리의 신에게 어찌면 감사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교회 안 가고 절에 안 가도 좋으니 제발 일 좀 잘 풀렸으면 오죽 좋으련만, 집에 오면 늘 반겨주는 것은 십 년째 맴맴 도는 우리 강아지 ‘루루’밖에 없으니, 나 원 참……. 인간도 강아지처럼 매번 반갑다고 반겨주면 살맛이 나겠는데.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고 해도, 이걸 하고한날 대화의 언저리에서 항상 떨어지지 않는 돈이라는 귀신.

그렇다고 뽀족한 해답도 없으니 문제는 문제다. 애들이 학교는 다 졸업해도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이니 돈 들 일은 태산인데, 작금의 현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애라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 뭐하나. 현실이 뒷받침되어야 말이지…….’

이불 속에서 뒹굴며 잡생각을 하다, 엉겨붙는 이불도 지겨워져 발길로 걷어차며 기지개를 늘여지게 켜다. 마치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 세수를 부산하게 하고는, 데워 먹으라고 해놓은 찌개에다 귀찮아서 밥통 속 밥을 적당량 떠 넣어 대충 말아 입에 부어 넣었다.

‘지금 이 모습을 아내가 보면 또 한소리 하겠는데. 킬킬클…….’

아내가 잔소리 겸 걱정 겸 알려주었던만, 만사가 귀찮아서 대중 밑반찬만으로 밥한 술 뜨다 손가락이 허공에 멈칫하며 지난일이 떠올랐다.

이 년 전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명퇴한 이후 편의점한다고 알량한 퇴직금 날려먹고, 집을 담보 잡혀 주식한다고 알짱대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 지금도 그때 빚진 이자 갚기에 숨이 가쁘다.

세월을 다시 거꾸로 돌려만 준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겠지만, 그건 꿈꾼다고 해도 이루어 질 수 없는 비현실적 희망일 뿐이다.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해도 은행이자 내기 빠듯하다고 투덜대는 아내에게 이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다. 예전에 선친이 ‘미두(米豆)’라는 투기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우리어머니를 고생시키고는 미안한 마음이 지나쳐 율화가 치밀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폭행하며 엉엉 울었는데, 지금의 내가 그때의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게 되다니, 정말 부자지간의 야속한 판박이인 생이 아닌가 싶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든다.

‘그래, 즐거운 날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슬퍼만 해서야 쓰나.’

웃을 주섬주섬 입고 집을 나섰다. 딱히 갈 데는 없지만, 그렇다고 집구석에만 있기도 답답해서다.

나와 보니 벌써 한여름 더위가 거의 가시고, 정릉천변의 풀벌레 소리가 이마를 서늘하게 해준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다고 한다.

늘 찾는 산책코스지만, 오늘은 유달리 술에 취한 듯 꽃에 취해서

어느새 북한산 유원지까지 오고 말았다.

휴일이면 유원지 앞 음식점들이 북적거리지만, 평일 오후다 보니 한산한 거리 풍경은 따스한 햇살에 졸고 있는 것 같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 땀을 식히라고 너럭바위가 나타났다. 약수터에서 목을 축인 다음, 운동기구 몇 개를 이용하는 척하다 말고 좀 더 올라가니까, 멀리 영취사 경내에서 독경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무지한 중생을 위해 어려운 불교경전을 쉬운 말로 풀이해준 원효대사가 150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인간들 곁에서 돌봐주고 계신 듯, 독경소리는 반복해서 들려왔다.

아침저녁으로 풀벌레소리가 요란하고 새벽에는 창문을 닫게 만드는 서늘한 날씨지만 산으로 힘들여 오르다 보니 등허리로 땀이 비어져 내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건이라도 챙겨올걸.’

후회가 밀려올 때쯤 형제봉 등성에 다다랐다. 등산화가 아닌 트레킹화를 신고 산에 오르니 발가락에 약간 통증이 왔다. 바위에 걸터앉아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무르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말끄러미 쳐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만치 소담스럽게 핀 자줏빛 꽃무더기가 눈에 확 들어왔다. 마치 하늘로 두 손을 뻗고 위에 계신 분께 찬양하는 듯한 모양이다.

순간, 용모가 시원스러운 청년을 볼 때처럼 가슴이 뻥 뚫리며 폐부속의 응어리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합장을 했다.

‘나무아미타불……제 죄가 크지만, 제가 젊어지고 갈 수 있을 만

큼만 주십시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애고, 나도 많이 늙었나보다. 별스럽지 않은 것에도 가슴 시려하다니.’

오십 중반까지 살면서 남보다 잘나게 고속승진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나의 지난 길이 너무 처량하고 한심해, 한 무더기 꽃보다도 못하구나 싶어, 눈에 하나 가득 담겨오는 꽃의 자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려 하여 급히 휴대폰을 꺼내어 꽃사진을 찍었다. 요즈음에는 애플이 많이 나와 있어, 나는 ‘야생초사랑’이라는 카페에 사진을 올려놓았다.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 알림기능이 메시지가 왔다고 울렸다. 액정화면을 보니 내가 사진으로 올려놓은 꽃에 대해서 이름이 올라왔다. ‘털부처꽃’ 아, 어쩐지 그 자태가 고매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근엄함이 있다고 생각했더니! 이 꽃은 7-8월에 피며, 홍자색을 띄고, 줄기 끝이나 잎겨드랑이에 1-3개씩 달리지만, 전체가 총상꽃과 비슷하며 길이가 20-35cm이고, 원줄기는 네모지고 곧추서며, 흰털이 있다. 아주 큰 것은 1m까지 자란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7월15일 불단에 바치는 꽃이라 하여 ‘부처꽃’이라고 불린다.

싱싱한 젊은이의 땀에 젖은 셔츠 자락에 내비친, 웃자란 듯 설익은 듯 싱싱함과 멋스러움이 겹쳐지는 털부처꽃을 본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잠을 설치지 않고 단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괜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가벼운 흥분을 안고

산으로 향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형제봉에 도착하니 간지러운 강아지풀을 입에 문 듯 양 볼이 씹룩씹룩해지며 털부처꽃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생명력…….’

그 어떤 것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 받은 것이다. 나도 무엇인가 쓸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지금껏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풍랑과 파도를 헤쳐 나가야 될 것이다. 난 나의 인생 2막을 생각해본다.

‘그래, 비록 꼭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어도 누구에게나 기회는 또 온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점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복을 추구하며, 앞으로 행진하는 거야. 아미타불, 도와주소서!’

털부처꽃 앞에서 겸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내 2막을 기약하며 자신도 모르게 합장했다.

시 성묘가는 날

바람 많은 파주 잿빛하늘 낮게 날리면

이팝나무 싹열매 통통히 물오르고

아버지 성묘날 왔다고 알려준다

뽕 뚫린 팔차선 자유로, 평화 염원 담아

플라타너스 시원하게 깎은 머리 내달리고

통일전망대 마주보며 해이리 들녘에 다다랐다

경모공원 앞마당 관광마차 무료하게 즐기고

막내 온다고 올라버지

말끔히 이발하고 기다리신다

시 | 미망迷妄

부부가 있다

늘 마주보며 되새김질하는 백발의 부부가 있다

과거의 멍에에 빠져서 기억의 잔재를

훑고 있는 부부가 있다

지나가는 바람도 그들에겐 예전의 추억이고

남을 폄하하는 것은

자신의 성(城)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가시이다

타인의 영광은 부부에겐 하찮은 시기(猜氣)이고

당신의 영화로움은 언제나 보랏빛 그물 위에서 반짝인다

부부가 있었다

추억을 방석 깔고 현실의 문을 걸어둔 채

자신들만의 언어로 얘기하는 부부가 있었다

시 | 고애 孤愛

피 토하는 폭포새는
득도의 길로 가는 끝자락에
하늘 보며 생각한다

지난한 세월 포말 위를
등가등가 걸어 왔건만
체액은 이미 말라서
님 향한 간절함이
눌러붙었다

여울목 언저리
회오리는 깊어가고
허파의 췌소리는
식식 훑날리건만

붉은 목
청록색 물그늘에 묻혀
뽕죽한 혀를 날름거리며
서설(瑞雪)의 몸을 핥는다



강명화

강명화 편

한국소설가협회 신인상 당선

소설 묘심(猫心)

마스카라

임종노트1

푸르스름한 연기가 방 안까지 낮게 깔린다. 쿵쿵. 아, 이 냄새의 유혹은 참을 수가 없다. 매운 듯 향기로운 이 알싸한 향의 근원지는 어디란 말인가. 연기는테이프로 붙여둔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중달의 코끝을 자극한다. 주위를 휘둘러본다. 필구는 저만치 떨어져 벽에 붙어 잠들어있다. 머리맡의 널브러진 소주병이 족히 스무 개는 될 성싶다. 독한 빨강뚜껑만 고집하던 그였다. 빨강뚜껑 두 개가 짙은 카키색 침낭의 바느질 선에 붙어 대롱거린다. 침낭에 얼굴을 깊게 묻고 꿈틀하는 품이 영락없이 담장을 기어오르는 한 마리 거대한 애벌레로 보인다.

중달은 또다시 미안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염가 이놈이 인정은 있는 놈인 기라……, 지 입을 것도 없을 낀데 이래 나를 입히주고. 정만아! 제발 하루빨리 니가 나타나다오.’

중달은 겹겹이 껴입은 옷가지의 앞섶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

다. 흰 바둑알같이 생긴 나프탈렌이 툭 떨어졌다. 침낭에 반쯤 가린 필구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는 뚱뚱 얼어붙은 창문가로 다가섰다.

거울이 되면서 엉성한 창틈으로 칼바람이 몰아쳤다. 궁여지책으로 창틀에 재활용 이불을 못으로 박았던 필구는 며칠 전 이불을 다시 떼어냈다. 찢긴 이불의 천조각이 실밥을 길게 늘어뜨리며 못에 걸려있었다. 버려진 가구에서 뽑아 온 못은 군데군데 녹슬었고, 관뚜껑에 반쯤 박힌 못처럼, 갈라진 틈새가 점점 벌어지는 나무 창틀에 음산하게 꽂혀있었다. 중달은 오색천이 걸려 있는 서낭당 어귀의 장승처럼 우두커니 창가에 섰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크고 사납게 생긴 눈과 주먹코를 비껴 어질러진 방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다섯 평 남짓한 방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비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중달은 필구가 주워온 깨진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한 중간에는 바퀴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납작하게 말라붙어 그 주위로 뿌연 얼룩이 번져있었다. 온갖 내장이 뒤섞여 만들어낸 자국은 습기를 잃은 귀지처럼 노리끼리하게 메말라 가루가 되어 벗겨지는 참이었다. 거울 아랫부분의 오른쪽 귀통이는 삼각형 모양으로 깨어져 얇은 베니어판이 속살을 내보이고, 성글게 짜여진 베니어판 위로 녹슨 못 하나가 휘어진 채 튀어 나와 살갓을 뚫고 나온 뼈처럼 흉측하게 보였다.

“이거…… 볼 때마다 기분 잡친다 아이가. 필구야, 너는 니 낮잠 볼 때마다 안 불안하나?”

중달은 깨진 거울이 아무래도 못마땅해 필구에게 투정했다.

“그 거울이 업경대(業鏡臺)라도 되남유?

“업경대? 그기 뭐꼬?”

“성님은, 참……. 그것도 모르슈? 죽으면 저승사자가 잡아가서 그 거울 앞에 세운대유. 살아오면서 했던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뵈다짚유. 그러믄 염라대왕이 일일이 다 받아 적어서 죄질이 나쁘면 지옥 보내고 착한 일 많이 했으면 극락 보내 맛난 것도 주고 그런다짚유.”

중달을 만나기 전, 절에서 몇 달 허드렛일하며 밥을 얻어먹었던 필구는 서당 개가 다 되어있었다.

중달은 거울을 볼 때마다 뿌지직거리며 사방으로 갈라져 산산조각이 나는 자신의 얼굴을 상상했다. 조각난 파편마다 지난시절의 순간들이 슬라이드처럼 펼쳐졌다. 그야말로 업경대였다. 그는 목을 대를 꼭 쥐었다. 평생 동안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내지도 못하는 얼굴…….김 정 만. 아들을 생각하면 돌멩이가 걸린 듯 목 언저리가 죄어왔다.

‘인제 와서 찾으면 뭐할끼고……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이고, 얼굴도 모르는 자식 찾아 우짖다꼬.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아아를 찾아 샀노.’

중달의 눈가가 축축해지며 허공을 응시했다. 회한과 그리움으로 점철된 지난날이었다. 죽기 전에 아들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마지막 남은 소원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사십여 년을 홀로 살아왔다.

아들이 두 살이었을 때, 아내는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비쩍 마른 몸으로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들을 남겨

놓은 채 눈도 감지 못하고 숨이 끊긴 아내의 얼굴도, 거울의 한 조각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아로 자란 그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준 아내를 잊을 수 없었다. 천지간에 피붙이 하나 없던 중달에게 아내와 아들은 그의 목숨 이상이였다. 그러나 전국의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며 일해야 하는 그에게 두 살배기 아들은 삶의 의미 전부이자 족쇄였다. 그런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며 자기 인생도 끝내리라고 결심했다.

아들과 헤어진 저녁, 중달은 번개탄을 피웠다. 연기가 견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속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반듯하게 누웠다. 좁은 방은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가득 찼다. 편히 잠들기를 바라며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눈이 따가웠다. 잠은커녕 정신이 더 또렷 또렷해지며 기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중달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버텼지만, 끝내는 밖으로 기어나오고 말았다. 하수구에 얹어져 구역질하는 얼굴에 눈물, 콧물이 뒤범벅되어 머리카락과 함께 엉겨붙어있었다.

질긴 목숨은, 일용직 노동자로 떠돌며 하루하루 버텨온 세월이 아들과 헤어진 지 사십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게 했다.

다시금 뒤척이는 필구의 침낭에서 애벌레의 빨간 눈처럼 생긴 병뚜껑이 떨어져 대구루루 굴렀다. 병뚜껑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그는 몇 해 전, 필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성님, 딱 한 잔만 더 하지유?”

필구는 검버섯이 군데군데 핀 중달의 팔을 두 손으로 끌어안으며 살갑게 굴곤 했다. 작업복이 들어있는 중달의 검은색 낡은 배낭을 빼앗아 어깨에 척 걸치며 나이 오십줄에 어울리지 않는 애교를

부렸다. 호인풍의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 필구에게 중달은 마지못해 끌려가곤 했다. 그는 처음에 화를 내기도 하며 무뚝뚝하고 통명스럽게 필구를 홀대했다. 타인과 정을 나누는 방법을 몰라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말이 튀어나와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새로운 건물 하나가 세워지고 난 후, 이들은 어깨동무한 채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들락거리는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울먹이며 부르는 노래는 벚꽃 휘날리는 봄 밤에도, 낙엽 뒹구는 가을밤에도 거리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담장 위 까만 도둑고양이가 노랫소리를 듣고 아래로 몸을 숨겼다. 마치 작고 까만 벨벳이 스르르 흘러내리듯, 고양이는 부드럽고 우아한 동작으로 어둠속에 사라지곤 했다.

“필구야! 너는 내 동생이다. 알았제?”

그는 사람과 인정에 목말라서 고독하게 보낸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필구를 아끼고 신뢰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를 잃었다는 필구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처럼 대하며 중달을 따랐다. 중달은 갈 곳이 마땅히 없던 필구와 삼양동 꼭대기 사글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보다 열 살이나 손아래인 필구는, 주워 모은 살림세간이지만 밥 짓고 청소하며 제법 사람 사는 모양새를 갖추어갔다.

중달은 공사판에서 더는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을 때 파지를 줍기 시작했다. 부지런만 떨면 길거리에 깔린 게 돈이었다. 그 중에서도 책이나 신문물치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다른 파지류에 비해 값이 비쌌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다. 잠 없는 노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바퀴씩 동네를 돌았다. 리어카를

끄는 그들의 머리 뒤로 각종 폐지가 산을 이루었고, 그것은 평생을 지고 온 삶의 무게만큼이나 힘겨워 보였다. 노인들은 짐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리어카 손잡이를 팔뚝으로 감아쥐었다. 빈약한 팔뚝 근육이 끊어질 듯 꿈틀거렸고, 자칫 힘을 뺏다간 공중에 쳐들려 버둥거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노인들은 휘청거리는 무릎으로 땅을 꺾꺾 눌러 밟으며, 이 도시의 뒤흔다꺼리로 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달은 다른 노인들보다 한 발 먼저 동네를 돌아야 소득이 따른다는 요령을 금방 터득했다. 특히, 과일가게나 야간영업을 끝낸 업소 앞에는 새벽이면 박스가 쌓여있었다. 다 신지 못하고 남겨 뒤야 할 때의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한차례 실어 나른 후 부리나케 달려가보면 이미 딴 사람이 가져간 후였다. 초기에는 나름의 구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줍다가 불쾌한 실랑이를 경험하기도 했다.

“먼저 가져가면 임잔 기지, 쓰레기에도 주인이 있다드나? 뭐, 저런 문디 같은 인간들이 다 있노? 내 참 더러바서…….”

중달이 투덜거리자, 필구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성님, 사람 사는 데는 항시 ‘룰’이란 게 있슈.”

“룰? 그기 뭔데?”

“이를테면 규칙 같은 거쥬. 그제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진즉에 저세상에 갔을 거구먼유. 생각해 봐유. 대전에서 쇼핑몰인가 지을 때, 짱패 놈들 기억 안 나유? 짱패 놈들도 목숨 내놓고 지키는 룰이 있다쥬유? 그깟 박스 하나쯤 양보한다고 우리네 인생이 뭐 그리 달라지나유? 가유. 막걸리나 한잔 혀유!”

팍팍한 인생살이에 참기름을 붓듯, 필구는 삭막한 일상을 부드

럽게 요리하는 요령이랄까, 재주가 있었다. 중달에게 중고리어카를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에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폐지수거에도 특유의 수완을 보여주었다. 녀석 좋은 그의 입담에 나이든 여자들은 오랜만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홍홍’거렸고, 동네의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를 사람들은 신뢰했다. 덕분에 몇몇 가게에선 아예 박스를 모아두었다가 중달에게 주기도 했다.

공사가 없는 날에는 필구도 따라 나섰고, 그는 파지보다 쓸 만한 시간을 쪼는데 더 열중했다. 깨진 거울, 다리가 찢그러진 의자, 손잡이가 녹아버린 냄비……, 어떤 물건이든 기능을 하고말고 상관없이 형체가 남아있는 것은 거의 버리지 않았다. 한번은 중고품 라디오를 중달의 반대 때문에 주워오지 못했는데, 아까운 생각에 잠을 설치다가 기어코 한밤중에 살며시 나가 가져다놓고야 잠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중달은 역정을 냈으나, 필구는 황재라도 한 것처럼 만족해했다.

그들은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 나름의 대화와 소통 방법이었다. 필구를 만나기 전까지 중달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을 앓고 살아왔다. 중달에게는 누군가와 말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이 처음 만난 여자와 하룻밤 몸을 섞기보다 더 굉장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진 거울쪼은 충분히 참아줄 수 있었다. 중달의 방은 필구가 주어다 모은 잡동사니로 가득 찼고, 중달의 일상도 그럭저럭 채워지고 있었다.

“그럼 우짜겠노? 얼라하고 내하고 손가락 빨다가 뉘지야 뉘다 말이가?”

차라리 그랬어야했다는 후회와 자책이 담긴 고뇌로 중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필구의 빈 잔을 채워주고 자신의 잔도 채웠다.

“성님! 그만 드슈. 의사선상님이 술, 담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유.”

극구 말리는 필구의 손에서 소주병을 빼앗아 연거푸 두 잔을 마셨다.

“성님, 정만이 볼 때까지는 살아야 되잖켰슈? 내가 열심히 찾고 있을께유, 쪼깨만 더 기둘려 보슈.”

필구는 저승꽃이 핀 중달의 메마른 손을 꼭 쥐었다.

“됐다, 고마…….”

중달은 나머지 한 손으로, 겹쳐진 필구의 손등을 쓰다듬듯 서너번 쳐주었다. 고마움의 표현을 고작 그렇게밖에 못했지만 중달의 손은 따뜻했다. 그러나 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다 빠져나간 살갗은 폭 곤 사골뼈의 물커덩거리는 살처럼 뼈마디와 분리돼 따로 놀았다.

“가가 얼라 때 억수로 잘 생겼다 아이가. 아 데꼬 시장에 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해췄는데, 나중에는 귀가 따갑더라꼬. 우찌나 달덩이같이 흰하던지…….”

어느새 과거의 젊은 날로 돌아간 중달의 얼굴에는 살아오는 동안의 고생스러움이나 외로움은 온데간데없고, 아이를 안은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중달의 기억 속에서는 몇 십 년을 그냥 두 살인 채로 머물러 있는 아들이었다.

“성님은 참말로 변변치 못하구먼유. 찾지도 않을 자식 오매불망

허문서 세월을 그냥 보냈슈. 죽은 자석 불알 만지는 거나 진배없네 유. 새장가나 들지 그랬슈?”

“맞다…… 내 주변머리로 아를 찾아보도 못했다. 새장가나 들어 정만이 대신 아들내미라도 하나 있었으면 억울할 기 없었을런지……. 죽은 여편네한테야 죽일 놈, 살릴 놈 소리 들어도 내 이렇게 한 많은 세월은 안 살았을 까다. 내는, 날 때부터 부모도 없고, 겨우 하나 얻은 자석 제대로 건사도 못하고, 징글하게 외롭게 살았다 아이가.”

자신의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아들을 기다리는 중달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자기 삶이 정리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공무수행이란 직분과 역할밖에 모르는 이들의 짜증스런 얼굴 혹은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근무 시간이 초과하지 않게 살가죽이 태워져야 했다. 죽을 때도 눈치를 봐야하는 신세라니, 중달의 얼굴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쫓쫓, 혀차는 소리를 들으며 군고구마 통이나 다름없는, 그보다 백배 천배 뜨거운 철통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절로 고개가 흔들어졌다. 아들의 손에서 자신의 육신이 흩어지는 것이 소원이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은 기대하지도 않았다. 원망의 울부짖음도 상관없었다.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가야한다는 사실만이 견딜 수 없이 가슴에 사무쳤다. 세상에 대한 최후의 자존심이었다.

죄책감 때문에 아들을 찾을 용기도 없던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노골적으로 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세상 어딘가에 살아 흐르고 있을 자기 핏줄이 팽팽하게 영혼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몇 달 사이에 중달은 병색이 완연해졌다. 이 해를 못 넘길 거라고 의사는 말했었다. 필구는 어쩌면 이 술자리가 중달과 함께하는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에 매몰차게 그를 말리지 못했다. 중달 역시 자기에게 치명적임을 알면서도 사약을 들이기듯 비장하게 소주잔을 비웠다. 까맣게 타들어간 중달의 얼굴을 보던 필구가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는 끈 떨어진 망석중이 신세가 될 거라 생각하니, 막막하고 서러워 목이 메었다.

중달은 겨우 몸을 일으켜 머리맡으로 팔을 뻗었다. 항상 들고 다니던 검은색 배낭의 어깨끈을 잡아당겨 무릎 가까이 끌어당겼다. 어깨끈은 땀국물에 젖어 반질반질하고, 까만 실밥 여러 가닥이 풀려 너털거리고 있었다. 눈두덩의 늘어진 얇은 가죽조차 가까스로 밀어 올릴 정도로 기력이 쇠진한 그는 벽에 몸을 기대 채 가쁜 호흡을 했다.

중달의 눈동자는 코앞의 필구를 똑바로 응시하지 못했다. 먼 곳을 향한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흐렸다. 어쩌면 자기 안으로 꺾인 시선일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외부세계로의 관심을 거두어버린. 방바닥에 떨어뜨린 채 힘없이 펼쳐져 있는, 생의 끈을 놓아버린 듯 허전하고 쓸쓸한 손의 벌어진 손가락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스쳤다. 예순아홉 해가 바람에 실려 손 안에서 흩어져 나갔다. 그럴 때마다 오므라진 손끝이 잠깐씩 움찔했다. 혹독한 전쟁을 치른 생의 전리품처럼 손바닥의 굳은살이 형광불빛 아래 누렇게 떠있었다.

“오늘이…… 며칠이고? 이십오 일이 지났나? 돈 들어왔을 까. 일 끝내고 오면서 찾아 온나. 방세 줄 날도 지났다.”

중달은 배낭 안쪽 지퍼를 가리켰다. 필구는 배낭 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매달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었다. 박스 주워서 모은 돈과 노령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오십만 원은 웃돌았다. 필구와 각각 십만 원씩 보태서 다달이 월세 이십만 원을 충당하고 있었다.

중달은 부스스 일어났다. 벽에 붙어 자고 있는 필구를 물끄러미 일별하고 집을 빠져 나왔다. 매캐한 연기가 계속해서 그를 유혹했다. 녹슨 대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끼익 신음소리를 내며 곧 붉은 쇠부스러기로 내려앉을 듯했다. 동네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편함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804-101 따위의 숫자뿐이었다.

비탈진 골목길을 오르자면, 다닥다닥 붙은 집 앞에 내일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은 노인들이 쪼그리고 앉아 드문드문 오는 사람들을 주시했다. 중달은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집요하게 따라붙던 시선이 떠올랐다. 노파의 눈은 세상 이치를 모조리 통달한 체념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번뜩이는 예리함이 있었다. 중달이 노파와 눈이 마주쳤을 때 소름이 돋았던 것은, 이미 그녀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노파는 하루 중에 해야 할 일이 오직 그것뿐인 양 행인을 필요 이상으로 빨리 주시했다. 중달은 웬지 노파의 시선이 닿으면 자기의 명줄을 나눠주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 불쾌하고 섬뜩했다. 그럴 때마다 중달은 객, 하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가래침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담벼락을 향해 내뱉곤 했다. 밤이 되면 노파가 떠난 자리에 한껏 동공이 열린 고양이의 눈동자만이 빛을 뿜

어내었다.

노파는 한여름 땡볕에도, 한쪽 다리가 찌그러져 기우뚱한 의자에 작은 몸을 의지하고 팬티 고무줄처럼 늘어진 긴 하루를 보냈다. 중달은 늘어진 소매 사이로 한없이 처져 있는 그녀의 젖가슴을 흘깃 보았다. 바람 빠진 풍선이 저렇지 싶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여름 날, 노파의 모든 것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젖가슴도, 낡은 러닝셔츠도, 앙상한 이마에 흠어져 있는 은회색 머리카락도, 부러진 부챗살도. 지나가는 아이의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처럼, 내리찍는 태양 빛 아래 모든 것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 한밤중에 노파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동짓달 보름이었다. 노파가 앉아있던 의자는 눈 속에 묻혀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골목 한쪽에 쌓인 눈은 겨우내 흰 구름을 만들며 집집이 자리 잡을 것이었다. 아이들은 눈더미를 이글루라 불렀다. 그러나 중달에게 눈더미는 백색무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우두커니 서서 의자를 바라보던 중달의 뒤로 도둑고양이가 쉬익 달아났다. 그의 집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중달은 자기 집 대문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바람에 꺾꺾거리며 흔들리는 대문 사이로 필구가 보였다.

‘또 저러고 있구마. 고마 해도 될 낀데…….’

필구는 손바닥만한 마당 한구석의 수돗가에 서 있었다. 둥글게 굽은 필구의 등이 여러 겹 옷을 끼입은 탓에 비대해 보였다. 얼음덩어리가 담긴 벽돌색 플라스틱 함지박을 끙끙거리며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가위를 찾아 쥐고는 뽀족한 끝으로 함지박의 얼음을 내려찍기 시작했다. 힘의 강도가 세지는 만큼 그의 얼굴도 험악하게 변해갔다. 술기운이 남아 흰자위에 붉은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러 번 찍힌 얼음은 뿌연 가루가 되어 얼굴과 온 방안에 튀었다. 필구의 눈썹과 머리에 서리처럼 하얗게 얼음 가루가 맺혔다.

한밤중 ‘턱 턱’ 하는 소리와 얼음이 부딪치며 내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삼양동 꼭대기의 막다른 골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담을 넘던 소리마저 ‘쩍’ 하고 차가운 돌덩이에 붙어버릴 만큼 추운 날씨였다. 영하 십도를 오르내리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쫓쫓…….’

돌아선 중달은 쿵쿵거리며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연기는 노파의 집에서 피어올랐다. 대문 너머로 집안을 살피던 그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좁아터진 집구석에 웬 사람들이 이래 바글바글하노?’

시장기가 돌아 한쪽 구석에 슬며시 끼어 앉았다. 노파는 방 한구석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 연신 무언가를 닦았다. 내복 소매를 끌어내려 닦고 있는 것은 빛바랜 흑백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다. 누렇게 변한 색갈만으로도 세월을 짐작할 수 있는, 노파의 남편 사진이었다. 주위에 서 있는 한 무리는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중달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중달이 쭈뼛거리며 막 동태전을 집으려 할 때였다.

“으흠! 거, 자네는 누군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중달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고개를 돌리다 날렵

히 솟아오른 버선코에 시선이 꽂혔고, 천천히 올려다본 시야로 눈부시게 푸른 두루마기 끝자락이 보였다. 흰 수염을 길게 늘이고 갓을 쓴 노인이 노기등등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뭘꼬? 내는 중달이라 카는 사람시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으나 중달은 기죽지 않기 위해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추세우려 했다. 하지만 요상한 어떤 기운이 어깨를 짓눌러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어디 소속인가? 신원증명을 해보시게.”

노인의 우렁찬 목소리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중달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입성은 무슨 TV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각양각색이었다. 중달의 눈이 더 휘둥그레졌다.

“감히 이 자리가 어디라고 너 같은 놈이 들어와 앉았는가?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이승을 헤매는 떠돌이 녀이 올 자리가 아니니 썩 물렸거라!”

노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모여 있던 사람들도 입을 모아 외쳤다.

“원귀는 물러가라!”

연이어 왕조시대 포졸 같은 복장인 덩치 좋은 사내가 중달을 끌어다 문밖으로 던졌다. 문이 ‘꽁’하고 닫혔다.

되돌아가는 중달의 어깨가 한숨과 함께 점점 축 처졌다. 맑은 하늘 날벼락이라더니, 이게 뭐 꼴인가. 살아서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집구석에 무슨 귀신에 썩어 주춤주춤 들어갔는지, 실로 후회막심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계속 해댔다. 민망하고 불쾌할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며 헛기침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

‘이승에서 포졸 하다가 죽은 놈은 죽어서도 저 짓거리 하나보재? 한번 양반은 죽어서도 양반이구마……. 그라몬 내는 저승에 가서도 쓰레기 주워야 되는 거 아이가. 이승에서 괘시받고 서러운 인생이 저승 가서도 그래 살아야 한다? 에이!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되노. 이대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기 내 운명이가?’

중달은 기운이 빠져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았다. 흰한 달빛에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중달의 내부에서 들려왔다. 서러움이 북받쳤다.

‘정만아, 살아있기는 있나? 왜 이리 안 오노? 니 얼굴 한번 보고 갈라꼬 내 이래 안 있나. 니한테 미안타는 말도 몬했는데…….’

살아서도 길을 몰라 헤맸었다. 매 순간마다 어디로 가야하나, 한숨 쉬며 발길 닿는 데로 살아왔다. 더러워서, 험해서, 보잘것없어서.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만 언제나 허락되었다. 어차피 죽으려고도 한 몸, 이렇게나 저렇게나 한세상 살고 가면 되는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죽은 이 마당에서까지 완전하게 길을 잃고 나니, 생전의 막막함은 비길 바도 아니었다.

‘출대이……억수로 출대이.’

뇌의 구부러진 면마다 찬바람이 들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다. 창자 사이사이로, 핏줄을 타고 흐르는 서늘함에, 새처럼 몸을 떨었다. 그리고 보니 골목은 어둠과 안개에 싸여 황천길인 듯 끝이 보이지 않았다.

노파의 지붕에서 피어오르는 기괴한 푸른빛을 밤새워 지켜보던 그의 눈에 어린 시절의 중달이 보였다. 어린 중달이 골목을 몇 바퀴 째 돌고 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어린 중달의 등쪽으로 짜리 빗자루가 사정없이 내리쬐었다. 주위엔 인절미가 되어버린 동태전이 나뒹굴고 있다.

잔칫집의 기름 냄새에 홀려 몰래 숨어들어가 훤친 음식이 동태전이었다. 그 집을 기웃거리며 골목을 배회하던 일이 엇그제 일처럼 선명했다. 담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으로 입술이 바짝 바짝 마르고 심장이 쿵쿵대던 순간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린 중달에게 동태전 하나와 바꾸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허기진 배는 다른 감각은 무더지게 만드는 반면 후각은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세상의 온갖 냄새를 다 빨아들였다. 단지 배를 채우기 급급했던 지난날이 새록새록憶올했다.

어린 나이에 배고픔으로 비롯된 절망은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다. 하루를 쉬면 하루를 굶어야 했고, 몸살이라도 나서 이삼일 일을 쉬면 생존 자체가 간당간당했다.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머리도 가슴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다. 몸 전체가 조금씩 위장으로 변해갔다. 차츰 다른 기능이 퇴화하며 하나의 기능만이 작동했다. 먹을 것만 보는 눈, 먹을 것만 들리는 귀, 먹을 것이 있는 데로 향하는 손과 발…….

사랑이, 부정(父情)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핏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절대적 이유와 핑계가 되었다. 가난은 어떤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악의 굴레라고 생각했다.

불현듯 짜리 빗자루의 따가운 감촉이 새삼 느껴져 등을 어루만졌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끼익’하는 소리가 비명처럼 정적을 가르고 희뵤한 어둠 속으로 퍼졌다. 필구였다. 이른 아침부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몸 하나 빠져 나올 만큼만 대문을 밀고 나왔다. 녹이 쓴 대문은 열린 공간만큼 길거나 짧은 소리를 냈다. 최소한의 소리를 내기 위해 그들은 몸 하나 들락날락 거릴 정도만 문을 여닫고 다녔다.

중달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그를 비롯한,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퇴락해가고 있었다. 경첩에 기름을 치는 일도 필구가 해오던 일이었다. 필구 역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어딘가부터 붉게 녹슬어가는 것같이 보였다. 눈동자의 붉은 핏줄이 그의 온몸을 휘감을 날을 기다리며 독한 소주를 들이붓는 것인지도 몰랐다.

중달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앞을 가로질러 잔뜩 어깨를 움츠린 필구가 종종걸음을 쳤다. 작업복이 든 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 몹시 불안해 보였다.

‘필구 자가 와 저라노? 술도 안 깨가고 아침부터 어텔 가노?’

문득, 자기 아들인 정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중달은 벌떡 일어났다. 황급히 따라붙어 필구의 어깨 위에 날름 올라앉았다. 무사히 비탈진 골목을 내려와 큰길가로 나왔다. 골목 초입의 ‘신통보살’ 간판 밑을 지나고, 문밖으로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가게 주인여자 옆을 지났다. 보풀이 잔뜩 뭉쳐진 목도리를 머리끝까지 칭칭 감은 여자의 입에서 뽀얀 입김이 새어 나왔다.

‘일 가세요? 큰 아저씨는 아직 시골에서 안 오셨어요?’

여자는 중달의 안부를 물으며, 쌓여 있는 박스를 보라는 듯 필구의 시선을 끌고 갔다. 난감한 표정을 짓는 여자의 얼굴이 뽀로통해졌다. 이런 식이면 다른 사람에게 박스를 주겠다는 무언의 눈빛이었다. 필구는 오른손을 들어 알았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동안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깨 위에 앉아 있는 중달의 고개가 자꾸만 가게 쪽으로 돌아갔다. 못내 아쉬워서였다. 쌓여 있는 박스도 못 챙기는 필구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놈 자식, 내가 없다고 사는 꼬라지 보라. 빨리 나를 잊고 제대로 살아야 할 텐데…….’

중달은 붙들고 있는 필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삐뚜름하게 눌러 쓴 모자는 반듯하게 씌어 주고 옷깃도 여며주었다. 필구의 몸이 반쯤은 얼어 뼈저덕거리는 것이, 무슨 목각인형 같았다.

부자연스럽게 걷던 필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N은행의 이십사 시간 영업소 앞이었다. 슬쩍슬쩍 경계의 눈빛으로 좌우를 살피더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바지춤에서 통장을 꺼내들고 구석 쪽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다가섰다. 거침없이 계좌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까지 찍었다. 필구의 얼굴 옆으로 고개를 숙 내밀고 현금지급기 화면을 보던 중달이 그에게서 뛰어내렸다.

‘괘씸한 놈! 내 그럴 줄 알았다. 만날 술 먹고 디비저 자면서, 뭐? 정만이를 찾는다꼬? 내 연금을 찾아 쓸라고 나를 이래 놔둔 기제? 얼음을 뒤집어쓰고 드러누버 두 달이 지났다 아이가. 저 문디 같은 놈이! 전신만신에 좀약을 박아 놓고……, 이래 어중간한 상태의 녀트로 언제까지 있어야 되노? 아! 지 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필구의 손에는 모서리가 닳은 중달의 통장이 들려있었다. 통장에서 구만 사천육백 원 씩, 두 번 출금되어있었다.

중달의 화가 나 들썩이던 어깨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길바닥과 수직을 이룰 만큼 한없이 처졌다. 골목 끝 공터에 팽개쳐져 있는 자기의 리어카에서 한나절을 쭉그리고 앉아 실망과 노여움, 배신감에 몸을 떨던 그의 눈에 불현듯 장갑 한 짝이 들어왔다. 필구가 그에게 선물했던 장갑이었다. 눈이 묻은 장갑은 동태처럼 찌그러진 채 얼어있었다.

빨간 리본이 양증맞게 붙어있는 상자를 내밀며 축스럽게 웃던 필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리어카를 구해 끌고 오며 환하게 웃던 그였다. 그가 뒤에서 밀어주는 리어카는 훨씬 가볍고 수월했다.

‘그래…… 나는 살라꼬 아를 버렸고, 니는 살라꼬 나를 안 버리네?’

중달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창으로 들어온 석양빛이, 텅골고 있는 소주병에 부딪쳐 그에게 반사되었다. 눈이 부셨다. 방은 여전히 주황빛으로 물들어 미세하게 일렁였다.

그는 얼음 속에서 코끝을 드러내며 누워있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낮게 중얼거렸다.

“중달아, 천천히 썩으래이…….”

얼음조각 하나를 들어 코끝에 살짝 올려놓았다.

소설 | 마스크라

※ 이 작품은 노산 이은상 선생의 「서간수필」이 과제로 제시된 데 대한 답글이다.
노산의 수필도 명문이거니와, 이에 대한 수강회원의 답글 역시 감동을 자아내는
수작이므로 소개한다.

노산수필/김 군에게

김 군이 다녀간 어젯밤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소. 김 군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쓰고 싶으면서도 실상은 쓰고 싶지 않은 글이오. 왜냐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도 슬픈 사연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꼭 써야만 한다는 무슨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소. 그래서 이 붓을 들었소.

어젯밤 우리가 만난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소. 아, 거기서만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소. 그대는 품속에서 그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었소. 나는 그대의 어머니를 생전에 뵈은 일이 없었기로 반가이 받아들였소. 그런데 그대의 가신 어머니는 한 눈을 상하신 분이었소. 그것을 본 순간, 내 머리에는 '불행'이란 말이 퍼뜩 지나쳤소. 그와 동시에 나는 그대가 더욱 정다워짐을 느끼었소.

그러나 뒤를 이어 주고받은 그대와 나와의 이야기, 김 군, 그대는 이 글을 통해서 어젯밤 우리가 나눈 대화를 한 번 되새겨주오. 그대는 어느 화가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그와 친하냐고 묻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소.

"그럼,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

"무엇인가요?"

"이 사진 가지고 내 어머니 모습을 하나 그려달라고 말씀해주시오. 보수는 후하게 드리지요. "

"내 힘껏 청해보지요."

그림으로나마 어머니를 모시려는 그대의 착한 뜻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소. 그래서 나는 꽤히 약속을 했던 것이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그대의 말, 그대는 가장 부자연스런 웃음과 어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였소.

"그런데 그림을 그릴 적에 두 눈을 다 완전하게 그려달라고 해주십시오. "

김 군, 순간 내 눈앞은 캄캄해지고 내 가슴은 떨렸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소. 두 입술이 떨어지질 않았소.

겨우 입을 열어 내가 한 말은 돌아가 달라는 한마디뿐이었소.

나는 그대를 보내고, 껄뽀하고 분한 생각에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었소. 그대가 평소에 어머니의 눈 때문에 얼마나 한스러웠기에 그림에서라도 온전히 그려보려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려고도 해보았소. 그러나 그대 품속에 들어 있는, 그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한 눈 상하신 그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 원망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소.

김 군, 그 즉석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대는 나의 열리지 않던 입에서 분명히 듣고 간 것이 있었을 것ियो. 말 없던 나의 입에서 듣고 간 것이 없소? 만일 없다면, 이제라도 한마디 들어 주오. 그러나 내 말을 듣기 전에 그대는 먼저 그대의 품속에서 그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오. 상하신 한쪽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자세히 보오.

김 군, 한 눈을 상하신 까닭으로 평생을 학대 속에 사셨는지도 모를 그 어머니……. 애달소. 한 눈 없이 그대를 낳고 기르고, 그대를 위하여 애태우시다 이제는 저 차가운 땅속에 드셨거늘, 자식인 그대마저 어찌 차마 그대 어머니의 상하신 한 눈을 업신여겨 저버린단 말ियो? 그대에게 한눈 가지신 어머니는 계셨어도 두 눈 가지신 어머니는 없었소. 온 세상

이 다 불구라 비웃는데도 그대에겐 그분보다 더 고우신 분이
또 누구이겠소?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이 다 없을지라도 내
어머닌 내 어머니요, 내가 다른 이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법
이오.

김 군, 그림으로 그려 어머니를 모시려 한 착한 김 군, 그
런 김 군이 어떻게 두 눈 가진 여인을 그려 절고 어머니로 섬
기려 했던 말이오?

그대는 지금 곧 한 눈 없는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의 품속
으로 돌아가오. 그리하여 평생 눈물 껴있던 그 상하신 눈에
다시는 눈물이 껴지 않도록 하오.

이만 줄이오.

선생님,

어제는 선생님의 노여움과 실망이 너무 큰 듯해서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나름의 변명이기는 하나, 선생님
께서 조금이나마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금 저를 따뜻한 눈길로 보
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올립니다.

선생님께서 꾸짖으셨듯이, 지난날의 저는 어머니가 몹시도 부끄
럽고 창피하였습니다. 학창시절, 완강한 저의 고집 때문에 학교에
오실 수 없었던 어머니는, 몰래 숨어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곤 하
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실내화를 갈아 신기 위해 운동화에서 발을

막 꺼낸 순간, 실내화가 저만치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제 앞을 가로질러 한 아이가 혀를 쏙 내밀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녀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겼고, 어디선가 고함과 함께 다급히 뛰어오는 구둣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다보면 엄마의 얼굴이, 왼쪽으로 올라다보면 제가 때린 아이 엄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고 있는 건지 누굴 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어머니는 오른쪽 눈만 보이셨습니다. 엄마의 목이 꺾어진 걸로 보아, 아줌마에게 사과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기억하는 바로 그 눈. 옅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눈두덩과 까맣고 긴 속눈썹은 동화책에서 보던 공주 같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깊고 맑게 빛나던 두 개의 까만 눈동자는 더는,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저의 의지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돌아온 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눈을 외면했고, 그럴 때마다 아줌마의 까만 두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걷는 버릇이 생겼고, 어머니는 학교 앞 골목 끝에 숨어서 저를 보셨습니다.

자식이 이렇진대, 남들에게서 받는 설움이나 멸시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아픔보다 제가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시고, 혼자서는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저와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위축되고 스스로가 바람인 양 형체를 보이길 꺼리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하여 언제나 뒤로, 안으로 숨으셨습니다. 한눈을 가진 어머니가 불편했던 것은, 눈이 하나라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 가장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해 들어간 대학에서, 어머니의 뜻과는 달리 저는 공부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운동권 선배들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어머니와 나의 불행이 사회의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억압이 잘못 표출된 탓이었을까요. 저는 시위 도중, 화염병 파편에 실명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 병원에서,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대를 이어 외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내 어미에게 그렇게도 상처를 주더니…….

큰 수술 끝에 가까스로 실명은 면했으나, 그 일로 어머니는 상심이 커서 한동안 기력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 가운데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다.

옆머리를 내려 보기도 하고, 모자를 써보기도 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괴물 같은 이 눈을 감출 수가 없다.

재우가 친구를 때렸다.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리는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재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질 않는다.

재우 친구 엄마는 참 고운 사람이다. 짙은 마스크라 아래 두 눈이 보석처럼 빛났다.

단 한 번이라도 저런 눈을 가져 봤으면…….

재우가 대표로 단상에서 상을 받는다고 가게집 여자가 전해주었다.

재우는 이번에도 말하지 않으려나 보다. 감나무 집 담 끝에서 보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겠지.

책가방 속에서 구깃구깃 모서리가 다 닳은 상장을 슬쩍 꺼내두겠지.

김칫독 옆에 항아리를 문었다.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일하는 시간을 늘려볼까……. 돈이 모이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모으다간, 죽기 전에 멀쩡한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두 눈을 가질 수 있어. 가슴이 떨려왔다.

재우와 찍은 사진이 없다. 두 눈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사진관으로 달려가리라.

제법, 목돈이 되었다. 이제 한 삼 년만 더 모으면 수술을 할 수 있다. 오늘은 화장품 가게에서 마스카라를 보고 왔다.

수술 후엔 더 좋은 게 나오겠지.

재우의 대학 졸업식 때는 재우가 환히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날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아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자꾸 웃음이 나온다. 그 아이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

다. 이 괴물 같은 눈이 없어지면, 재우도 행복해지겠지.

어머니는 수년간 조금씩 돈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그 큰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돈만은 손대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저의 사고를 알고 뛰어온 어머니의 품 안에는 빗바랜 지폐들이 가득 너풀거리고 있었고, 장독대에는 깨진 항아리의 사금파리들만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다거나 내 어머니의 외눈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로 인해, 오랜 시간 꿈꿔 오고 계획한 일을 못 하게 된 어머니에 대한 보답의 뜻으로, 이제라도 어머니에게 그토록 바라시던 두 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저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셔도 다른 변명은 없습니다. 다만, 불효를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부 한번 하는 거라고 너그러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보라색 눈두덩의 까만 두 눈보다 괴물 같은 한눈을 가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 눈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내 맘 속에, 내 가슴속 사진에 그 어머니는 계십니다. 돌아오는 어머니 생신에는 선물로 마스크라를 준비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소원대로 예쁘게 두 눈에 마스크라하고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 달라 청할 것입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예쁜 두 눈에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어머니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가짜의 어머니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와도 아픔을 애

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일기를 쓰시며 외롭고 고된 한평생을 버
티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얼룩지고, 그 위에 제 눈물로 덮어버
린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의 실망과 연민어린 눈빛이 밤새 잠을 뒤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적어도 선생님께만은 저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
졌으면 합니다. 부디 저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선생님께서 우려
하신 것 같은 못난 아들은 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밥이 나와!”

공자님, 맹자님 말씀보다 어떤 종교의 교리보다, 믿고 실천하리라
고 굳게 다짐한다. 점집 여자가 들려준 말 중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거 하나였다.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거나 사
십이 넘어 사업 운이 풀린다거나 하는 따윈 메인 음식을 먹기 전 에
피타이저 줌으로만 여기면 되었다. 집안에 무슨 일 있지, 하며 신들
린 눈빛으로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자기의 사정을 떠올리며 고개를
주억거릴 것이다. 집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테
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둘러보면 아픈 사람 하나쯤은 있을 것이고,
혼인 적령기를 넘긴 딸자식, 직장도 없이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
지 이불 뒤집어쓰고 뒹굴거리는 아들자식, 꽃땀과 얽힌 남편의 문
제로 허구한 날 싸우는 부부, 하다못해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하수구가 막혔다거나, 갑자기 개미들이 온 집안을 점

령할 수도 있다. 일의 경중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천지 차이일 테니까.

이번 점집 여자는 독창성과 흡입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됐지만 고객 맞춤형 처방이 마음에 들었다. 지갑에서 오만 원을 꺼내며, 나는 단 하나의 문장만을 지갑 깊숙이 넣었다.

결혼한 첫째, 머느리도 배탈이 난다는 추석날에……. 달 보고 울게 될 줄이야. 옛사람들이 달 보고 눈물지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 보다. 울고 싶은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이 필요했고, 가로등도 없던 시절, 달과 자기만이 호젓이 마주하게 되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을 달에 토로하지 않았을까. 요즘처럼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아마도 기지국의 역할을 했겠지. 은은하게 온 세상 구석구석 닿는 달빛을 타고 애달픈 마음을 실어 보냈던 것은 아닐까.

스물다섯 명이 먹어대는 뒤풀이거리는 나를 온종일 개수대만 쳐다보게 했다. 식구들이 한창 식사중일 때, 나는 주방 옆의 떡이며 과일 등의 먹거리가 쌓인 곳에서 바구니 가득 과일을 꺼내어 식사마침과 동시에 내갈 수 있게끔 씻어서 가지런하게 준비해 두어야 했다. 남자들과 아이들이 식사를 끝낸 상 모퉁이에 밥그릇 하나 달랑 들고 앉아 젓가락 든 팔을 쭉 펴지도 못한 채, 내 밥그릇 중심으로 사오십 센티미터 반경에서만 젓가락은 우아하게 오갔다. 마음은 바빠도 수저질과 입놀림을 경박하게 할 순 없었다. 내 밥그릇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갈비를 먹느냐, 김치만을 먹느냐가 달려있었다. 상 모퉁이의 대각선 지점에 있는 홍어회를 먹기 위해 엉덩이

를 들썩이며 팔을 뻗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가끔은 먼저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해 당신이 손수 만드신 반찬도 한 번쯤은 먹여주어야 했다. 형님들의 ‘차 마실까’라는 청유형 명령은 그나마도 반경 사십 센티 거리의 반찬에도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땅 파듯, 밥그릇과 가장 짧은 직선이 그어지는 반찬이 주메뉴가 되곤 했다.

궁둥이 한번 붙이지 못하고 다 식은 커피를 급하게 후루룩 마시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음 끼니를 준비했다. 이 패턴으로 하루에 세 번, 사흘 간……. 손님상과 저녁 술상까지 합치면 식당 주방에 취직한 거나 다름없었다.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는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면 꿀밤도 먹였을 아이들이 갑자기 조카가 되어 상전 노릇을 할 때는, 나보다 한 뼘이나 더 큰, 수염이 듽성듬성 나기 시작한 학생들을 눈빛 하나로 제압하던 내가 몹시 그리워졌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낮게 간 목소리는 어설픈 반항심 정도는 충분히 꺾을 힘이 있었다. 물론, 성형의 힘이 좀 보태어지긴 했다.

학원장은 나를 잡기 위해 ‘외유내강’을 운운하면서 더불어 책임감도 강요했다. 나는 책임감도 무엇도 아닌, 학원장이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배우를 닮았다는 이유로 한 학기를 더 맡았다. 무언가를 결정함에 많은 이유가 필요치 않았다. 단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깨, 무릎 튀어나온 면바지, 걷다가 넘어질 것 같은 불안한 걸음걸이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였다. 끝말을 잊지 못하고 참으며 이를 악무는 배우의 연기는 긴 대사의 나열보다 많은 것을 전달했다. 원망과 애절함이 가득한 그의 눈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는지…….

그의 출세작 ‘초록 물고기’는 ‘로얄 살루트’와 함께 나의 이십대를

지배하던 배경이었다. 친구 아빠의 술을 훌쩍훌쩍 마시면서 본 그 영화는, 끝날 즈음해선 우리를 훌쩍거리게 했다. 찢찢 짜면서 흠쳐 먹는 술은 달콤했다. 도자기로 된 술병이라 병의 무게도 있었거니와 남은 술의 양을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후에, 친구의 아빠가 술을 찾게 되더라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한두 잔 남기는 센스도 발휘했다.

“엄마! 물!”

소리치면 잠시도 지체 않고 떠다 바쳐야 하는 막내작은엄마라는 위치가 낯설다 못해 서러웠다. 그런 조카들이 얄미웠지만, 겉으로는 상냥한 미소를 유지하며 천성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같이 굴었다. 이 연극을 오래, 자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 집안의 질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동화되지 않을 선택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세 형님 모두, 먼저 아버님의 눈에 들어 머느리가 되었다. 아주버님 세 분은 효자인 걸까, 자유연애를 못하는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걸까. 집안 식구가 모두 충청도…… 느린 말투 사이사이의 공백은 능구렁이가 기어다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충청도를 고향으로 둔 사람들은 철퇴를 맞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기억나질 않는다…….

‘저들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지?’

차라리, 눈에 보이는 선명한 구박과 모진 말로 시집살이를 시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오히려, 자상한 배려와 따뜻한 가족애로 푹푹 뭉쳐진 구성원들의 친밀감이, 기름기 잔뜩

문은 그릇 위에서 곁돌고 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융화될 수 없게 하였다.

나의 노동력이 하찮게 써지는 것이 억울했다. 앞치마가 다 젖도록 설거지하고 있는 옆으로 그릇이 하나둘씩 쌓일 때마다 새초롬해지는 표정을 감추려 그릇만 더욱 박박 닦아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TV에서 들려오는 것 같이 현실감이 없다. 그들과는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 웃음소리에 섞으려면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러야 할까.

시아버지는 뒷마당의 옛집은 그대로 둔 채, 그 앞에 새 벽돌집을 지었다. 장성한 아들들이 장차 거느리게 될 식솔들을 위해 거실을 넓게 지으셨고, 특히 며느리들을 위해서는 주방을 크게,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시어머니는 네 며느리와 나란히 서서 차례로 지시한다. 눈치껏 분업화되어있는 순서에 따라 푸성귀든 생선이든 개수대를 거쳐 도마에 오르고 불 위로 올라간다. 며느리들 서열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동선도 커진다. 막내인 나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 안 구석구석을 모른다는 이점을 십분 써먹어도 발이 보이지 않게 동분서주해야만 한다.

“나가서 파 한 뿌리 뽑아 와라.”

“계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시아머니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잼싸게 외근을 자처한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게 잘 빠져나가는 둘째 형님이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야 한다. 분명, 둘째형님은 파뿌리를 열 번도 더 뽑을 시간을 벌 것이다. 먼저 화장실에 들를

것이고, 덕분에 거울 한번 보고, 다음으론 친정에 전화해 언제쯤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할 것이고, 아이들 단속하고, 아주버님과 뭔가 비밀스러운 눈짓도 나누며.

힘쓰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연장선인 것처럼, 미꾸라지가 빠져나가기 전에 흘러버리는 물처럼, 유유히 그들로부터 빠져나온다.

밥통에서 ‘쉬이익’ 김빠지는 소리와 도마 소리, 안방의 TV 소리, 아이들 소리를 뒤로하고 대문을 나선다. 대문 옆에서 앞발에 주둥이 박고 빠친 듯이 엎드려 있던 귀터퍼리는 날 보고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든다. 꽤나, 무료했군. 귀가 길게 늘어진 코카 스파니엘에게 시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귀가 얼굴을 덮었다…… 그래서, 귀터퍼리.

나이 든 사람들이 귀여울 때가 있다. 친정엄마의 소녀 같음이 그랬고, 시아버지의 단순함이 그렇다. 세계적인 대문호의 이름을 개 이름으로 짓거나 철학적인 이름을 짓기 위해 공책에 죽 써보는 일 따위는 안 할 테니까. 복실이, 발발이, 검둥이, 흰둥이, 해피……시아버지의 현상학적 작명이 마음에 들었다.

귀터퍼리의 짙은 갈색 눈은 자신감 있고 지적으로 보였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분양될 때는 천만 원도 넘었다는 견종이다. 낙천적 성격으로 놀기를 좋아해서 3대 악마견이라고도 하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런 능력이 있는 개를 시골집 대문 옆에다 묶어두고 짓으라 하니,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시아버지는 밥값도 못한다고 뒷마당의 똥개가 낫다 하면서 혀를 끌끌 찼다. 무엇보다 못마땅해 한 것은, 사람을 보면 오줌을 눈 뒤 긴

꼬리로 살래살래 흔들어서 바닥에 흥건하게 있던 오줌을 얼굴이고 옷이고 다 튀게 하는 것이었다.

짐작건대, 시아버지 성격으로는 개 오줌이 당신의 몸에 묻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으리라. 그래도 대접해주느라 똥개를 뒷마당으로 밀어내고 앞마당 대문 옆에서 얼굴마담이라도 하라고 놔두고 있는 참이다. 추석 쇠고 손주들이 서울로 돌아가고 나면, 아마도 귀더퍼리는 뒷마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귀더퍼리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서 비린내 폴폴 풍기는 개밥그릇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동병상련의 눈빛을 나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니? 어찌다 너는 영국에서 바다 건너 여기, 충청도까지 온 거니? 조상 잘못 만난 탓이겠지.’

귀더퍼리는 내가 한숨을 쉬며 자기를 바라보는 품이 딱히 놀아줄 것 같지 않았는지, 밥그릇에 말라붙은 생선살을 건성으로 핥는다. 내게 흥미가 없다는 듯한 귀더퍼리의 태도에 슬며시 약이 오르긴 하지만, 무릎도 저리고 해서 그만 일어선다.

귀더퍼리는 한쪽 발을 들고 한쪽 엉덩이로 앉은 요가 자세로 귀밑을 신경질적으로 긁어댄다. 빠르게 회전하듯 굼던 뒷발이 귀밑에 닿을 때마다 곱슬곱슬 윤기 나는 기다란 귀가 펴럭거린다. 귀더퍼리의 처량한 신세를 돋보이게 하던 머리 위의 마늘 껍질이 코앞에서 나풀거리다 이내 떨어진다.

발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긴 호흡을 한다. 비로소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진다. 이유도 없이 기죽어 있던 가슴도 활짝 펴보고, 양팔도 크게 돌려보고, 아프다고 말도 못 꺼냈던 허리도 두드려본다. 하

늘도 보고 넓게 펼쳐진 논도 뿌듯하게 바라본다.

고등학교 시절, 온종일 교복 속에 갇혀 움썽달썽 못 하다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지하철 화장실을 빠져나올 때의 자유로움이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복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을 막아주는 방패였다면, 험령한 티셔츠와 반바지는 물리치료실에서 적외선을 쬔듯 온몸으로 거리의 불빛을 흡수했다. 세상 속으로 한 발짝 성큼 들어선 것 같은 착각으로 목적지도 없이 배회했던 그때가, 가장 갈 곳이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에는 양과 껌질처럼 가벼운 삶이었다.

흑시라도 파발을 망쳐서 시어머니에게 한소리 들을까 새가슴이 된 며느리 주제에, 땅 보러 다니는 북부인의 마인드를 가져본다.

이십 평, 삼십 평……토막 난 땅에 겹겹이 쌓인 시멘트만 보던 나는, 넓게 펼쳐진 땅을 보며 내 앞길도 저렇듯 순탄하게 뻗어 나갈 것 같은 안도감을 가진다. 언젠가 꼭 타보리라고 생각하던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바라보는 대평원이 이보다 더 감동적일까. 적어도 집 한 칸 가지려고 인생을 바쳐야 하는 구린 삶을 살진 않겠지.

‘저기까지인가? 우리 논이.’

내 이름 석 자도 올리지 않은 땅을 보며 새록새록 땅에 대한 애정이 피어오른다. 교활하게도, 어느새 ‘우리’ 논이 되어 있는…….

명절 다음 날 오후가 됐을 때, 뭔가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시집간 딸은 기다리면서 며느리들이 친정에 가는 것은 언짢아하셨다.

형님들이 집을 나서려면 시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식구들의 빠른 움직임과 나른함을 오가는 곡예는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아직은 ‘여기에 내가 있다’는 존재감을 확인시키듯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돌보았고, 한편으로는 나의 손을 떠난 일이다 싶게 무성의했다. 점심 후, 대충 냉장고에 들어앉은 반찬들을 보면 알 수 있었고, 다음 끼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 작전개시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부모의 눈을 피해 흩어져 있던 소지품들은 가방 속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고, 어느새 음식냄새 났던 평상복에서 나뉘 외출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식구가 많다 보니 한 삼십 분 쯤 안 보여도 화장실에 갔겠거니 하고 크게 개의치 않았다. 집안의 공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을 것 같은 형님들은 아주버님들에게 가자미눈이 되어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 호시탐탐 탈출의 기회를 잡기 위해 세 부부가 똘마려운 강아지 마냥 전전궁궁하는 것이 보여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다.

언제나처럼 둘째형님이 대담하게 나 몰라라 하며 물꼬를 트고, 셋째형님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얼굴로 황급히 뒤따른다. 그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탈출의 시기를 잡기 위해서 게릴라가 되거나 시부모와 전면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뒤통무니가 빠지게 가는 것이 저런 거구나. 차 두 대가 마당에서 한순간에 빠지고 나면 시부모의 못마땅한 역정이 주차했던 공간만큼 쏟아진다. 비어버린 마당을 서성이며 못내 서운해 하는 시부모를 보며, 뭔가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아서 뒷수습을 해야 하는 큰형님은 적당히 동서들 입장을 대변

한다. 차마, 그런 상황에서 큰 형님네는 명함도 못 내밀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탈출의 기회가 요원해진다. 분위기로 봐선 포기한 듯했는데, 조카들의 가슴이 터질 듯 입은 윗옷과 짧은 치마는 아직 대기상황임을 암시했다. 시아버지가 잠시 출타 중에 뜨는 것이, 직격탄을 피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리라.

시부모님들의 세 형님을 향한 언짢음은 내게는 바지런을 떨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시부모님의 잔소리가 없었다면 남겨진 내가 심통이 났을 것이다. 어쩌면, 남겨진 나에 대한 배려였을까.

새로 지은 집의 방문들에는 호수가 있었다. 파란 아크릴판에 하얀 글씨로 1호, 2호, 3호, 4호라 쓰여 있는 방문들을 보고 있자면, 집을 지을 당시 아버님의 기쁨과 설렘, 기대가 전해지는 듯했다. 빼격거리는, 옛날 집의 매달려 있는 방문과는 대조적으로 현대적으로 짓고 싶은 바람이 가정집 방문에 호수를 새겨 넣게 한 것이 아닐까.

세 형님이 어려워하던 아버님이지만, 나는 그 방문들의 호수를 본 순간부터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엄격하고 고지식한 시아버지에 게도 엉뚱함이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4호 방에는 재래시장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대형 저울이 방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다. 다섯 형제에게 눈금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고춧가루와 깨, 밤, 감, 콩……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절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보따리 싸는 데 한나절은 보냈다. 다섯 개로 나누어진 봉지들은 종류대로 주르르 줄을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저울로 잴다 해도 내 눈에는 약간의 차이지만 조금 더 불룩한 봉지가 보였다. 티 나지 않게 그 봉지를 챙겨 들었다. 예외라면, 어머니 손으로 한 움큼씩 더 넣어주는 차별화 된 가족의 기호

에 맞춰서일 뿐, 모든 것은 공평했다.

“둘째네는 쌀가루 빵은 걸 많이 먹잖여?”

“큰애는 장정이 다섯이니께…….”

“셋째는 파김치를 많이 먹는단다.”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도록 각각의 코멘트를 달았다. 아버지의 자로 잰 듯이 정확한 셈에, 인정과 융통성을 버무리셨다.

연휴가 끝날 무렵에는, 차바퀴가 반원이 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검은 비닐봉지가 거대한 포도송이처럼 다닥다닥 붙어 차 안을 메우고 있었다.

